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2024. 5. 29. (수)
13:00-18:00

한림대학교 지식미디어센터
(일송기념도서관) 4층 교육실

지방 분권화 시대에서
지역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다.

춘천 지역의 정신적 문화 자산
재정립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업

공동 주최 |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지식미디어센터 | 아시아문화연구소
태동고전연구소 | 한림대학교 박물관 |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지방 분권화 시대에서
지역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다.

공동 주최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림대학교 지식미디어센터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림대학교 박물관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지방 분권화 시대에서
지역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다.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시간	주제	발표자
사회자 - 박은재 사학전공 주임교수		
개회식 13:00-13:30	개회사(축사)	송호근 도헌학술원 석좌교수
	기조강연: 춘천 인문학의 과거와 미래	오춘택 국어국문전공 명예교수
13:30-13:40	휴식 및 기념 촬영	
제1 발표 13:40-14:10	제1주제 <춘천의 역사> "18세기 춘천인 김낙수의 관원활동과 일상생활"	염정섭 박물관장 일송자유교양대학장/ 고고학연구소장
제2 발표 14:10-14:40	제2주제 <춘천의 민속> "춘천의 민속문화의 현황과 전망-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허준구 강원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제3 발표 15:00-15:30	제3주제 <춘천의 사상> "화서학파의 학풍과 유인석 문명관의 특징"	이경구 도헌학술원 한림과학원장
제4 발표 15:30-16:00	제4주제 <춘천의 예술> "춘천의 예술_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시간	주제	토론자
토론좌장 - 박근갑 사학전공 명예교수		
16:30-18:00	제1토론	서세영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
	제2토론	유명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제3토론	엄연석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장
	제4토론	조정래 중국학과 교수
18:00	폐회식	김명준 지식미디어센터장, 인문학연구소장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1 발표	염정섭	박물관장 일송자유교양대학장 고고학연구소장	9
제2 발표	허준구	강원문화예술연구소장	35
제3 발표	이경구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한림과학원장	60
제4 발표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75
제1 토론	서세영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 전임연구원	93
제2 토론	유명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98
제3 토론	엄연석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장	102
제4 토론	조정래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07
부록	일송기념도서관 소장	춘천학 관련 자료 목록	112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1발표

“18세기 춘천인 김낙수의 관원활동과 일상생활”

염 정 섭

박물관장 | 일송자유교양대학장 | 고고학연구소장

18세기 춘천인 김낙수의 관원 활동과 일상 생활

염 정 섭

(박물관장 | 일송자유교양대학장 | 고고학연구소장)

1. 머리말
2. 김낙수의 관원 활동
3. 김낙수의 일상 생활
4. 맺음말(생략)

1. 머리말

최근 춘천에서 소개된 선산김씨 가문의 일기자료는 총 6종 50책으로 조사되었다.¹⁾ 일기자료를 남긴 선산김씨 가문은 춘천의 유력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²⁾ 김낙수부터 기록이 시작된 가문일기의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낙수(金樂洙)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김낙수일기’는 모두 11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17세인 1737년부터 72세인 1792년까지 쓴 일기이다. 김낙수가 세상을 떠나기 보름전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낙수의 아들인 김의집(金義集)이 남긴 ‘김의집일기’는 총 5책인데, 각각 일기(日記), 일기(一)과 일록(日錄)이(二), 삼(三), 사(四)의 제목으로 현전하고 있다. 일기는 1757년부터 1766년까지, 일록은 1767년부터 178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퇴암(退庵) 김낙수(金樂洙)의 손자인 33세 김익환(金益煥)이 남긴 일기자료는 총 14책이다. ‘김익환일기’는 16~17세(1774년~1775년)에 작성한 것부터 시작되는데, 표지에 ‘기사(記事) 이(二)’라고 적혀 있다. 내지에 ‘통덕랑공(通德郎公)’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일록(日錄) 삼(三), 아왕(雅往), 아왕(雅往) 이(二), 일록(日錄), 여사(餘事) 사(四), 한록(閑錄) 오(五), 한사(閑事) 육(六), 일기(日記) 팔(八), 기왕(記往) 구(九), 일기(日記) 십(十), 만록(謾錄) 십일(十一), 만록(謾錄) 십이(十二), 만록(謾錄) 십삼(十三) 등으로 일기 제목이 쓰여 있다.

다음으로 김낙수(金樂洙)의 증손인 34세 김교항(金教恒)은 10책의 일기를 남기고 있다. ‘김교항일기’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49~52세의 일기로 1826~1829년으로 비정된다. 모든 일기의 제목은 ‘일기(日記)’로 통일되어 있는데, 6번째 일기에 해당하는 『녹왕(錄往) 육(六)』이

1)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2021 『춘천 선산김씨(김낙수) 가문 소장 일기 및 고문서 해제 학술용역』, 39쪽.

2) 춘천에 거주하는 선산김씨는 김선궁(金宣弓)을 시조로 하여 14세 김주(金澍)의 후손이 이룬 농암파(籠巖派)에서 분파되어, 17세 김삼경(金三慶)을 파조로 하는 생원공파(文戴公派)이다. 19세 김천수(金天授)부터 춘천에 세거하였으며, 26세 김경직(金敬直, 호는 우정[憂亭], 1569~1634)이 과거 급제 후 중앙 관직을 역임하다가 춘천 우두촌(牛頭村)에 은거하였으며, 춘천에 유배 중이던 신희(申欽)와 교류하였다. 김경직은 1650년(효종 1)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그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춘천 시 서면 신매리에 있는 도포서원(道浦書院)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김경직의 넷째 아들 김종연(金宗泂)-김일헌(金一獻)-김덕연(金德淵)-김석좌(金錫佐)-김낙수(金樂洙, 1721~1792)로 이어졌는데, 이를 소위 ‘우정사파’라 부른다고 한다. 31세 김낙수 이후의 가계는 김의집(義集)-김익환(金益煥)-김교항(金教恒)-김준종(金駿鍾)-김영호(金泳祐)-김창림(金昌林)으로 이어졌다. 한성주, 2022 『춘천 선산김씨 가문 소장 김의집·김교항 일기 자료 연구』, 『춘천 선산김씨 가문 소장 일기·초상화 자료의 가치 조명 학술대회 자료집』, 57쪽.

후의 일기들은 ‘일록(日錄)’으로 제목이 통일되어 있다. 모든 일기의 표지에 ‘조고생원공기(祖考生員公記) 공십일(共十一)’이라고 적혀있어, 후대에 누군가가 생원공 김교항의 일기를 따로 구분하고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11책의 일기 가운데 71세에서 74세(1848~1851)의 기록은 결실되었다.

다음으로 김준종(金駿鍾)이 작성한 총 6책의 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당초에 모두 8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6책(家史 卷之六)과 제8책(家史 卷之八)이 보관해 오는 과정에서 결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기의 표제는 “가사(家史)”로 되어 있으며, 표지 오른편 상단에는 “임술(壬戌), 계해(癸亥), 갑자(甲子)”라고 연도를 표기하고 있다. 연도로 살펴보면 김준종이 49세 되는 임술년(壬戌年/1862)부터 시작하여 경진년(庚辰年/1880)까지 일기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창림(金昌林, 1897~1967)이 29세가 되는 1925년부터 41세가 되는 1937년까지 13년간 작성한 일기 3책이 전해지고 있다.

선산김씨 가문의 일기 작성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교항이 나름대로 작성한 서문을 통해서 선산 김씨 일기 자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김낙수의 증손인 34세 김교항이 쓴 ‘일기 1’은 그의 나이 49세부터 52세까지로 병술(丙戌, 1826년, 순조 26년)에서 기축(己丑, 1829년, 순조 29년)까지 4년 간 기록되어 있다. ‘일기 1’ 앞부분에 「일기서(日記序)」가 실려 있다. 아래 번역문을 소개한다.

일기서(日記序)

우리 집안의 일기(日記)는 증왕고(曾王考: 曾祖父, 김낙수) 참판공(參判公)의 정사(丁巳, 1737)년부터 시작하는데, <증왕고의 일기는> 임자(壬子, 1792)년 2월 임진(壬辰, 17일)에 멈추었다. 왕고(王考, 祖考, 할아버지, 김의집)의 일기는 일이 있을 때에만 작성하여 권질(卷秩)이 많지 않다. 선군자(先君子, 先考, 선친, 김익환)는 12세부터인 경인(庚寅, 1770)년³⁾부터 비롯하는데 그날의 음칭(陰晴, 흐림과 갸)을 기록하고, 일의 살필만한 것을 작성하여, 금년(今年, 병술년, 1826) 6월 초순까지 기록하고 멈추었다. 오호라! 환후(患候)가 지난 겨울부터 더욱 심해져서 2월에 이르러 깊고 무거워졌다. 비록 상(床)과 침구에 의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항상 직접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초1일 이후에 <자식들은> 곧 날마다 큰 번고를 대비하였고, 21일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붕천(崩天, 부모의 사망)을 당하였고 8월에 장례를 마쳤다.⁴⁾ 삼가 눈물을 훔치면서 생각하기를 불초(不肖)가 또한 16세, 17세이니 계승하여 일기를 작성해야 하겠다고 여겼다. 그런데 본래 성품이 게을러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모면하지 못하였다. 오호라, 일기를 작성하는 일은 이미 전가(傳家) 즉 대대로 집에 전하여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節, 제도)이다. 그 선조들의 뜻을 밝히고 후손들이 살필 바를 남기는 데에 있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사계(舍季)⁵⁾의 역서(曆書) 기록을 훑어보면서 살피고 수 개월 분량을 추가로 기록하면서 6월 초1일을 시

3) 현재까지 전해지는 ‘김익환일기’는 16~17세(1774년~1775년)에 작성한 것부터 시작되는데, 표지에 ‘기사(記事) 이(二)’라고 적혀 있다. 일기서의 내용으로 볼 때 김익환은 1770년 12세부터 일기 작성을 시작하였고, 아마도 표지에 ‘기사(記事) 이(二)’라고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원문은 乃克인데, 乃克葬 즉 마침내 장례를 마무리하였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6월 21일 崩天을 당하여 8월에 이르러 장례를 마쳤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춘추좌씨전』 魯定公 下(十五年, 丙午 B.C. 495), 丁巳 葬我君定公 雨不克葬 戊午 日不昃 乃克葬.

5) 舍季는 막내 아우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김교항의 아우 金教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舍弟 즉 남동생 가운데 둘째를 舍仲, 막내를 舍季라 칭한다.

작으로 삼았다. 지금 병술년(1826) 8월 일에 올면서 쓴다.⁶⁾

김교항의 「일기서」에 주목할 만한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군자(先君子, 先考, 선친, 김익환)는 12세부터인 경인(庚寅, 1770)년부터 비롯하는데 그날의 음칭(陰晴, 흐림과 맑음)을 기록하고, 일의 살필만한 것을 작성”하였다는 대목이다. 일반적인 일기 기록의 주요 내용인 날씨<음칭(陰晴)>를 기록하고, 일과(日課) 또는 사실(事實) 가운데 상고할 만한 것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일기기록의 작성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음으로 “일기를 작성하는 일은 이미 전가(傳家) 즉 대대로 집에 전하여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節, 제도)이다. 그 선조들의 뜻을 밝히고 후손들이 살필 바를 남기는 데에 있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김교항 자신의 과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다. 선산 김씨 가문에서 김교항의 증조부대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가문의 규칙이 바로 ‘일기 기록(작성)’이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대목이다. 이때문에 김교항은 위 구절 직후의 본문에서 “사계(舍季)의 역서(曆書) 기록을 훑어보면서 살피고 수 개월 분량을 추가로 기록하면서 6월 초1일을 시작으로 삼았다”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가문 일기 작성의 전통을 온전히 성실하게 계승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일기(日記)를 작성하는 것이 선지(先志)를 밝히고 후고(後考)할 것을 남기는 데 있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보충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마무리하였다.

김교항의 「일기서」를 통해 선산김씨 가문일기의 성격을 가문의 일상생활의 기록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18세기 다른 지역에서 작성된 일기 자료에서도 유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1725년부터 1761년까지 37년간 경상도 고성(固城)에 거주하던 구상덕(具尙德, 1706 ~ 1761)이 집필한 일기인 『승총명록(勝聰明錄)』을 떠올릴 수 있다. 『승총명록(勝聰明錄)』⁷⁾의 서문에서 이정규(李庭奎)는 일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일을 서술하고<敘事>, 사실을 기록하고<記實>, 경계를 권면하는<勸戒>” 이와 같은 세가지 요건을 지적하였다.⁸⁾

또한 19세기에 작성된 『저상일월(渚上日月)』이라는 방대한 일기를 참고할 수 있다. 『저상일월』은 1834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박한광이 시필하여 1950년까지 함양박씨 6대에 걸쳐 작성한 일기 자료이다.⁹⁾ 『저상일월』의 두번째 필자인 나암(羅巖) 박주대(朴周大)는 “사가(私家)에

6) 김교항 ‘일기 1’ 일기서(日記序): 吾家日記, 肇於曾王考參判公丁巳之歲, 止於壬子之二月焉. 王考日記, 卽有事則書之, 卷秩不多焉, 先君子, 自十二歲庚寅, 記日之陰晴, 書事之可攷, 止于今年六月初一焉. 嗚呼, 患候, 奧自前冬彌留, 逮至二月沈重, 雖委床褥, 猶常親自記事, 而初一以後, 則便是逐日待變, 至於二十一日, 竟遭崩天之痛, 乃克八月, 竊自掩泣以爲, 不肖亦在十六七歲, 繼而爲日記, 而素性慵懶, 未免中輟焉. 嗚呼, 記日記事, 旣爲傳家之一節, 甚(其?)在紹先志而遺後攷, 亦不能無少補, 故披閱舍季之曆記, 追錄數月, 而以六月初一爲始焉. 時丙戌八月 日 泣書’.

7) 丁淳佑, 1995 「解題 : 18세기 固城地域 書齋訓長의 農村生活」 『勝聰明錄』(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 『勝聰明錄』의 序는 著者の 曾孫 具錫儉의 外再從姪인 李庭奎가 1857년(철종 8)에 지은 글이다. 이정규는 『勝聰明錄』이 史家의 遺意를 얻어 스스로 一家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勝聰明錄』 卷5, 序).

9)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저상일월(渚上日月))] 2022.10.15 검색. 박한광(朴漢光)이 시필자이며, 시필 연대는 1834년(순조 34)이다. 그 뒤 박한광의 차남 박득녕(朴得寧, 1808~1886)이 일기를 이어 썼으며, 『나암수록(羅巖隨錄)』의 저자인 아들 박주대(朴周大, 1836~1912)를 거쳐 손자 박면진(朴冕鎭), 증손 박희수(朴熙洙), 그리고 현손 박영래(朴榮來)가 계속 쓰다가 6·25가 발발한 1950년으로 끝나 있다. 이 일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긴 작품이며, 내용 또한 근대 100년 역사를 담고 있어서 주목된다. 조선왕조 23대 순조 말년에서 시작되어 24대 헌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27대 순종을 거쳐 일제 36년, 그리고 광복 후 6·25에 이르는 긴 역사가 실려 있다. 파란만장했던 이 시기의 사회·경제·정치·문화상이 드러나 있는 셈이다. 특히 집필자의 거주지인 경상북도 예천에서 일어난 사

서도 승정원에서 나라일을 적는 것처럼 똑같이 집안일을 적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집안은 물론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그 대략을 알게 되어 반드시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기 작성의 이유를 설명하였다.¹⁰⁾ 또한 그는 1895년(고종 32) 쓴 일기의 서문에는 꼭 기록해야 할 사목(事目) 일곱 가지를 거론하였는데, ① 천기(天氣)의 음청(陰晴), 즉 날씨, ② 세시(歲時)의 풍흉(豐凶), 즉 작황, ③ 자가(自家)의 출입, 즉 손님의 출입, ④ 농사의 경작과 수확, ⑤ 계절의 길흉과 이변, ⑥ 인리(隣里)와 향토의 사건, ⑦ 조정(朝廷)·시중(市中) 및 포구·항구에서 일어난 사건 등이다.¹¹⁾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안목과 관심이 일기 서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일기류 자료의 이상적인 형태로 사서로서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선산김씨 가문일기로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작성된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 연구 결과 자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춘천 선산 김씨 가문의 일기류 자료는 『김낙수일기』를 중심으로 여러 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인의 일상생활을 정리한 생활일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관원으로서 업무와 지식을 요약 정리한 사환일기 또는 관원일기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산 김씨 가문 일기 자료의 역사적 가치는 우선 일기의 작성자, 그리고 그들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의 행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춘천 지역의 사회사, 지역사, 의료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관찬, 사찬 기록의 내용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또한 일기의 작성시기가 조선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있기에 제작연대의 역사성, 원형의 완전성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¹²⁾

본 발표문에서는 퇴암 김낙수가 관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활동했던 여러 모습과 관직 활동과 대비되는 일상적인 생활의 여러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김낙수일기』 11책에 수록되어 있는 1737년부터 1792년 사이의 일기기록, 그리고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에 간간히 보이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김낙수의 관원활동과 일상생활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18세기 중후반 강원도 춘천에 근거지를 두고 한성부에 거처를 마련하였던 관원이자 재지사족이었던 김낙수를 당대의 전형적인 ‘춘천 사대부’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먼저 김낙수가 일기를 기록하여 자신의 관원, 사족으로서의 활동을 미루어 짐작하고 논증할 역사적 사료를 충분히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김낙수가 승정원과 사간원·사헌부 등 언관이라는 중요한 근시(近侍) 기구에서 활

건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일기류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특징이다. 그러나 사건 묘사가 매우 간략해 이 일기만으로는 체계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점, 먼 지역의 소식을 소문으로만 적었기 때문에 날짜에 차이가 있고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한계이다. 이 일기와는 별도로 『저상일용(渚上日用)』이라는 자가경리(自家經理)에 관한 가계일기(家計日記)가 있다. 『저상일월』은 『나암수록』, 『당시고취(唐詩鼓吹)』, 『당조책림(唐朝策林)』, 『만국전도(萬國全圖)』, 『통감(通鑑)』, 『저상일용』 등과 더불어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咸陽朴氏 正郎公派 門中典籍)』으로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9년 8월 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 10) 朴周大는 承政院이나 翰林院에서 안으로 朝廷과 宮中의 일들을 기록하고 밖으로 邊方과 海外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朴成壽 註解, 1993 『渚上日月』 上 14쪽).
- 11) 『저상일월』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 자료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학계에 발표한 연구서가 2001년에 나온 『맛질의 농민들-한국근세촌락생활사』(안병직, 이영훈 편저, 일조각)이다. 맛질은 경상도 예천 대저리의 현지 호칭으로 마(麻)가 많이 생산되는 곡(谷)=실→질로 바뀌었다고 한다.
- 12) 엄정섭, 2024 「춘천 선산김씨 가문 일기의 성격과 문화유산적 가치」 『國學』 창간호,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1-34쪽.

동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그는 당대 조정의 유력한 관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춘천에 경제적인 기반, 문중에 근거한 기반을 갖추고 있던 재지사족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낙수를 춘천을 대표하는 사대부로 파악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아직 충실하게 논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료의 나열이거나, 관련 자료의 소개에 그친 부분이 많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한다. 앞으로 많은 교시와 질정을 받아 18세기 춘천 사대부 김낙수의 생애와 나아가 그의 생각을 보다 근원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를 추후에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2. 김낙수의 관원 활동

퇴암 김낙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유재춘의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¹³⁾ 그에 따르면 김낙수는 1721년(경종 1)에 출생하였으며, 자는 백천(伯天)이고, 호는 퇴암(退庵)이다. 우정(憂亭) 김경직의 5세손이며, 부친은 김석좌(金錫佐)이며, 모친은 증지평(贈持平) 이시원(李蓄遠)의 딸이다. 부인 전의이씨(전의이씨)는 부총관 이징서(李徵瑞)의 딸이다.

김낙수의 관원활동은 1756년(영조 32) 문과(文科) 정시(庭試)에서 병과 1인으로 급제한 이후로 전개되었다. 이후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승정원에서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가주서, 승지 등 시종(侍從)의 직임을 수행할 때 펼쳤던 활동과 사간원과 사헌부의 언관(言官)으로 전개한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직은 이른바 조정의 관직 가운데 청직(淸職)에 비정되는 자리로 학문과 행실이 뚜렷하게 뛰어난 관리들이 맡게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김낙수는 1756년 윤9월 28일 사변가주서에 제수되었다.¹⁴⁾ 바로 직전인 윤9월 26일 『김낙수일기』 기록에 과거 급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상후(上候) 평복(平復, 건강 회복) 경과(慶科) 정시(庭試)에 주상이 춘당대에 친림하고 즉일 방방하면서 8인을 뽑았다. 새벽에 장중(場中)에 들어갔는데, 삼황(三皇) 원회(元會)를 친책(親策)으로 내렸다. 사시(巳時, 9-11시)에 답안지를 냈는데, 초혼(初昏)에 석방(析榜)하였는데, 병과 제4인으로 급제하였다. 어전(御前)으로 불러들어가 임금의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 족성(族姓)을 들고 이어서 군부(君父)를 잘 섬길 것으로 하교하고, 또한 사람됨을 정명(精明)하게 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밤이 되어 선온(宣醞)이 있었고, 방방(放榜)하여 통화문(通化門)¹⁵⁾을 통하여 나왔다.”¹⁶⁾

이후 승정원일기 좌목(座目)에 계속 김낙수가 사변가주서로 근무하였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¹⁷⁾ 이후 김낙수는 승정원 관원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1757년 5월 6일 김낙수는 가주서에 제수되었다.¹⁸⁾ 이 날 『김낙수일기』의 기록에는 “가주서(假注書) 수망(首望)으로 낙점을

13) 유재춘, 「춘천 선산김씨 가문 소장 “퇴암 김낙수 일기” 연구」 『國學』 창간호,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이 글에서 김낙수일기의 주요 내용이 자세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14) 『승정원일기』 1136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윤 9월 28일 계해: ○ 事變〈假〉注書邊得讓改差代, 以金樂洙爲之.

15) 통화문(通化門)은 창경궁의 동쪽 궁장에 있는 문이다.

16) 『김낙수일기』 1756년 윤9월 26일.

17) 『승정원일기』 1136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윤 9월 29일 갑자: 座目 行都承旨 申晦藥院直. 左承旨 鄭玉坐. 右承旨 沈璣坐. 左副承旨 具允明坐直. 右副承旨 韓光肇坐直. 同副承旨 李翼元坐. 注書 李正吾藥院直 一員未差. 假注書 李行源仕直. 事變假注書 金樂洙仕.

받았는데, 윤경조(尹景祖)와 이보온(李普溫)이 말망(末望)과 부망(副望)이었다”¹⁹⁾라고 적혀 있다.

그가 승정원 관원으로 활동한 내용은 18세기 승정원 관원의 업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승정원은 조선왕조에서 왕명(王命) 출납(出納)을 담당하는 관서였다.²⁰⁾ 승정원은 조선 초기 이후 관원 구성이 거의 동일하였는데, 주로 정3품 당상관이 맡았던 승지(承旨) 6명과 정7품의 주서(注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승지들은 왕명 출납만이 아니라 임금과 관료기구를 연결하는 정무적인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임금을 측근에서 모심으로써 임금이 임금으로서 체통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자이기도 하였다. 주서는 승지가 임금의 국정 운영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낙수가 처음 보임된 사변가주서, 그리고 이후 맡게 되는 가주서, 주서는 애초의 역할은 국왕이 친림하는 자리에 입시하여 사관(史官)과 함께 기록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개된 사전적인 주서의 직무는 ‘기록담당관’이었던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김낙수가 실제 수행한 사변가주서, 가주서, 주서의 직무는 승지(承旨)와 마찬가지로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주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김낙수일기』 5월 7일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새벽에 사진하였는데, 입진(入診)이 있어 미시에 입시하였고, 제신(諸臣)이 차례로 진복하였던 직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상이 문기를 “주서(注書)는 누구인가”라고 하니, 도령(都令, 도승지) 이지역(李之億)이 “아무개이다”라고 말하였다. 주상이 이어서 천신(賤臣)에게 3,4차 전령(傳令)할 것을 명한 다음, 주상이 “주서는 누구의 일가(一家)인가”라고 하니, 지신(知申)이 “고(故) 참판 아무개의 지친(至親)이다”라고 하였다. 주상이 “저 주서는 비단 위임됨이 상명(詳明)할 뿐 아니라 수차례 출입하는 데 과연 매우 일하는 것이 정밀하다”라고 하였다. 산릉도감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과연 정밀합니다. 전령(傳令)을 출입하는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²¹⁾

위의 일기 기록에서 김낙수가 당시 가주서로서 하던 직무는 전령(傳令)의 출입, 즉 왕명을 출납하는 일이었다.

계속해서 김낙수의 선조에 대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홍계희가 “김낙수가 선산인이고, 여말 충신 임강기의(臨江寄衣)한 아무개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려말 충신으로 ‘임강기의(臨江寄衣)한 아무개’는 바로 김주(金澗)이다.

김주는 1392년(공양왕 4)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내며 하절사(賀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압록강에 이르러 망국의 소식을 듣고 명나라로 다시 돌아가 명나라 황제에게 조선을 정벌하고 고려를 다시 건국해줄 것을 주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망국의 신하된 도리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 명나라에 있을 것을 청하니 그 충절을 가상히 여겨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여 고려를 사모하며 충절을 지켜 상서록(尙書祿)이 내려졌다고 한다.²²⁾ 김주는 본래 영남의 선산사람이라, 주민들이 상의사(尙

18) 『승정원일기』 1144책 (탈초본 63책) 영조 33년 5월 6일 병신; ○ 李之億達曰, 假注書徐有元, 身病猝重, 勢難察任, 今姑改差, 何如? 令曰, 依. ○ 以金樂洙爲假注書.

19) 『김낙수일기』 1757년 5월 6일.

20) 승정원 관원의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홍순민, 2016 「조선 후기 승정원의 직제와 공간 구조」 『규장각』 4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2쪽.

21) 『김낙수일기』 1757년 5월 7일.

義祠)라는 사우를 세워 치제하고 있었는데, 1798년(정조 22년)에 역명(易名) 즉 시호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조는 흥문관에 시호를 아름답게 정하고 시호를 내리는 날 승지를 보내 치제할 것을 지시하였다.²³⁾

『김낙수일기』 5월 10일 기사를 보면 “새벽에 사진(仕進)하였다가 오시(午時)에 도감(都監) 당상(堂上) 편차인(編次人)이 입시할 때 대신의 헌의(獻議)를 갖고 들어갔다.”를 기록이 있다. 이는 바로 전날인 5월 9일 일기 기록에 “7월에 인산(因山)할 때 대가(大駕) 출궁(出宮)을 동협문으로 마련하도록 전교하였는데, 병판 이후(李후)와 우상(右相)이 계속해서 진달(陳達)하고 있다. 주상이 명하기를 입시한 주서가 시원임(時原任)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한 다음 입시하여 아뢰라는 하교를 내렸다. 이에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퇴출하여 좌상 김상로(金尙魯), 영부사 김재로(金在魯), 판부사 이종성(李宗城), 유척기(俞拓基), 영돈녕 조재호(趙載浩),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의 집으로 가서 수의(收議)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더니 거의 삼경(三更)이었다.”라는 대목이 있다. 즉 5월 9일 왕명을 받아 늦은 오후부터 깊은 밤까지 시원임대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게 모은 의견을 다음날인 5월 10일 주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직무는 본래 정해져 있는 기록담당관으로서의 주서의 그것이 아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의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57년 6월 7일 『승정원일기』 기록 속에서 가주서 김낙수는 매우 분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주상이 예판이 들어왔는지 묻자, 좌승지 구윤명(具允明)이 빈전(殯殿)에 입직 중이라고 하자, 주상이 “주서가 나가서 예판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자, 김낙수가 왕명을 받아 나가서 결국 예조판서 이익정(李益炡)과 더불어 입시하였다. 이러한 관원 입시를 수행한 것 뿐만 아니라 주상이 “<휘령전 주다례(晝茶禮)> 축문(祝文)을 먼저 향실 관원에게 출급하여 속히 써서 들이게 하라.”²⁴⁾ 는 명을 내리자 이 왕명을 받들어 축문을 출급하고 다시 입시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또한 1757년 6월 15일 『승정원일기』 기록에서 가주서 김낙수는 성교(聖敎)를 받들어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 행중추부사 이종성, 행중추부사 유척기, 의정부 영의정 이천보 등에게 문의한 내용을 서계로 보고하고 있다.

가주서로서 활발한 관원 직무 수행에 힘쓰던 김낙수는 1757년 6월 28일 병으로 가주서에서 체직되었다.²⁵⁾ 병으로 여러 차례 체차(遞差)를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김낙수일기』 1757년 6월

22) 김주(金澍),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23) 『승정원일기』 1787책(달초본 94책) 정조 22년 2월 8일 임인; ○ 禮曹慶尙道儒生金陽燮等上言回啓判付內, 圃隱之立節, 治隱之全節, 死固榮矣。坐亦不作, 舉施旌忠節惠之典, 惟金龔巖澍, 臨江寄衣, 遯跡荊楚, 皇朝奇之, 除禮部尙書而不就, 以其祿終身, 至今沅·湘之間, 蓋多其子孫云, 嘗聞公, 素居嶺南善山, 州之人士, 將營俎豆之所, 而難其地, 忽有長虹一道, 起自衣履之藏, 插于洛江之半月巖。咸曰, 公所命也, 就以建祠, 後朝廷聞之, 宣其祠名曰尙義, 遣官致祭, 列朝優異之政, 至矣盡矣。而易名一款, 姑未議到, 何幸嶺儒, 以其未遑之由, 齊籲輦路, 激感予衷, 何可踰日? 卽令弘文館, 議以美諡, 宣諡日, 遣承旨致祭, 祭文當親撰以下, 且聞之, 治隱之祠在隣近, 招問嶺儒, 如果然云, 當以尙義祠進去承旨, 一體致祭, 卿其詳問草記, 年前生六臣中金時習諡狀, 許令清節祠儒, 等狀於文任, 今亦令上來儒生, 依右例爲之, 俾勿愆期事, 分付爲良如教。『승정원일기』 기록에는 김주의 아호를 농암(龔巖)으로 되어 있어 농암(龔巖)과 달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4) 『승정원일기』 1145책 (달초본 63책) 영조 33년 6월 7일 정묘; ○ 丁丑六月初七月辰時, 上御徽寧殿齋室。承旨入侍時, 左承旨具允明, 假注書金樂洙, 記事官趙有臣, 記注官金尙麟, 以次進伏階上。上曰, 下番, 誰也? 允明曰, 戶曹正郎金尙麟矣。上曰, 禮判入來耶? 允明曰, 入直殯殿矣。上曰, 注書出去, 禮判使之入侍。賤臣樂洙, 承命趨出, 偕禮曹判書李益炡入侍。上曰, 今日魂殿修理權安後, 有還安祭乎? 益炡曰, 事畢後有之矣。上因命書徽寧殿晝茶禮祝文。上曰, 承旨, 誰爲謝恩也? 允明曰, 臣未見牌去來而入來。益炡曰, 具允明獨爲謝恩也。上曰, 趙明鼎·具允明爲交代也。上曰, 此祝文, 注書先爲出給於香室官員, 斯速書入。賤臣樂洙, 承命出給後, 還入侍

28일 기사에서도 보인다.

그런데 김낙수는 1758년 2월 9일 가주서에 낙점되었지만 외방에 있다고 현탈(懸頓)하고 들어가지 않았다.²⁶⁾ 이러한 사정은 『김낙수일기』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²⁷⁾ 동일한 일이 1759년 1월에도 벌어지는데 11일 다시 가주서에 임명되었지만,²⁸⁾ 외방에 있다고 칭탈(稱頓)하고 들어가지 않았다.²⁹⁾ 그런데 당시 김낙수의 행적을 보면 이현(梨峴), 청파(靑坡)를 왕래하거나 고관을 방문하는 등 분명히 한성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성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방에 있다고 칭탈(稱頓)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인지, 아니면 김낙수의 일탈 행위인지 아직 분명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김낙수가 가주서, 주서의 직무를 멀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낙수는 관료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관청 관련, 국왕 동정, 정책 논의 등과 관련된 활동을 견문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김낙수일기』 1744년 4월 8일 기사에 “육상묘(毓祥廟)에 거동(舉動)하였다”는 짝막한 기록과 더불어 “사묘(私廟)를 고쳐 육상으로 하였다”는 기재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영조실록』을 살펴보면 1744년 4월 8일 기사에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한 다음 육상궁(毓祥宮)에 거동하였다가 저녁에 환궁하였다.”³⁰⁾는 내용이 보인다. 김낙수일기의 내용과 『영조실록』의 기사가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묘호를 육상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영조실록』 영조 21년(1744년) 4월 8일 기사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조 1년(1725년) 12월 23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요긴하게 참고할 수 있다.

숙빈(淑嬪)의 사당(祠堂)이 이루어졌다. 숙빈은 곧 임금의 사친(私親)이다. 즉위(即位)하던 처음에 땅을 골라 사당을 세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사당이 이루어졌으니, 경복궁(景福宮)의 북쪽에 있다. 20년 후에 묘호(廟號)를 고쳐 정하여 ‘육상궁(毓祥宮)’이라고 하였다.³¹⁾

영조의 생모 숙빈(淑嬪) 최씨(崔氏, 1670-1718)를 모신 사당의 명칭을 영조가 1744년에 고쳤는데, 『영조실록』에는 명칭을 고친 연도에 이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숙빈의 사당을 처음 만들었던 사실을 기록하면서 더불어 육상궁 묘호로 개칭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1744년 『영조실록』 기사에 ‘육상궁’으로 나오는데, 김낙수일기에는 ‘육상묘’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숙빈 최씨는 1693년(숙종 19) 4월에 숙원(淑媛)으로 봉해졌고,³²⁾ 다음해에 숙의(淑儀)가 되었다.³³⁾ 숙의가

25) 『승정원일기』 1145책 (탈초본 63책) 영조 33년 6월 28일 무자: ○ 趙載洪達曰, 假注書金樂洙, 身病猝重, 勢難察任, 今姑改差, 何如? 令曰, 依.

26) 『승정원일기』 115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2월 9일 을축: ○ 注書李迪輔病代, 以金樂洙爲假注書. 『승정원일기』 115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2월 10일 병인: ○ 假注書金樂洙在外, 代張達星爲假注書.

27) 『김낙수일기』 1758년 2월 9일.

28) 『승정원일기』 1164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월 11일 계사: ○ 以金樂洙爲假注書. 『승정원일기』 1164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월 12일 갑오: ○ 假注書金樂洙在外代, 以金魯鎮爲之.

29) 『김낙수일기』 1759년 1월 11일.

30) 『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 4월 8일 을묘 (영인본 43책 133면): ○ 乙卯/上具冕服, 行宗廟夏享大祭, 歷幸毓祥宮, 夕還宮.

31) 『영조실록』 8권, 영조 1년 12월 23일 병술 (41책 570면): ○ 淑嬪廟成. 淑嬪, 卽上之私親也. 卽阡之初, 命擇地建廟, 至是成廟, 在景福宮之北. 後二十年, 改定廟號曰: "毓祥宮."

된 이후 그해 9월에 영조를 낳았다.³⁴⁾ 다음해인 1695년 숙종 21년에 귀인(貴人)이 되었고,³⁵⁾ 4년 뒤 25년(1699)에 숙빈이 되었다.³⁶⁾ 1725년(영조 1)에 묘우를 세우고 신위를 봉안하였고, 1744년(영조 20)에 묘호를 ‘육상(毓祥)’으로 정해 올렸다. 1753년(영조 29)에 ‘묘(廟)’를 승격하여 ‘궁(宮)’으로 삼았다.³⁷⁾ 육상묘가 육상궁이 된 것은 1744년의 일이 아니라 1753년의 일이었지만, 1725년 『영조실록』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조실록』 기록의 오류를 김낙수일기의 기록을 단서로 찾아볼 수 있다. 1744년 4월 당시 김낙수의 행적을 좀더 찾아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낙수일기’를 살펴보면 특히 왕의 행차, 왕의 명령 등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인다. 1764년(갑신, 영조 40년) 2월 20일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상(上)이 창덕궁(昌德宮)에 행행(幸行)하여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하고 고유(告由)할 때 동궁(東宮)을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사(嗣)〈사자(嗣子)〉로 삼도록 명하고 이어서 제복(除服)하게 하였다.³⁸⁾

위의 ‘김낙수일기’ 기록은 『영조실록』을 통해 사실로서 확인된다. 『영조실록』에서 1764년 2월 20일 영조는 육상궁(毓祥宮)에 배알하고 창의궁(彰義宮)에 들렀는데, 왕세손이 수행하여 행례하였다. 보첩(譜牒)에 ‘모년 모월 일(某年某月日)에 특명으로 왕세손으로서 효장 세자(孝章世子)를 잇게 하였다.’³⁹⁾라고 쓰기를 명하여 종부시에 써서 내려 이로써 보첩에 수록하게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일은 동궁(왕세손)의 계보를 사도세자에서 효장세자로 옮기는 조치를 가리키는데, 『영조실록』에는 자세한 전후 사정도 포함된 기사들이 보이지만 ‘김낙수일기’에는 결과적인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⁴⁰⁾ 1764년 1월에 김낙수가 부사과(副司果)에 제시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보이는데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기에 아주 소략하게 기록한 것은 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1759년 5월 28일 김낙수는 경상도 김천찰방에 임명되었다.⁴¹⁾ 같은 내용이 『김낙수일기』에도 보인다. 이후 윤6월 3일 남문을 나서면서 임지로 출발한다.⁴²⁾ 같은 달 17일 성주(星州)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김천역에 도착하였다. 김천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旅程)이나 찰방 직무를 수행할 때 벌어졌던 사건 등을 『김낙수일기』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설사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여러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 개령현 김상삼(金象

32)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4月 己亥(26).

33) 『肅宗實錄』 卷27, 肅宗 20年 6月 戊戌(2).

34) 『肅宗實錄』 卷27, 肅宗 20年 9月 乙酉(20).

35) 『肅宗實錄』 卷28, 肅宗 21年 6月 戊戌(8).

36) 『肅宗實錄』 卷33, 肅宗 25年 10月 丁亥(23).

37) 육상궁이 설립되는 경위를 설명한 이상의 내용은 『英祖實錄』 卷8, 英祖 1年 12月 丙戌(23) ; 『英祖實錄』 卷59, 英祖 20年 3月 乙酉(7) ; 『增補文獻備考』 卷61, 禮考8 宮廟 「毓祥宮」 참조.

38) 김낙수일기 1764년(갑신, 영조 40년) 2월 20일 (006-0005).

39)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21일 계묘 (44책 159면): ○癸卯/上親傳香于仁政殿 月臺。 仍拜毓祥宮, 過彰義宮, 王世孫隨而行禮。 命書譜牒曰, ‘某年某月日, 以王世孫, 特命嗣孝章世子’, 書下宗簿寺, 以此修錄于譜牒。 夕還宮。

40) 3월 2일 일기에는 “동궁을 세자로 개칭(改稱)하게 하라고 명하였다”는 간략한 기사가 보인다.(김낙수일기 1764년(갑신, 영조 40년) 3월 2일 006-0006)

41) 『승정원일기』 1168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5월 28일 정미; 金樂洙爲金泉察訪.

42) 『김낙수일기』 1759년 윤6월 3일.

三)이라는 자의 살옥(殺獄) 추관으로 정해졌다는 관문의 도착(윤6월 25일), 각역의 대중마를 점고한 일(윤6월 30일) 등을 수행하였다. 『김낙수일기』는 자세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지만, 찰방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기 내용을 소개하면 10월 2일 『김낙수일기』 기사를 보면, “합천 사찰의 승려 옥현(玉玄)이 제명(題名)인본(印本) 및 우암이 쓴 고운시(孤雲詩) 인본(印本) 각 2건을 와서 넣었다. 앞서 해인사의 승통(僧統) 및 각수(刻手) 품관(品寬)에게 명하기를 강류동(江流洞) 암벽(岩壁) 사이의 새길만한 곳에 이름을 새길 것을 명하면서 성명을 써서 주고, 또한 고운시를 인출(印出)하여 가져오라고 부탁하였다. 미(米) 3두(斗)를 주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인사의 승려에게 고운시의 인출을 부탁하면서 이와 더불어 성명을 암벽에 각자(刻字)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 쌀 3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성명 새기는 일도 완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낙수는 1762년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 자리에 임명되는데,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8월 10일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이 때 제부(弟婦) 장례, 부모 천장(遷葬) 등으로 인해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김낙수가 11월 2일 올린 사간원 정언(正言) 사직소를 보면 부모 천장(遷葬)을 수행하는데 사간원 관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 위로는 궐실(闕失)을 널리 구하고, 아래로는 관료들의 잘못을 규핵(糾劾)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성자(聖慈)를 베풀어 삭직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⁴³⁾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목하의 급무를 성궁(聖躬)을 보색(保齋)하고, 동궁(東宮, 세손(世孫)을 보양(輔養)하는 일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정성(情性)을 휴양하는 도리에 유심하여 오래도록 이러지는 방도를 널리 펼쳐서 신민(臣民)의 바람에 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뒷 부분의 주장은 동궁에서 훈도(薰陶)와 교양(教養)을 맡을 관료를 엄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1762년 당시 윤5월 사도세자가 비명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세자의 시호를 내려주는 것에 곧이어 세손을 동궁으로 정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김낙수는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목하의 급무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었다.

김낙수의 언관(言官) 활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76년 사헌부 집의로 재직하던 당시의 발언과 상소 내용이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하고, 며칠 뒤인 10일 정조가 즉위하게 된다. 이미 1775년 봄부터 영조의 노환으로 동궁이었던 정조가 대리청정하고 있었다. 정조가 동궁에서 주상으로 순조롭게 즉위할 수 있는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당시인 1776년 2월 김낙수는 존현각에서 왕세손을 대신, 비국 당상 등과 더불어 인접(引接) 입대(入對)할 때 의미있는 발언을 하였다. 김낙수는 지금 세도(世道)가 무너지고 분열되었으며, 인심(人心)이 함몰하여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는 3가지 폐단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부효(浮囂), 조경(躁競), 탐묵(貪墨)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세상에 도도하여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군상(君上)이 한번 이전하는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간정(簡靜)을 숭장(崇獎)하면 부효하는 자들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괄아(恬

43) 『승정원일기』 1212책 (탈초본 68책) 영조 38년 11월 2일 경신: ○ 正言金樂洙疏曰, 伏以, 臣月前爲營父母遷窆, 往在先壟, 柏府除命, 適降此際, 繼有駟召之命, 揆以分義, 宜即謁蹶趨承, 而積月奔走之餘, 勞瘁成疾, 未及登道, 旋因臺臣請罪在外者, 遂蒙譴罷之命, 臣且惶且悚, 扶病還次, 杜門訟愆, 不自意恩絀過降, 除旨又下, 臣聞命愴怳, 莫省攸措. 噫, 臺省之職, 豈徒然哉? 上以匡救闕失, 下以糾劾官邪, 必須端方正直之士, 可以膺是職, 而效其責. 況今聖化日新, 晚政益勵, 在廷群僚, 皆思對揚, 則尤宜極擇是任, 以責繩糾, 而乃以如臣巽軟者, 苟然爲副急之資, 豈不有乖於清朝難慎之道哉? 抑臣曾在參下, 猥忝注薦, 尙被不悅者之疵毀, 況此所叨之任, 視堂后不超較重, 則何敢揚揚冒進, 自取他人之嗤點, 而不思所以自靖之義哉? 召牌之下, 承膺無路, 祇詣禁扃之外, 略控肝膈之懇, 伏乞聖慈, 察臣才器之不稱, 諒臣情勢之難強, 亟命鐫削臣職名, 使公器無玷, 私分粗安, 不勝幸甚.

雅)한 사람을 등용하면 조경(躁競)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염신(廉愼)한 사람을 간발(簡拔)하면 탐복하는 자들이 경계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왕세손은 아뢴 바가 옳으니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대답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김낙수는 왕세손이 즉위하기 직전에 세도와 인심의 만회를 주장하는 발언을 내놓아 정조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언관으로서의 책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낙수가 1776년 9월에 올린 상소는 혼란스러운 정조 즉위 초반의 정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군심(君心)은 만화(萬化)의 근원이다. 한 생각이 올바르면 경성(景星)과 경운(慶雲)이 생기고, 한 생각이 어긋나면 질풍(疾風)과 뇌우(雷雨)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수장(收藏)의 시절에 굉뢰(轟雷)가 생긴 것은 하늘이 경계하는 것이므로 응천(應天)하는 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선(減膳), 책궁(責躬) 등도 구조의 의미가 있지만 목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난역(亂逆)을 꾀한 무리를 징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당시 굉뢰(轟雷) 즉 천둥 우뢰의 천변(天變)이 발생하였는데,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사간(司諫) 김낙수는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정처(鄭妻) 즉 정치달(鄭致達)의 처 화완옹주(和緩翁主)⁴⁵⁾, 그리고 김구주(金龜柱)⁴⁶⁾야말로 궁천(窮天, 하늘을 다하다) 극지(極地, 땅을 지극히 하다)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가득찬 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지목하였다. 또한 홍국영이 벌인 천가지 요사스러움과 만가지 악행이 바로 기천(欺天) 부국(負國)한 죄라고 강조하였다. 삼사(三司) 제신(諸臣)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후의 난역(亂逆)의 죄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3. 김낙수의 일상생활

44) 『승정원일기』 1375책 (탈초본 77책) 영조 52년 2월 11일 계축: 樂洙曰, 臣有區區所懷, 敢此仰達矣. 目今世道之乖裂, 人心之陷溺, 專由於三者之弊, 浮囂也, 躁競也, 貪墨也. 舉世滔滔, 莫可奈何, 而其實不過君上一轉移之間, 崇獎簡靜, 則浮囂者自可戢矣, 登進恬雅, 則躁競者莫可售矣, 簡拔廉愼, 則貪墨者知所戒矣. 此乃對症之藥, 而救時之務也. 誠如是則不動聲色, 而世道人心, 自可挽回, 伏願深留睿念焉. 令曰, 所達是矣. 當留念. 樂洙曰, 秋曹捉囚罪人厚男, 國中之巨盜也. 砲保價布, 卽兩端踏印者, 而任自幻弄, 記簿錢, 卽營庫藏置者, 而擅自偷出, 以致營儲空虛, 國言狼藉. 日前臺達, 實出公憤, 此非尋常穿窬之比, 若不嚴繩, 無以懲後. 臣謂李章吾奴子厚男, 移送捕廳, 治以賊律, 另加究覈, 宜矣. 令曰, 依達. 樂洙曰, 日前捧上言時, 聞有江界人上言外, 貼連濫雜之說, 極其驚駭云. 遐陬愚蠢之人, 雖與內地之民有異, 其在杜後弊之道, 不可尋常處之. 臣謂令該曹嚴刑定配, 宜矣. 令曰, 此不過遐陬邊氓, 未諳體例, 不從. 樂洙曰, 臣才識淺短, 言議拙訥, 清朝耳目, 自知不稱, 今於論達江界人以上言猥濫之事矣. 以此不過遐陬邊氓, 未諳體例爲批, 臣何敢晏然於臺次乎? 請令遞斥臣職. 令曰, 勿辭, 亦勿退待. 令書令旨曰, 方有時囚, 金吾之長, 不可不備, 判義禁具允明, 勢難強察, 許遞, 今日政差出. 令曰, 前參判具庠遠竄. 出下令 令書令旨曰, 右相家遣御醫, 持藥物看病. 令曰, 明日製述處所, 以頃日殿講處所爲之. 出下令 令退, 諸臣以次退出.

45) 화완옹주는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자 정조의 고모이다. 정후겸은 그의 양자이다. 화순옹주, 화평옹주와 더불어 영조가 대단히 총애했었다. 정조의 정적으로, 정조의 세손 시절 대리정정을 막고 모해한 죄로 정조 즉위 후에 옹주의 작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이후 '정치달의 처(妻)'라는 뜻의 정처(鄭妻)로 불렸다.

46) 김구주는 경주 김씨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 오빠이다. 1772년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청의(淸議)와 명절(名節)을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 모임인 청명류(淸名流)가 발각되어 영조의 당쟁책에 대한 배신으로 지목, 유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김구주는 이를 당시 홍봉한(洪鳳漢) 외척 정치의 탓으로 돌려, 사촌 동생 김관주(金觀柱)와 함께 홍봉한을 제거하는 것이 의리라는 소를 올렸다. 당시 홍봉한은 왕세손이던 정조의 외가였으므로, 이 상소는 왕세손의 위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정조 즉위년에 역적으로 지목되었다. 또,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인 정후겸(鄭厚謙) 및 홍인한(洪麟漢)·정이환(鄭履煥)들과 결탁해 정조를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1784년에 왕세자 책봉으로 감등되어 나주에 이배되었다가 다음해 죽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세기 춘천인 김낙수가 남긴 ‘김낙수일기’는 모두 11책이 전해지고 있다. 17세인 1737년부터 72세인 1792년까지 쓴 일기인데, 세상을 떠나기 보름전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56년 동안의 일기 기록으로 김낙수 자신과 주변 인물의 일상생활의 다채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⁴⁷⁾ 『김낙수일기』가 11책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일기 기록을 역사적으로 전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남김 없이 검토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아래에서 『김낙수일기』를 중심으로 18세기 중후반 김낙수가 견문한 일상생활의 여러 모습을 살펴본다. 결국 김낙수가 견문(見聞)한 내용 가운데 일기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낙수가 17세이던 1737년(영조 13년) 정월 3일의 기록을 보면 “관동(館洞)으로 돌아왔다. 부주(父主)가 지난달 28일 춘천(春川)으로 하가(下駕)하였다가 금일 환가(還駕)하였다”라는 기사가 들어 있다. 이때 김낙수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 관동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관동(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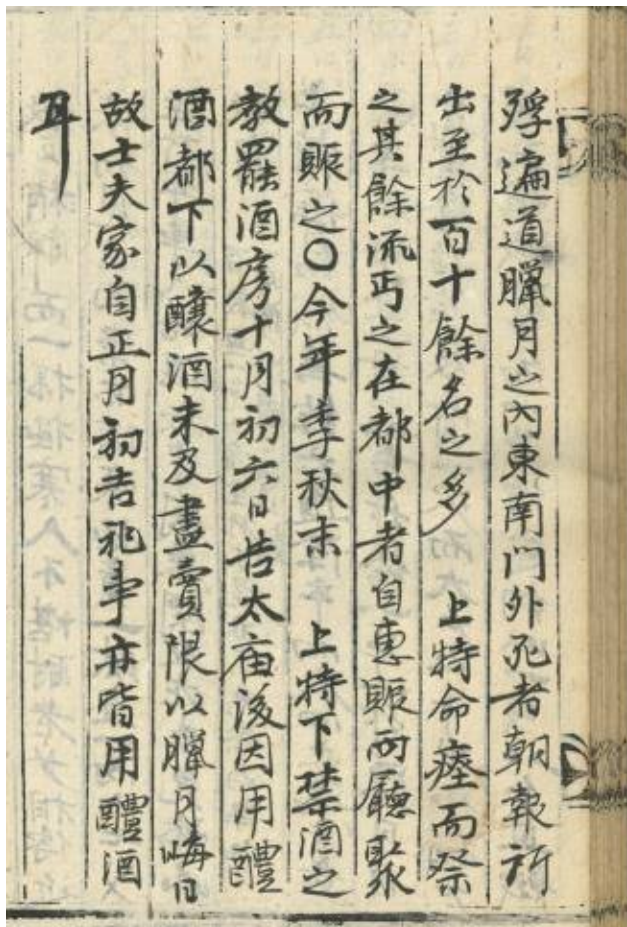
洞)은 반촌(泮村) 즉 한성부 동부에 위치한 성균관 인근 지역이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김낙수 가문의 본거지가 춘천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1737년 정월 한성부 관동으로 돌아온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흔적이 일기 기록에 실려 있다.

『김낙수일기』에서 그가 한성부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다채로운 여러 가지 사정을 또렷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영조대 조정에서 각고의 주의를 기울여 실시한 것이 바로 금주(禁酒) 시책이다. 『김낙수일기』에서 금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1755년(영조 31년) 1년의 일기 기록 맨 뒷장에 한해 동안 특기할 만한 사건이나 현상을 적어놓았는데, 여기에 혹한(酷寒), 그리고 시치(市直, 물가), 금주(禁酒) 등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중하(仲夏)부터 처서(處暑)까지 계속 음냉(陰冷)하여 증열(蒸熱)한 시일이 없었고, 겨울에 들어선 이후 한위(寒威)가 엄혹(嚴

酷)하여 10월말부터 납월말까지 가끔 약간 풀린 날이 있을 뿐이나 일양(一樣)으로 극한(極寒)하여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고, 노소(老少)들이 서로서로 근래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하였다

<그림 5> 1755년 12월 끝 기록 ‘금주(禁酒)’



47) 『김낙수일기』 총11책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한 각주 표시는 일기의 연월일로 표기하였다.

고 기록한다. 이 때문에 땔나무가 지극히 귀해져서 1태(駄)의 가격이 1냥 6.7전이었다고 한다. 또한 연사(年事, 곡물 작황)가 팔도 모두 흉년인데 관동과 관북은 더욱 참혹한 흉년을 모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극한 흉년을 맞이하여 1755년 계추말에 영조는 금주(禁酒) 하교(下敎)를 내려 주방(酒房)을 혁파하고 10월 초6일 태묘에 고한 뒤에 예주(醴酒)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하(都下)의 양주(釀酒)를 아직 모조리 팔지 못한 것을 납일 회일(晦日)까지 시한을 정하였다. 이 때문에 사부(士夫) 집에서는 정월초의 고사(告祀)하는 일부터 모두 예주(醴酒)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당대의 사정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김낙수일기』의 기록은 1755년 9월 8일 『영조실록』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⁴⁸⁾

『영조실록』 1755년 9월 8일 기사는 영조의 하교인데, 그 주요한 내용이 위의 『김낙수일기』 수록 기사와 거의 동일하다.

갑자기 좋은 계책이 생각났으니 바로 예주(醴酒)가 그것인데, 아! 예주가 어찌 현주보다 낫지 않겠는가? 먼저 이런 뜻을 태묘(太廟)에 고하고, 세초(歲初)부터는 위에서는 왕공(王公)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연례(宴禮)에는 예주만 쓰고 홍로(紅露)·백로(白露)와 기타 술이라 이름한 것도 모두 엄히 금하고 범한 자는 중히 다스리겠다. 내주방(內酒房)과 내자시(內資寺)·종묘(宗廟)에 봉진(封進)하는 것은 예주로 진헌하고, 대전(大殿) 이하는 날짜나 명일(名日)을 물론하고 고묘(告廟)한 후부터는 일체 아울러서 봉진하지 말라. 호군(槁軍)과 농민(農民)은 다름이 있어 공자(孔子)가 향인(鄉人)의 사제(蜡祭)³⁰⁶에 대해 <<예기(禮記)>>에서 말하기를, '한 번 당기고 한 번 늦추는 것이 문무의 도이다. [一張一弛 文武之道]'라고 하였다. 군문(軍門)의 호궤(饋饋)에는 단지 탁주(濁酒)만을 쓰고, 농민들의 맥주(麥酒, 보리술)와 탁주(濁酒) 역시 금하지 말아야 한다. 이 윤음(綸音)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라."⁴⁹⁾

영조가 1755년 9월에 내린 윤음은 명주(名酒) 등을 모두 금하고 예주(醴酒) 즉 단술을 쓰게 한 것이었다. 다만 농민들의 맥주(麥酒, 보리술)와 탁주(濁酒)를 금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금주 명령이 내린 뒤에 사족들이 대처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김낙수일기』에 “도하(都下)의 양주(釀酒)를 아직 모조리 팔지 못한 것을 납일 회일(晦日)까지 시한을 정하였다. 이 때문에 사부(士夫) 집에서는 정월초의 고사(告祀)하는 일부터 모두 예주(醴酒)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당대의 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

48) 『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9월 8일 己卯 (43책 593면); ○命自明年正月, 禁京外釀酒。 教曰: "昔夏禹雖疏儀狄, 不去其酒, 故雖有甘酒嗜飲之戒, 夏末有桀。 噫! 伐性之斧, 戕身之物, 非但前轍昭昭, 京外耗穀, 鬪鬪殺人, 皆由於此。 前後禁酒之請, 每謂迂闊而不聽。 何則凡事有本有末, 用於國而禁於民, 豈先本後末之意乎? 春夏不令, 而秋冬之令忽行, 則小民懼法, 甕酒壘醜, 必將灌於川渠。 酒雖無狀, 此非天物乎, 其非我元元粒粒辛苦之穀乎? 非徒此也。 有勢者倖免, 無勢者被執, 豈予意哉? 雖然酒弊知之熟矣, 豈不欲禁也, 而太常用玄酒之前, 誠難禁也。 故紋緞雖禁, 酒則勿問, 及今不禁, 更待何時? 試看內酒房瓦子, 色若漆黑, 烏鵲亦不坐。 噫! 土瓦猶然, 況軟膚軟腸乎? 忽得良策, 乃醴酒也。 吁嗟! 醴酒豈不勝於玄酒乎? 先將此意告于太廟, 其自歲初, 上自王公, 下至匹庶, 祭祀宴禮只用醴酒, 紅露、白露、其他以酒爲名者竝嚴禁, 犯者重繩。 內酒房、內資寺、宗廟所封者, 以醴進獻, 大殿以下, 勿論日次名日, 自告廟後, 一竝勿封。 槁軍、農民有異焉, 孔子謂鄉人蜡曰, '一弛一張, 文武之道。' 軍門犒饋, 則只用濁酒, 農人麥酒、濁酒亦勿禁。 以此綸音, 頒布中外。" 又教曰: "命用醴酒, 重其祭奠, 取其味淡, 而後不無流於辛烈之弊, 若此豈禁酒之意哉? 一體嚴飭。" 時刑曹判書李, 以歲荒, 奏東宮禁外方釀酒, 上聞之曰: "國之政令, 京外何異?" 遂有是教。

49) 『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9월 8일 己卯 (43책 593면).

『김낙수일기』에 주금(酒禁), 즉 금주(禁酒)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은 연대기 자료에 보이는 기사를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영조대는 금주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는데, 1758년에 재차 금주 명령을 내렸다. 1758년(영조 34) 큰 흉작이 들자, 영조는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범하고 술을 팔거나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나라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하였다. 나라의 흥망이 오로지 금주가 행하여지고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니 백성들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였다.⁵⁰⁾ 조선 후기 대표적인 탕평군주인 영조는 백성들의 금주를 법적 강제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금주령을 내리고 윤음을 반포한 것이었다. 1764년(갑신, 영조 40년) 5월 8일 『김낙수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주금(酒禁)을 위해 작통(作統)한 후에 선전관 및 총부랑(摠府郎)의 적간(摘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화의 선상(船商)이 양주에서 범음(犯飲, 주금(酒禁)을 범함)하였기 때문에 강화유수를 파직하고 양주 수령을 도배(徒配)하였으며, 경기감사를 귀양보냈다. 국자(麴子, 누룩)을 선중(船中)에서 압수하며 그 소득(所得)해 온 곳을 물으니 선인(船人)이 말하기를, “영광(靈光)에서 매득(買得)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영광 수령을 도배하고 고양 수령 역시 도배하였다. 선상(船商)을 강상(江上)에서 결곤(決棍)하는 것을 회시(回示, 죄인을 끌고 다니며 못사람에게 보이던 일)하였는데, 혹은 50대 혹은 30대로 한 다음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하였다.⁵¹⁾

이 기사는 『영조실록』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조실록』 1764년(영조 40년) 5월 3일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에 금양(禁釀)은 날로 엄하였으나 범하는 자는 그래도 그치지 않았다. 과천(果川)에 술이 있다 하여 그 지방관과 도신(道臣)을 정배하였고, 또 심부(沁府, 강화도)의 선상(船商) 중에 범한 자가 있으므로 강화 유수(江華留守) 정실(鄭實)을 파직하였으며, 지방관인 양천현감(陽川縣監) 박명양(朴鳴陽)을 귀양보내고, 수납(搜納)한 선전관 이보한(李普漢)에게 한 자급을 더하여 오위장(五衛將)을 삼았다가 다시 양천현감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또 영광(靈光)의 뱃사람이 경강(京江)에서 술을 마셨다 하여 영광 군수 윤면동(尹冕東)을 남쪽 연변(沿邊)에 귀양보냈다.⁵²⁾

‘김낙수일기’ 기사와 『영조실록』 기사의 차이점은 바로 바로 밀줄친 선상(船商)에 대한 처벌 내용이 ‘김낙수일기’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영조실록』 기사는 유배 당한 관료의 성명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영조가 추진한 금주정책의 실질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역이 ‘김낙수일기’에 실려 있다는 점은 앞으로 선산 김씨 가문일기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궁무진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생각된다.

선산김씨 가문일기에 보이는 천문(天文) 관련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관찬

50) 『英祖實錄』 92권, 영조 34년 9월 기해(16일)

51) ‘김낙수일기’ 1764년(갑신, 영조 40년) 5월 4일 기묘(己卯) (006-0014)

52)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5월 3일 갑인 (44책 166면); ○時禁釀日嚴, 而犯者猶不止。以果川有酒, 配其地方官及道臣, 又以沁府船商有犯, 罷江華留守鄭實, 竄地方官陽川縣監朴鳴陽, 以搜納宣傳官李普漢加一資, 爲五衛將, 而復特授陽川, 又以靈光船人, 犯飲於京江, 竄其郡守尹冕東于南沿。

기록, 사찬 기록의 내용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사례를 찾아보면 ‘김준종일기’ 1881년(고종 18년) 6월 초3일 기사에 “일전(日前)에 북방(北方)에 혜성이 나타났다.”⁵³⁾ 혜성 출현 기록은 『고종실록』에 이틀 빠른 6월 1일 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⁵⁴⁾ 그리고 7월 24일에 이르러 관상감에서 “혜성이 소멸하였으니 측후(測候)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는 건의가 올라와 이를 윤허하였다. 반면 ‘김준종일기’에서는 첫 혜성 출현 기사가 나온 이후 이틀 간격으로 계속 “혜성이 사라지지 않는다(彗星不消)”이라는 기재 내용이 계속 보이다가 7월에 들어서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김준종일기’와 『고종실록』의 기사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김낙수일기에서 『승정원일기』의 천문 기록을 보완할 만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1759년 3월 5일 『승정원일기』 기사의 유성(流星)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 ○ 밤 1경(更)에 달이 필성(畢星)을 범하였고, 2경(更)에 유성(流星)이 익성(翼星) 아래에서 나왔다가 서방의 하늘 경계로 들어갔다. 모양이 주먹같았고, 꼬리 길이는 3,4척 정도였으며, 색은 붉고, 빛이 났고, 땅에서 소리가 있었다. 5경 파루(罷漏) 후에 어떤 성(星)이 동방 위숙(危宿)의 범위 내에 나타났는데 <유성의> 꼬리 꺾적이 있는 것같았다.⁵⁵⁾

<김낙수일기> ○ 밤 1경(更)에 달이 필성(畢星)을 범하였고, 5경(更)에 유성(流星)이 익성(翼星) 아래에서 나왔다가 서방의 하늘 경계로 들어갔다. 모양이 주먹같았고, 꼬리 길이는 3,4척 정도였으며, 색은 붉고, 빛이 났고, 땅에서 소리가 있었다. 5경에 어떤 성(星)이 동방 위숙(危宿)의 범위 내에 나타났는데 <유성의> 꼬리 꺾적이 있지 않았다.⁵⁶⁾

『승정원일기』와 『김낙수일기』의 유성을 묘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의 한문 문장이 빈틈 없이 일치하고 있다. 문장 표현이 동일한 사정을 김낙수가 승정원 직함을 오랜 기간 동안 역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불충분할 해석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간에 몇 군데 숫자와 구절이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김낙수가 『승정원일기』의 토대가 되는 관상감의 기록을 보았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납득할 만한 추정은 조정에서 내려보낸 조보(朝報)를 참조하여 일기 기록을 정돈하였을 가능성이다.

조선의 조보(朝報)가 현재 거의 현존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김낙수일기』는 분량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조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보탬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1741년(영조 17년) 5월 28일 이후 『김낙수일기』는 평안도, 충청도 등 지역에서 염병(染病)이 크게 번져서 많은 병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의 출처는 ‘조보(朝報)’로 되어 있다. 5월 28일 일기에 “정주(定州) 등 읍(邑)에서 염병(染病)이 크게 번져 지금 아픈 사람이 3,313명이고, 사망자가 707명이다. 조보에 나왔다.⁵⁷⁾”라고 기록하였고, 6월 10일 일기에는 “충청도 경내에 염병이 크게 번져, 지금 아픈 사람이 794명이고, 사망자는 154명이다. 조보에 나왔다.”로 되어 있고, 6월 11일 일기에는 “장단(長湍) 등 읍(邑)에서 염병이 크게 번져

53) 『김준종일기』 1881년 6월 초3일.

54)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6월 1일 신묘 (2책 11면); 初一日, 辛卯。 彗星見于西北方。

55) 『승정원일기』 1166책 영조 35년 3월 5일 을유; ○ 夜一更, 月犯畢星, 二更流星, 出翼星下, 入西方天際,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赤, 光照地有聲。 五更罷漏後, 有星見於東方危宿度內, 似有尾跡。

56) 『김낙수일기』 1759년 3월 5일; 夜一更, 月犯畢星, 二更流星, 出翼星下, 入西方天際,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赤, 光照地有聲。 五更, 有星見於東方危宿度內, 非有尾路。

57) 『김낙수일기』 1741년 5월 28일.

지금 아픈 사람이 350명, 사망자가 77명이다. 조보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6월 16일 일기에는 선천(宣川) 등지의 여역 피해가 병자 2,906명, 사망자 62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영조실록』에는 5월 30일 기사에 “관서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죽은 자가 1천 명이나 된다고 도신이 아뢰다.⁵⁸⁾”라는 내용만 당시의 염병의 피해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에는 현재까지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료적 상황이라면 『김낙수일기』에 실려 있는 평안도, 충청도, 경기 지역의 염병 피해 상황에 대한 조보 기록을 옮겨놓은 것이 당시의 염병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인 1741년 6월 27일 『김낙수일기』에는 강원도 지역 장마, 폭우 피해가 조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강원도 경내에 3삭(朔) 동안 장림(長霖, 오래 계속되는 장마)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없어, 조곡(早穀, 올 곡물)은 다시 <농사를> 말할만한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정도이다. 이번 달 15, 16일에 큰 비가 또한 내려서 주야(晝夜)로 폭주(暴注)하였는데, 형세가 마치 강을 뒤집는 것<경하(傾河)>같았다. 악수(惡水)아 창일(漲溢)하고 산천(山川)이 변환(變換)하여 각종의 곡물이 손상을 받지 않은 것이 없어 들판에는 푸른 색이 없어졌다. 마을의 집 가운데 표몰(漂沒)된 것이 106호이고, 사람 가운데 엄사(揜死)하거나 압사(壓死)한 사람이 19명이며, 총구(塚樞, 무덤과 관)을 표실(漂失)된 것이 8곳이다. 조보에 나왔다.⁵⁹⁾

조선시대의 조보는 승정원(承政院)에서 국가통치상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취사선택하여 그 자료들을 산하기관인 조보소에 내려보내면 조보소에서 이들을 모아 조보를 제작하였다. 각 관청이나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서리(奇別書吏)들이 조보소에 와서 조보를 서사(書寫)하여 각자의 기관으로 발송하였다.⁶⁰⁾

조보의 내용은 대체로, ① 국왕의 모든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傳敎), ② 당면정책 및 중요 문제들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疏狀), ③ 이에 대한 국왕의 비답(批答 : 상소 등에 대한 임금의 하답), ④ 국왕이 관민들에게 보내는 회유문인 윤음(綸音), ⑤ 조정에 의한 관리의 인사(人事), ⑥ 자연계 및 사회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들인 천변(天變) 지이(地異), ⑦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서로부터 국왕에게 올리는 각종 보고서와 복명서 등에 관한 기사 등으로 광범한 내용을 다루었다. 천변(天變)지이(地異)에 해당되는 유성(流星)의 모양, 흔적 등도 1759년 3월 당시의 조보에 실렸을 것이고, 김낙수로 해당 조보를 열람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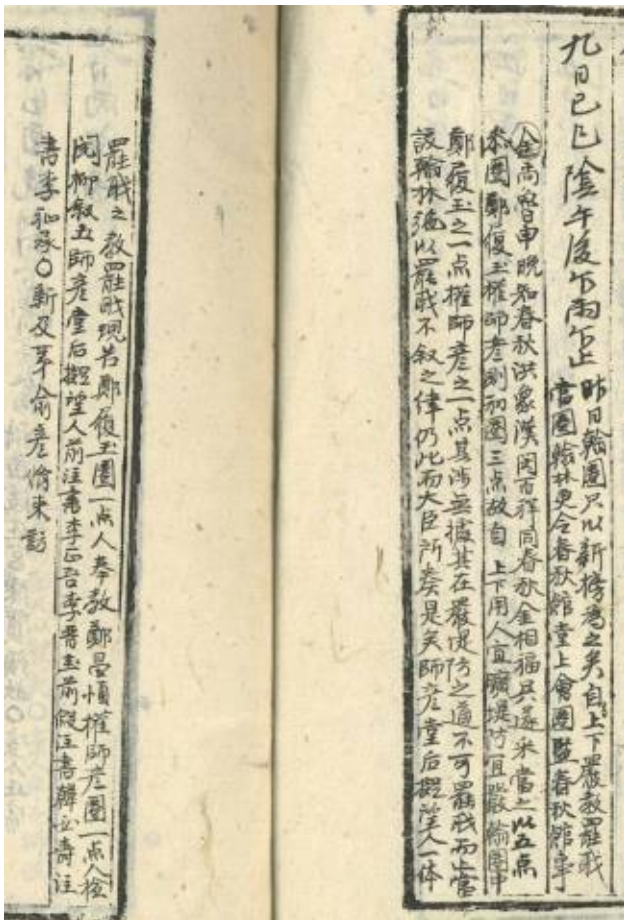
김낙수의 서울 생활은 국왕의 동정(動靜)과 조정의 활동(活動)에 크게 주목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정 관료들의 움직임도 눈여겨 보면서 과거의 시행과 급제, 대소 관직에 대한 인사 등에도 크게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58)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5월 30일 癸巳 (43책 18면); ○癸巳/關西大疫, 死者以千計, 道臣以聞。

59) 『김낙수일기』 1741년 6월 27일.

60) 조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차배근, 1980 「우리나라 조보에 대한 신문학적분석고」,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학보』 17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보」.

<그림 6> 1759년 4월 18일 한림(翰林) 기사



예문관⁶¹⁾ 관원인 한림(翰林)은 전임 사관(史官)으로 봉교(奉敎) 2인(정7품), 대교(待敎) 2인(정8품), 검열(檢閱) 4인(정9품), 이렇게 8인이다. 이들은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이는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같은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時政記)·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한림은 사초작성과 시정기의 보관 및 실록편찬이라는 업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간섭을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상으로도 나름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었다.⁶²⁾ 신임사관인 검열(정9품)을 선발할 때, 전임 검열이 다른 한림들의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 실제적인 신규임용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한림자천제(翰林自薦制)라고 불렀다. 하위직으로 직무가 엄중한 자리를 하위직 내에서 공론에 따라 천거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조전랑의 자천(自薦) 방식과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한림자천제는 1741년(영조 17년)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앞선 인조대에 명관 중에 사관을 거친 사람을 '별검춘추'에 임명하여 사관을 천거토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⁶³⁾ 그럼에도 전직 한림이 현직 한림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사감(私感)에 영향을 받는 문제, 천거된 인물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목하여 삭천(削薦)을 주장하는 물의가 일어났던 사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탕평을 앞세운 영조는 한림천거제 자체가 당색(黨色)에 좌지우지되고, 또한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1741년 한림회천법(翰林回薦法)을 혁파하는 왕명을 내리게 되었다.⁶⁴⁾ 그리고 한림자천제<回薦>를 대신하는 한림회권(翰林會圈)을 시행할 목적으로 10조에 걸

61) 예문관은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領事, 정1품, 의정이 겸임)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提學, 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應敎, 정4품)[^1] 1인,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학 이상은 겸관(兼官)이며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응교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문관의 전임관(專任官)은 봉교 이하가 되었다.

62) 한림 임용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吳恒寧, 2004 「조선후기 국사체계의 변동에 관한 시론: 실록(實錄)에서 일성록(日省錄)으로」 『역사와현실』 52.

63)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4월 戊申. 이를 자천제와 구분하여 寒林議薦制라 부를 수 있다.

64)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3월 庚寅: 上御書講…論罷朋黨, 行蕩平之道. 左議政宋寅明曰 柳壽垣謂翰薦當罷云 其言是矣. … 先是. 柳壽垣進官制序陞圖, 其法取文官之當入承文院者, 皆考試分等. 壯元則弘文館正字, 其次爲藝文館檢閱, 又其次爲承文院正字, 如是則名官翰薦樹黨之廢可以革祛.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4월 癸丑: 命革罷吏郎通清之法及翰林回薦之規.

친 「한천이정절목(翰薦釐正節目)」을 의정하였다.⁶⁵⁾ 「한천이정절목」의 핵심은 제1조에 있는데, “한림(翰林)의 추천은 본관에서 홍문록(弘文錄)의 예에 의거하여 모여서 논의하고 추천하여 권점(圈點)한 뒤에, 도당록(都堂錄)의 예에 의거하여 영사, 감사, 관각 당상이 다시 모여서 권점한다.”라는 것이었다. 당상관 이상의 검토에 근거한 판단<권점(圈點)>에 따르는 인사방식을 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림권점(翰林圈點, 翰林本館圈點) → 도당권점(都堂圈點, 翰林館閣會點) → 한림소시(翰林召試)의 순서 대로 한림을 뽑아 임용하게 되었다.⁶⁶⁾

1759년 4월 18일에 치러진 한권(翰圈)을 다룬 『승정원일기』(4월 18일 기사)와 『김낙수일기』(4월 19일 기사) 기록을 비교하면 두 기록은 공통적으로 4월 18일 치러진 한권(翰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영조는 앞서 4월 17일 신방(新榜) 즉 새로 문과, 무과 급제자의 면면을 여러 신하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장원(狀元) 이태채(李台采) 이하 여러 급제자를 면대(面對)하고 이어서 무과 급제자도 대면하였다. 그런 다음 영조는 “신방(新榜)이 이미 나왔으니 한권(翰圈)도 또한 있어야 하는데, 어떤 달이 있어서 하지 않는가”라고 언급하면서 명일 한권의 거행을 지시하였다.⁶⁷⁾ 『김낙수일기』의 해당 기사를 약간 장황하지만 전문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작일(昨日) 한권(翰圈)은 다만 신방(新榜, 문과 새 급제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상이 엄교(嚴敎)를 내려, 한권을 담당한 한림(翰林)을 파직하고 춘추관 당상 회권을 다시 할 것을 명하였다. 감춘추관사 김상로(金尙魯)⁶⁸⁾, 신만(申晩), 지춘추 홍상한(洪象漢), 민백상(閔百祥), 동춘추 김상복(金相福), 오수채(吳遂采)가 담당하여 5점으로 참권(參圈)하게 하였다. 정리옥(鄭履玉)과 권사언(權師彦)은 초권(初圈)에 3점이었다. 그런 까닭에 주상이 용인(用人)은 마땅히 밝게 해야 하고, 제방(堤防)은 마땅히 엄속해야 하는데, 한권(翰圈)에서 정리옥에게 1점을 주고, 권사언에게 1점을 준 것은 그러한 결정에 근거가 없어, 제방을 엄속하게 하는 도(道)에서 파직으로만 그칠 수 없다. 해당 한림을 파직하고 불서(不敍)하는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신이 상주한 바가 합당하지, 권사언을 당후(堂后, 승정원)에 의망(擬望)한 사람도 일체 파직하라는 명이 내렸다. 파직을 현고(現告, 드러내어 알

65) 『영조실록』권53 17년 4월 丙辰條, 翰薦釐正節目成. 春秋館領事金在魯 監事宋寅明.趙顯命, 知事鄭錫五 同知事鄭羽良之所議定也 節目凡十條 一, 翰薦自本館 依弘文錄例 會議薦圈後 依都堂錄例 領監事館閣堂上 更爲會圈也. 其二, 翰林若備三員 則當會圈 而此是創法之初 則時任不過一人 曾經之人 依兼春秋例 職在堂下者 使之並參 其或不齊 依時任薦例備三員則舉行也… 史臣曰 是時用事者 患士大夫不付己 欲盡收清要之權 援進廢錮諸族 以廣蕩平之路 然未有以發 會柳壽垣上官制序陞圖 宋寅明趙顯命等 與元景夏同議 遂力贊之 請斷自宸衷 御是直命罷郎選改史薦

66) 『續大典』 권1, 吏典 京官職: 翰林圈點, 一依弘文錄例. 參外人員, 按榜臚出, 而時任翰林及曾經人員 齊會圈點, 取次點以上若債卷, 則大臣及館閣堂上, 更爲會圈.

67) 『승정원일기』 1167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4월 17일 정묘: 上曰, 今則新榜已出, 翰圈亦有, 何頃而不爲乎? 柳紱五曰, 當與一奉敎相議, 卽爲舉行矣. 傳曰, 翰圈, 其令明日舉行. 出傳敎.

68) 김상로의 행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1762년 사도세자의 죽음과 깊이 연관된 점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낙수일기』 기사에서 김상로의 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은 후대에 적어도 정조대 이후에 김낙수 후손 또는 알수 없는 어떤 사람이 손댄 흔적으로 보인다. 1776년 3월에 내린 정조의 하교(下敎)에 따르면 임오년에 사도세자가 죽고 동궁이 설치되었을 때 영조가 정조에게 “김상로는 너의 원수이다. 내가 강제로 치사(致仕)시킨 것은 천하 후세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임오년의 일을 비록 감히 훗날 다시 들먹이지는 않겠지만, 임오년 5년 전의 때는 5년 뒤인 임오년의 조짐을 양성한 것이 곧 하나의 김상로일 뿐이다.”라고 하교하여 이를 가슴 속에 명심하였다고 한다.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30일 신축 (44책 566면): ○辛丑/追奪金尙魯官爵. 敎曰…壬午復設東宮後, 敎予曰: ‘尙魯汝之讎也. 予之勒令致仕, 白予心於天下後世也. 壬午雖不敢更提於他日, 前壬午五年之時, 釀壬午五年後兆, 卽一尙魯而已.’ 拜稽聞命, 銘諸心腑.

림)하기를 정이옥에게 1점을 매긴 사람 봉교 정창순(鄭昌順), 권사언에게 1점을 매긴 사람 검열 유서오(柳敘五), 권사언을 당후에 의망한 사람 전(前) 주서 이광오(李匡吾), 이보규(李普圭), 전 거주서 한필수(韓必壽), 주서 이지승(李祉承)이었다.

위의 『김낙수일기』의 기록 가운데 일부는 『승정원일기』 4월 18일 기사, 4월 19일 기사에 들어 있다. 먼저 4월 18일 한권이 거행된 당일 『승정원일기』 기사는 임금과 좌의정 김상로(金尙魯), 기사관 유서오(柳敘五) 등이 한권의 결과물인 「회권책자(會圈冊子)」를 중심으로 벌인 논의를 기록한 부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조는 「회권책자(會圈冊子)」를 살펴보면 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다. 영조는 한권(翰圈)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한권에서 <한림(翰林)을> 널리 뽑으려는<광취(廣取)> 것에는 의미가 담긴 것인데, 정이옥(鄭履玉)을 1점으로 매겼는데, 선정(先正) 고상(故相)⁶⁹의 후예인 사람을 새어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책한다. 이에 대해 신만은 “이 일은 잘못이다”라고 대답하자, 영조는 계속해서 “이급(李級)은 이해(李滢, 이항의 형)인데 이와 같으면 어찌 한권(翰圈)하는 의의가 있을 것인가”라고 계속 지적한다. 앞서서 정이옥이 1점만 받은 것을 따지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급도 좋은 권점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당일 벌어진 한권의 문제점을 이리저리 지목한 다음 영조는 두 가지를 명령한다. 하나는 이와 같이 <한권>을 마무리하면 영남 사람의 마음을 설복시킬 수 없을 것이니 지금의 결과는 철회하고 감사(監事)가 다시 한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시이다. 다른 하나는 “한천(翰薦)을 한권(翰圈)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고심한 것이었는데, 금번의 한권은 비단 험착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올려야 할 사람이 누락된 것이 많으니 일이 매우 한심하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금일 한권을 수행한 한림을 아울러 파직하고 춘추관 영감사 및 여러 당상들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도당회권을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결국 한권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다시 거행할 것으로 지시하고, 처벌과 더불어 도당회권의 실시도 명령하는 것이였다.

1759년 4월의 한권 문제는 영조에게 탕평 실시에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9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영조는 명정전 월대의 석강(夕講)에서 “<한권>의 초권을 만약 제대로 하였으면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그 남북(南北)을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오이를 쪼개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조선(朝鮮)은 신하의 조선이 아니라 곧 군(君, 영조)의 조선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대신들 또한 잘못하였다. 이것은 봉교(奉敎)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⁷⁰라고 발언하면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이어서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명정전 월대에 좌우상 등이 입시하였을 때 “용인(用人)을 널리 실시하고, 제방(堤防)을 엄숙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앞서 『김낙수일기』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들어있는 기사가 조보(朝報)에 실렸을 때 이를 잘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몇몇 인물들의 권점 점수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69) 정이옥은 연일 정씨인데, 선조 가운데 ‘선정(先正) 고상(故相)’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짐작하기 어렵다. 혹시 선조 대의 정승 정철(鄭澈)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

70) 『승정원일기』 1167책(달초본 65책) 영조 35년 4월 19일 기사: ○ 己卯四月十九日申時, 明政殿月臺殿坐, 夕講入侍時, 知事申晦, 特進官韓師得, 參贊官李永暉, 侍讀官南綺老, 檢討官李碩載, 假注書李一曾, 編修官洪敘箕, 記注官李勉進伏. 上曰, 左右相入來乎? 南泰著曰, 俄者又納命召矣. 傳曰, 既知中官之所爲, 則於大臣無撕捥之端, 而噫, 白首之君, 竟夕月臺殿坐, 而若是撕捥, 於道理·分義, 何若此不已? 在殿咫尺, 予亦有所爲, 勿待命, 卽爲入侍事, 遣史官更爲傳諭, 命召, 亦爲傳授. 出啓批答 上曰, 初圈若善爲之, 則豈至於此乎? 擇其南北, 何必如剖瓜乎? 朝鮮, 非臣下之朝鮮, 乃君之朝鮮, 則豈可如是乎? 大臣亦非矣. 此莫非一奉敎之罪也. 若欲圈鄭履玉, 則何不圈張廷星乎?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759년 당시에 벌어진 한권을 둘러싼 사건 연쇄는 영조가 추진하였던 한천의 폐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행된 한권의 실시 등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당시의 한권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등 관찬 기록 뿐만 아니라 『김낙수일기』와 같은 일기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789년(정조) 김낙수는 한성부에 머물고 있었는데 2월에 특기할 만한 일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2월 16일 협아(協兒)⁷¹⁾가 감시(監試, 사마시) 회시(會試) 초장에 들어갔고, 18일 기환(基煥)이 이소(二所) 종장에 들어갔다. 두 응시자의 행적에 대해서 김낙수는 동일하게 “직접 스스로 짓고, 스스로 썼으며 인사도 또한 잘 다스리고, 일찍 제출하였으니 기뻐할 만하다(自作自書 人事善修 早呈可喜).”⁷²⁾라고 적고 있다. 이 일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윤기(尹愷)⁷³⁾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윤기는 과거에서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취조(取早) 즉 일찍 제출한 시권을 뽑아주는 폐단을 언급하였다.

또 일찍 제출한 시권을 뽑아주는(取早) 폐단이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시종 세세히 검토하기를 꺼려서 단지 암표(暗標)를 붙여 일찍 바친 자를 뽑아 발탁하고 늦게 제출한 자는 모두 낙방으로 밀쳐두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선비들은 평소 익힐 때부터 문장의 공拙(工拙)은 따지지 않고 오직 시각을 다투어 급히 엮어내는 데 주력하여, 남들이 모두 하루에 몇 수씩 지어내는 자를 실재(實才)로 여기고 자신도 그 민첩함을 자랑합니다. 문필에 솜씨가 없는 자는 빨리 짓고 빨리 쓰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입장하고 나서 황급히 써내어 남보다 앞서기를 다투고, 심지어 서너 명이 한 편을 합작하고 여럿이 어울려 한 장을 함께 써서 반드시 첫 번째나 두 번째 축이 되기를 기약합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 인사(人事)를 잘 닦지 못했다고 여기고, 그의 부형과 다른 사람들도 그 문장이 어떠한지는 묻지 않고 일찍 냈는지 아닌지를 물어서 당락을 미리 점치니, 이런 마당에 재주를 어떻게 다 발휘할 것이며 글이 무슨 수로 문장이 되겠습니까.⁷⁴⁾

윤기는 과거 시험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폐단의 하나로 ‘시권을 일찍 제출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김낙수는 두 응시자가 일찍 제출한 것을 기뻐할 일로 평가하였다. 과거 시험의 폐단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자식을 비롯한 친지의 처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응을 좋게 여기고 기뻐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과거 시험에 대한 김낙수의 관심은 이후에도 시관(試官) 임명, 신방(新榜) 진사(進士)의 방문 등에 대한 기록을 일기에 남기

71) 32세-金義協. 和仲. 癸亥. 乙丑增進士. 善山人. (김낙수의 아들)

72)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2월 16일. 自作自書 人事善修 早呈. 18일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73) 윤기(尹愷)는 무명자(無名子) 1741년(영조 17)에 태어나 1826년(순조 26)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 문신, 학자이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경부(敬夫), 호는 무명자(無名子). 아버지는 윤광보(尹光普)이며, 어머니는 원주원씨(原州元氏)로 원일서(元一瑞)의 딸이다. 이익(李瀾)을 사사하였다.

74) 윤기(尹愷), 『無名子集』 文稿 册十一, 壬申應旨疏: 又有取早之弊. 蓋主試者厭於始終之細閱, 只就暗標早呈者擢之, 而晚呈者則都置之落軸. 故爲士者, 自私習之時, 不顧其文之工拙, 惟以燭刻急構爲主, 人皆以一日做幾多首者爲實才, 己亦自誇其敏速. 而無文筆者, 預備速製、速寫之手, 及其入場, 忙忙寫出, 競欲先人, 甚至以數三人合作一篇, 以數三人合寫一張, 必期第一二軸. 而不然則自以爲不善修人事. 其父兄與他人, 亦不問其文之如何, 惟問其呈之早晚以占得失, 如此而才安得自盡, 文安得爲文?

고 있다.

한성부에 거주하던 시기의 김낙수는 춘천과 왕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1789년 3월 3일 장아(長兒)를 절사(節祀)를 만나 춘천에 보내고 있었다.⁷⁵⁾ 같은 해 3월 18일에는 순노(順奴)가 배에 짐을 싣고 수로(水路)를 통해 춘천에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⁶⁾ 한성부 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노복(奴僕)을 통해 그리고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춘천에서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김낙수의 일상 생활은 노년의 경우 특히 여러 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시절을 많이 보내는 것이었다. 1789년 4월 3일 자신의 병증을 구미(口味) 즉 입맛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내 병(病)의 여러 증상이 근래에 조금 줄어든 것같은데 그렇지만 구미(口味)는 종내 나오지 않아 음식 먹는 것의 줄어든 것이 종시(終始) 일양(一陽)이다. 어제 걸어서 왜장(倭場)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별달리 더할 만한 일이 없다.⁷⁷⁾

왜장(倭場)은 남산 밑이 그 위치인데, 일본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근대 전환기인 1882년에 일본공사관이 남산 밑 예장동에 있었는데, 김낙수 일기에 나오는 왜장(倭場)과 연관성이 있는지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해인 1789년 4월 8일에는 자식들과 손자 등을 데리고 종루(鍾樓)에 가서 청종(聽鍾)과 관등(觀燈)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⁷⁸⁾ 4월 12일에는 꽃구경하는 전후 광경을 “혜화문 바깥 안암동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정자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수각(水閣)에서 소요하였다. 그리하여 북적동에 도착하니 차아(次兒)와 손자들이 모두 이미 도착해 있었다. 도화(桃花)가 난만하였다. 머물러 점심을 먹은 다음 계산(溪山) 사이를 소요하였는데, 이날 날이 따뜻하고 꽃이 작렬하여 성안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완상하였다.”⁷⁹⁾

김낙수는 한성부에 머물면서 전답을 매입하여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경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었다. 1759년 정월 24일 일기 기록을 보면 “춘천의 대포담(大浦畚)을 척매(斥賣, 방매)하고 32냥을 받았다. 14냥으로 그곳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18냥은 가지고 왔다.”라고 적고 있다. 이 기사에 보이는 포담(浦畚)은 하천 인근에 자리한 논을 가리킨다.

본래 토지 특히 전답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지(土地) 매매문기(賣買文記)’, 또는 ‘매매(賣買) 명문(明文)’이 작성되고 증인과 필집의 수결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토지문기는 토지의 매매, 상환(相換), 환퇴(還退) 등을 당사자 사이에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대부분의 토지문기는 토지매매문기인데, 매매문기를 소지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신문기(新文記)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구문기(舊文記)도 같이 교부해야 마땅하였고, 구문기의 존재 여부는 매매 자체의 성사에 관건이 될 수 있었다. 사실상 토지매매문기가 토지소유증

75)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3월 3일.

76)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3월 18일.

77)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4월 3일.

78)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4월 8일.

79)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4월 12일.

명서의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⁸⁰⁾ 이와 같은 조선 후기 토지매매문서 작성의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면 당연히 김낙수의 토지 방매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일기 기록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789년 3월 29일 일기 기록에 토지 매매의 전후 사정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실려 있다.

과언친 박상문(朴尙文)은 중인(中人)인에 가중(家中)에 왕래한 것이 수년이였다. 을묘(乙卯, 1735년)⁸¹⁾ 겨울에 그(박상문)가 사는 곳인 안양리(安陽里)에 매입할 만한 답(畓)이 있다고 하여 75냥을 주고 매득하고 도지(賭地)를 75두(斗) 받는 것으로 하였다. 박상문이 죽은 뒤에 점차 전과 같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수소문해보니 박상문에서 사기를 당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가격을 과도하게 지급한 잘못 매입한 것이었다. 30,40년이 지나면서 전혀 도지를 받지 못하는 해가 많아, 곧 등기(等棄, 탐탁하지 않게 여겨서 버림)의 물건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번 보름께에 안양에 사는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해당 답(畓)이 자신의 집 옆에 있어 매입하기를 청하여 그리하여 30냥을 받고 영영 방매(放賣)하였다. 8냥을 임동(林洞)의 차아(次兒) 집에 보냈는데 <6냥은 작년에 집을 팔았을 때 빌린 것이어서 보낸 것이고, 2냥은 근래에 조과(調過, 살아가는 일)가 매우 어려워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4냥은 춘천에서 짐을 배로 운반해서 들어올 때 말 빌리는 값과 여러 부비(浮費)로 사용하였다. 2냥은 유(柳) 선천(宣川) 집안의 채무를 상환하고, 16냥은 내간(內間)에 보내어 먼저 채무를 상환하게 하였다.⁸²⁾

먼저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중개인을 통해 적당한 답(畓)을 구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금액을 과잉 지출한 것이었고, 도지(賭地)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75냥을 주고 매입한 논을 40년 정도 지난 뒤에 30냥에 방매할 수밖에 없었다. 김낙수는 이렇게 구한 30냥을 둘째 아들에게 보내주고, 춘천에서 짐을 들여올 때 비용으로 지출하고, 여러 채무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물론 위 기사는 전답 매매, 도지 수취 등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전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중개인을 통해 답을 매입하고, 또한 실제 수요자에게 답을 방매하는 상황과 도지(賭地)를 받아 가문의 경제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버려진 물건과 같은 형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선산김씨 소장 자료 가운데 토지매매문서, 매매명문 등의 유무를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759년(영조 35) 기묘일기의 앞 부분에는 역서(曆書)를 잘못 간행하여 개간(改刊)한 사실이 적혀 있다. 2월과 3월의 대소(大小)가 잘못되고, 청명, 한식, 곡우를 잘못 기재하여 단력(單曆)과 2월 3월 해당 장(張)을 개간하였다는 설명이다. 김낙수 일기의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1758년 12월 29일 기사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⁸³⁾

80) 토지매매문서가 토지 매매의 관건이라는 것은 다음 문서의 題音에 잘 표현되어 있다. 서울대학교奎章閣, 2000 『古文書-20』, 209-210쪽. 문서번호: 85368. 縣內兎洞金承旨宅奴在文(중략)(題音)畓土賣買從文卷爲主(하략).

81) 을묘년은 1735년으로 1789년에서 64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기묘년 1759년의 오자가 아닐지 의심스럽다.

82) 『김낙수일기』 1789년(기유, 정조 13년) 3월 29일.

83) 『승정원일기』 116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2월 29일 신사: 上曰, 淸曆與我朝曆, 差二日乎? 吳彦儒曰, 差一日而以至二箇月大小之差矣. 上曰, 曆官置之之教, 中官誤傳矣. 使承旨書傳教. 上曰, 觀象監啓目中, 當該中官, 做錯特甚, 令該府從重勘處. 出榻教, 吳彦儒曰, 更爲刊出, 頒外方宜矣. 上下

당시 양반가에서는 모두 역서(曆書)를 받아서 갖고 있었고, 상한(常漢)의 경우 단지 단력(單曆)만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역서(曆書)는 대략 10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해당 월(月)에 배치된 양절후(兩節候) 등 그 달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일력(日曆)을 기록하였다. 일력의 경우 일별간지(日別干支)와 오행(五行) 상의 위치, 해의 출입시간, 주야(晝夜)의 길이, 제사·혼인·파종 등 일상사를 그 날 거행할 시의 길흉(吉凶) 여부(上宜·壬·下宜·不)가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단력(單曆)은 한장으로 구성하여 월별 기재 내용만 적혀 있었다.

김낙수 일기에서 당대의 연대기 자료와 함께 사실(事實)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가 바로 인사(人事) 기록이다. 김낙수는 한성부에 거주하던 시기 자신이 수집한 인사 관련 기록을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김낙수의 인사 관련 기록은 연대기 자료의 내용보다 상세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759년 정월 7일 승릉(崇陵) 별검(別檢) 인사 기록은 『승정원일기』 정월 7일 기사에서 백관(百官)을 하비(下批, 임금의 재가)하면서 “김화중(金和中)을 승릉별검(崇陵別檢)으로 삼음⁸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김낙수일기』 1759년 정월 7일 기사에는 “승릉별검(崇陵別檢)의 수부(首副)는 김화중(金和中), 이평(李枰)이다⁸⁵⁾”로 기록되어 있다. 승릉별검(崇陵別檢)의 수망(首望)이 김화중이고, 부망(副望)이 이평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 김낙수 일기 기록이 당시의 인사 관련 기록을 보충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김낙수일기』를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가내(家內) 각종 관혼상제(冠婚喪祭) 행사 참석에 대한 사항은 물론 주변의 교유관계, 주택의 임대 및 매매에 대한 사항 등 일상적인 양반 사대부의 생활상을 세세하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후반 양반 사대의 생활일기와 관련하여 월봉 구상덕(具尙德)이 쓴 일기인 『승총명록(勝聰明錄)』을 참고할 수 있다. 구상덕은 경상남도 고성 지방에 거주하면서 20세가 되던 1725년 7월부터 56세로 별세한 1761년 8월까지 만 37년간 하루도 빠짐 없이 자신의 일상 생활을 기록하였다. 『승총명록』에 기재된 일기 내용은 크게 보면 자연현상으로 날씨(바람, 비, 더위, 추위), 재해(가뭄, 홍수, 전염병)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농사(벼농사, 보리농사, 農形 등), 환곡(봄에 받아먹기, 가을에 갚기), 노비(노비매매, 노비도망, 追奴), 물가(쌀값, 어물값, 목화와 필목값)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이어서 사족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친족(친족간의 교류, 상호부조), 친구(상호방문, 詩唱和), 학생·동접(교수(교육), 공부), 상례·제례(양친상의 절차, 제사 음식마련), 見聞(괴이한 사건, 호랑이 등)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향촌사회와 관련하여, 향교·서원(향교직역, 건물중수, 방문), 수령(수령교체, 순상 등의 행적), 교류인물(來訪, 訪問, 接人), 소장·민장(民瘼 관련 민장, 소송문) 등이 적혀 있다. 『김낙수일기』에서 『승총명록』의 그것과 유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詢賤臣曰，汝則在鄉，鄉之曆書貴耶？兩班家皆有曆書乎？或但有單曆張乎？賤臣對曰，兩班家則皆有曆書，而常漢家或只有單曆張矣。上曰，單曆張足可觀一年矣。

84) 『승정원일기』 1164책 (달초본 65책) 영조 35년 1월 7일 기축: ○ 百官加下批, 以李重祜爲大司諫, 李敬玉爲獻納, 蔡膺一爲敦寧都正, 李厚達爲宗簿正, 洪準海爲司僕正, 朴取源爲說書, 崔景興爲司宰僉正, 張學龍爲引儀, 李在爲司藥僉正, 具善長爲水庫別檢, 金和中爲崇陵別檢, 鄭昌順單付奉教, 李蒼廷單付檢閱. 咸溪君樞承憲今加崇憲, 綾安君楨中義今加承憲. 以上百官加親授事, 傳教.

85) 『김낙수일기』 1759년(기묘, 영조 35년) 정월 7일.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2발표

“춘천의 민속문화의 현황과 전망-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허 준 구

강원문화예술연구소소장

춘천의 민속문화의 현황과 전망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허준구 (강원문화예술연구소장)

Chapter I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배경

- 1960년대 마련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
- 2016년 유네스코의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 2023년 4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국가적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에서 유산(遺産)으로의 개념이 확장
- 문화유산으로의 개념 확장으로 기존 문화재보다는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짐
- 지역 주민 스스로 유산의 가치를 발굴해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유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연구의 배경

- 기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국가 유산 체계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문화유산의 개념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 기존에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은 있지만 현재의 무형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는 형편으로 향후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무형유산 정리가 필요



연구의 목적

- 춘천시 유형문화유산은 어느 정도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무형유산에 있어서는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현황 파악이 거의 없는 형편임. 이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개념을 반영하여 춘천지역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함
- 기존에 나온 보고서와 연구자료, 연관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체계적 틀로 정리해냄으로써 향후 무형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함
- 춘천지역의 무형유산 목록화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국가 유산 보호정책의 방향을 담은 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무형유산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찾고자 함

연구의 범위

연구지역

- 춘천지역

■ 연구의 범위 : 무형유산법 범주를 기준으로 목록화 현황작성과 무형유산 미래 가치 확정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무예
- 변화하는 문화유산 개념을 반영한 춘천시 무형유산 미래 가치 확정

Chapter II

II. 연구개요

1. 무형유산 목록화 선정기준과 참고자료
2. 각 분야별 현황과 실태
3.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 선정 준거

역사성

- 오래전부터 춘천인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전승되는 것
- 역사적 문헌이나 구전 기록이 있는 것
- 단절되었지만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것

현재성

- 실제 세대 간 전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
- 발굴 보완된 유산이라도 현재적 전승이 확인되는 것
- 전승 단절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고 보완 가치가 있는 것

지역성

- 전승 지역의 인문 자연 환경적 요인이 능후한 것
- 지역적 특징과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

시의성

- 전승과 단절의 우려가 있어, 유산의 보호가 시급한 것

미래성

- 현재적 기능과 가치가 능후한 것
- 미래 전승이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닌 것

현황 작성과 실태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 개별 분야별로 정리된 기존보고서 및 연구자료와 관련 홈페이지 등 각각의 분야의 목록화를 위한 관련 자료와 사이트 등을 검토
- 춘천문화원에서 2019년 발간된 『춘천문화』를 중심으로 정리
-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흡한 농경어로지식, 공예기술, 의식주 등의 분야는 기존 자료의 검토와 함께 관련 사이트 등의 자료를 찾아서 보완

구분	내용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평의 의병마을(2017) -강원도 연료(2001) -강원의 농산촌마을, 풍수관 서양리(2015) -강원인의 일생일사(2005) -강원전통문화총서(1997) -백산면 사람들(2010) -산수마을 사람들(2023) -소양강댐 수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 물 언덕 가락과 풍경(2022) -마을살은 어루기(2004) -전통 지식무늬집 : 생산이류기술(1997)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 -춘천 마을농악 학술조사 연구윤역 보고서(2020) -춘천 백년사(1996) -춘천 인체의 민족(1988) -춘천 경제성 발전을 위한 역사문화 마커(번 5, 민족문화(2019) -춘천 기행유래집(신북, 동내, 동면, 신동, 남산, 동산)(2012~2023) -한국 권자 재래종의 역사적 고찰(2003)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 어루 분야 현황조사보고서(2019) -한국생업기술사전, 상권업 2(2002) -한국의 가평산악(2006) -한국인의 일생일사(2010)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농업기술원 -이커뮤니케이션(PEDA)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전통지식포털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공연예술 및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구전적 전통 표현은 선행 조사가 비교적 많음

- 민요, 설화, 구비문학은 비교적 조사가 잘 이루어져 있음. 민요는 농업노동요 중심으로 지역색이 보이는 민요 채록이 있으며 설화는 춘천 지역의 지명과 역사와 어우러지는 전설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음.
- 구비문학 현장은 빠르게 소멸되고 있으나 선행 조사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춘천 지역의 정체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전통적 공연, 축제, 놀이, 무예, 기예 등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필요함

-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현재 전통 공연예술 분야로는 두가지를 꼽을 수가 있음. 첫째는 농악이고 둘째는 기존에 민속예술경연대회(후에 민속예술축제로 변경)에 출전한 전통적 놀이와 축제 등임
-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작품들은 민속놀이이면서 전통적 공연 예술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과거 참여했던 <재궁 동 산제 거북놀이>, <춘천 차전놀이>, <봉의산 축성놀이>, <석파령 주막놀이>, <신용면 용신제> 등이 여기에 속함
- 이러한 작품들의 원천자료는 민속놀이와 민속의례 등으로 원천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이외에 다른 놀이와 공연 예술 등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함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 전통지식의 중요성 증가

- 농경어로 전승지식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조명되지 못하다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무형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경어로전승지식은 그동안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계적 조사나 학문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특히 농경어로 지식은 전통사회를 유지하며 현대의 산업화 시대의 밑거름이 된 생업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첨단 산업화에 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전통농경어로 지식이 갖는 미래적 가치

- 전통농경어로 지식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했던 농경시스템, 부족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단위의 자원동원방식 등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해내는 효율적인 지식시스템

춘천의 농경어로지식 및 공예기술에 대한 자원발굴 필요

- 현재 농경어로지식 및 공예기술에 대한 조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은 상황..
- 전체적으로 일부 마을에 대한 농업, 어업, 상업 등 생업 경제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농경시스템과 자원동원방식 등 미래 전승 가치를 발굴하지 못한 상황
-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농경어로지식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춘천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음

- 공예 기술에 대한 부분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관리되어 오던 분야로 국가무형문화재 7개 범주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예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춘천필장이 춘천의 유일한 무형유산임. 공예기술이 비교적 많이 지정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의 공예 미술 등의 전통 기술에 관한 기존 연구나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임

춘천의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 기술 발굴 필요

- 춘천의 경우 조선시대 춘천토(春川土)를 배를 이용하여 분원에 운반하여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단편적 기록 외에는 춘천토를 활용하여 용기를 제작하는 기술, 춘천토를 분별하는 기술 등 춘천토에 관한 세부적인 전통 기술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춘천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광물 등을 이용한 가공 기술이나 선별 기술 등 지역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발굴이 필요함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의식주 부문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자료 비중이 적음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한 조사는 국가 주도로 진행된 조사연구와 강원도 차원의 민속 조사 연구 등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지역별 대표 민속에 대한 소개에 비해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자료는 비중이 적음
- 『한국민속종합보고서-강원도편』(1977), 『한국민속종합보고서-향토음식편』(1984), 『한국민속종합보고서-주생활편』(1985), 『한국민속종합보고서-의생활편』(1986), 『강원도 세시풍속』(2001), 『강원의 민속문화』(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김두식, 윤정숙 부부의 살림살이』(2014), 『강원의 농산촌마을』(2015), 『차연 그대로 강원도 음식 31선』(2015)
- 의식주 등 생활관습이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식문화와 관련해서는 음식문화의 관광 자원화라는 관점에서 증가음식, 향토음식, 지역 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되었음

의식주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 필요

- 의식주 등 생활관습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남아 있고, 그 원형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장 1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공간까지도 조사대상 범주에 넣어 의생활, 주생활에 대한 독특한 사연과 구체적인 문화 및 경험담이 드러나는 사례 발굴 조사가 필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세시풍속 부문

지역 고유의 특성 및 타 지역과의 변별점을 찾기 어려움

- 세시풍속과 관련한 국가 및 도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와 강원도 민속학자들에 의해 수행한 조사 연구가 있었지만 세시풍속에 대한 지역의 고유성 및 다른 지역과 변별점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적음
- 『강원도 세시풍속』(2001), 『강원의 민속문화』(2014),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5 민속문화』(2019), 『강원도사』(2018), 『춘추의 역사와 세시풍속』(1991), 『춘천의 세시풍속』(2000), 『『譯註 海觀自集』에 나타난 춘천의 세시풍속』(2007)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수조사 필요

- 세시풍속은 농경 생활의 주기 및 그것과 결부된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명절 풍속, 생산 의례, 절기에 따른 풍속과 음식, 속신, 놀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각적 측면에서의 조사 연구가 필요한 주제임
- 도시화, 산업화 및 코로나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하거나 소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역사성, 지역성, 공간성 등의 복합적 문화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기본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적 특색을 발굴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민간신앙

민간신앙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

- 각종 지리지와 개인 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민간신앙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기록에 의하면 춘천에서는 거의 마을마다 한두 개의 마을 신앙이 있었으며 가정에서도 성주신앙 등 가정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음
-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민간신앙은 새마을운동과 외래종교의 영향으로 많이 사라졌음.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마을신앙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음

춘천의 고유성과 특성을 지닌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 가정신앙으로는 기자신앙, 귀신가두기, 성주신앙, 삼신신앙, 안택고사, 풍수신앙, 무속신앙 등이 있으며 마을신앙으로는 강촌의 말골서낭제, 봉명리 서낭제와 거리제, 가정리 재궁동 산제, 추곡약수제, 봉의산손의비제, 증리 금병산 산신제, 방하리 장승제, 조양리 발치리 거리제, 내평리 수살제, 물로리 기우제, 와룡리 미륵제, 사암리 무릎제 등이 있음
- 이들 신앙은 모두 춘천의 고유성과 마을의 특성, 변별성을 함유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님

춘천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례 : 발치리 거리제, 우두산 솟을뒀, 물로리 기우제

- 발치리의 거리제는 몇백년의 전승역사와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을신앙으로 서낭제와 장승제, 솟대제와 돌탑제를 모두 아우르는 제의로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장승출 공연 등으로 방송과 신문 등 여러 매체에 소개
- 우두산의 솟을뒀는 역국시대의 천제단과 관련있는 신앙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
- 물로리 한천자 무덤의 기우제는 옛 문헌에서도 나오고 2012년에도 행한 춘천에서 가장 큰 기우제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의례(의식)

기존 자료의 신빙성 부족 : 자료의 출처가 불명확

- 춘천시 의례(의식)에 관해 집대성된 것은 「춘주지」(1984), 「춘천백년사」(1996), 「강원문화총서」(1997) 등의 기록이 있으나 제보자를 표기하지 않아 현지답사를 통해 집필되었는지 알 수 없음

현전하는 의례가 거의 없고 간소화됨

- 제보자 출처를 확실하게 밝힌 의례 기록은 「강원인의 일생의례」(2004), 「북산면사람들」(2010), 「춘천시의 일생의례」(2012), 「가정리 의병마을」(2011), 「민속문화」(2019), 「산수마을사람들」(2023) 등이 있음. 이들 조사에서는 각 마을의 일생의례를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에서 모두 조사
-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의 형태도 변할 뿐더러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 때문에 현전하는 의례는 서양식 또는 간소화된 의례로 무형문화로 지정하여 계승할 의례가 대부분 없어져서 빈약한 상황임

의례문화로의 새로운 가능성

- 옛 의례문화가 다시 재현 또는 재연되는 경우가 있음. 가령 기차풍속, 태아여지법, 순산법, 혼인례, 상장례, 상엿소리나 회다지소리(민요와 부합), 제례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춘천의 고유성과 특성을 띠면서 다른 지역과 변별력이 강한 항목을 선정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드러내어야 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춘천의 무속신앙과 소양강문화제 용연제 굿

- 춘천은 동해안과 남해안 등에서 성행하는 세습무와는 달리 강신무 형태의 굿이 행해짐. 이 굿이 소양강 문화제 때 '용연제'로 연행되는데 이는 춘천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여 굿판을 이룸. 조선조 지리지부터 최근 2004년에 조사된 자료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밭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 이 동제는 <천치국>이라는 신화를 가진 춘천 최고의 무형문화. 신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서낭화 화상, 장승과 소나무가 조화로운 장승숲, 밭치리의 특성을 담은 장승, 따오기 형태의 특별한 솟대, 돌탑, 거리제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랫말, 강원도민속경연대회 출품이력, 전국 유일의 주민이 참여하는 장승출 공연, 동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각종 연구 논문, 400년 이상의 역사, 정확한 이정 표기 등이 있었음
- 강릉 단오제보다 더 훌륭한 자원. 비록 장소를 옮겨 연행하고 있지만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만큼 그 가치가 크고 보전해야 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가리산 한천자 무덤과 기우제

-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는 각종 전설과 신화, 서낭제, 산신제, 기우제, 남근신앙, 무속신앙, 풍수신앙, 개인 지성 등으로 구현하는 춘천만의 특성을 갖는 민속의 보고(寶庫)임. 이 가운데 물로리를 민속 마을로 자리하게 한 것은 한천자 무덤
- 북산면 물로리 가리산과 한천자 무덤, 기우제와 그에 얽힌 신화와 전설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복합 신앙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음. 이를 잘 보전하여 춘천시 무형문화재로 키울 가치가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가정리 재궁동 산제와 거북놀이와 거리제

- 가정리 재궁동 산제와 거북놀이는 재궁동의 산신제와 거리제와 산신제를 놀이로 만들어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한 민속작품. 재궁동 산제 거북놀이는 재궁동 산제의 과정을 마당놀이로 만들어서 출품하였는데, 산제와 따르는 마을굿과 함께 전통적인 마을민속을 볼 수 있음. 산제와 거북놀이 후 가정3리 입구에 와서 거리제를 지냄
- 재궁동 산제놀이에는 향와 류중악 선생이 쓴 <재궁동민사축문>이 남아 있는 점이 특이하며 무형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상당하여 지원하여 보전이 필요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혼인의례 때 금기와 놀이

- 함팔기, 쫓봉치기, 과방단자, 부정방지(주당실, 솥뚜껑밟기), 신랑상잡기, 신방지키기, 신랑다루기 등이 있음. 이를 연계하여 마당놀이 또는 연극 형태로 꾸며서 연행방식을 취하는데 전통의 새로운 계승 형태로 볼 수 있음
- 혼인의례 때 행하는 금기와 놀이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생활 그리고 전통이 잘 드러나는데 무형유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음. 이는 비록 춘천만의 고유성이라 보기보다는 춘천에서 무형문화로 선점의 의미로 접근함이 필요함



자리걸이

- 후생점치기, 환토 등으로도 불림. 무당들이 영혼을 거두어 갈 때 자리걸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이가 후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는 전통적인 방법임. 자리걸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일생의 과정이 전생, 현생, 후생이라는 운회전생의 의식을 알 수 있는 형태임
- 우리의 전통적인 일생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가치를 대변하는 행위로 무형유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음. 다만 현재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이를 상례의 일반종속과 연계하여 무형유산으로 키운다면 사람들의 사후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긍정적 자세로 현실에 임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임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상문살, 상장례 금기

- 상문살은 아주 악한 주검의 귀신이 산 사람에게 씹어서 해를 끼치게 되므로 상가에 가지 못하는 사람과 매장(하관)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상장례에 임했음. 상문살에 걸리면 죽든 가 혼이 반쯤 나가거나 하여 애통 먹음. 그래서 상문살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을 하게 됨
- 육갑으로 봐서 무슨 생은 위험하나 상가나 매장(하관) 현장에 가지말라고 함. 또 손예다가 왕(王)자나 황(皇)자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고추가루를 지니고 갔다가 집으로 올 때 버리고 오기도 함. 집에 와서는 화장실에 들어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 악귀를 떨쳐 버림
- 간혹 상문살에 걸리면 곧바로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물이 언 풀아서 죽다고 함
- 명석을 달아놓고서 회다지를 하거나 굿을 해서 상문살을 떼어 버림
- 상문살은 상장례 종속여 끼여있는 춘천 고유의 무형문화로 만들기에 좋은 유산임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거리농경(소모는 소리)과 소짚

- 소를 이용한 거리농경과 소짚 등의 농경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통 지식 농경방식임
- 거리농경의 핵심 방식 중 하나인 소짚은 부족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단위의 자원 동원방식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해내는 효율적인 전통지식임
- 강원도에서만 불리는 거리 소모는 소리는 강원 지역의 지형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춘천감자(춘천재래, 자주감자) 재배와 저장 방법과 방식

- 춘천감자는 1970년대 이전까지 산간지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었는데, 전분 함량이 높아 조리용으로 적합하며 토종식품화가 가능함
- 감자는 부패가 쉬운 특성상 감자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방법이나 방식이 발달. 감자를 좀 더 오래 보관하려고 감자 전분을 추출하고자 감자를 썬하고 감자가루를 만들어내고, 그 감자가루를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전통 지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춘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토종 종자가 존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최근 춘천의 감자빵, 감자맥주 등 감자를 활용한 식품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춘천 감자 재배 방법과 저장방식을 활용하여 춘천 재래종과 감자 활용 가공식품을 연계해 춘천 감자의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복숭아

- 불로장생의 상징 과일로 알려진 복숭아는 춘천의 대표적 특산물 중 하나이며, 조선시대부터 복숭아 주산지로 유명하였음. 1611년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실린 도문대작에는 조선 팔도의 명물 토산품과 별미음식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 춘천은 황도의 주산지로 기록되어 있음. 여기에 강원대학교 후문 일대를 도화골이라 하였는데 이처럼 복숭아와 관련된 지명이 여럿 있음
- 춘천의 복숭아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으로 인해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춘천의 대표적인 복숭아 생산단지로 유명한 사암리에서는 복숭아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복숭아 재배의 오랜 역사성과 재배기술, 마을 축제를 연계하여 미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굴 육성 가능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의병주

- 가양주는 예부터 전해져 오던 조상을 모시고 손님을 맞는 집안의 대표 술로, 명가명주(名家名酒)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 각지 다양한 가양주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끊어진 우리 고유의 대표적 전통문화
- 다형히 고유류씨 가문에서는 남면 가정리에 터를 잡으면서 400여 년간 대대로 빚어 온 가양주가 전통방식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맛과 향이 뛰어나고 숙취가 없어 명주라 불릴만큼
- 고흥류씨 가문은 의암 류인석 선생을 비롯한 일가가 모두 의병항쟁을 실천하였으며, 남면 가정리는 대표적인 항일정신 고장으로 유명. 이러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의병주를 상품화하여 출시하고 있음
- 현재 전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주는 총 33개, 이중 국가무형문화유산 4개, 시도무형문화유산 29개이나, 도내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주가 전무
-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가양주로 '의병주'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의병주의 오랜 전통과 역사와 이야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춘천 아라리

- 아라리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불리는 전통소리. 특히 강원지역은 우리나라 아라리의 시원인 아라리의 자생 지역. 춘천도 아라리를 불렀던 지역이고 고유한 지역의 아라리가 존재하므로 발굴하고 전승 필요.
- 의병아라리와 춘천땃목아리랑은 춘천지역 아리랑의 일종. 차상찬의 개벽에 노랫말이 소개되었고 제2회 소양계 때 재현되기도 하였음. 울미의병의 의병아리랑과 춘천땃목아리랑 역시 발굴 재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음



춘천 전설

- 춘천지역의 전설 중 다음 세 가지의 전설은 춘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전설임. 청평사 전설은 청평사에 얽힌 다양한 지명과 전설로 춘천사람들의 향거 의식과 역사 인식을 알 수 있음
- 효자동과 거두리, 공지천과 퇴계동은 모두 지명과 인물이 함께 어우러진 전설. 이중 효자동 전설은 조선 후기 실재인물인 반회언이라는 효자와 연관이 있고 공지천은 퇴계 이황과 연관이 있음. 효자동 전설에서 실재 인물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거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시체의 목을 잘라와 어머니의 병환을 고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더 매력적임. 공지천에 짚을 썬어 넣어 공지천 공지어를 만든 이가 퇴계라는 전설은 무린개와 연결되어 재미와 흥미를 더해주고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춘천 놀이

- 춘천지역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다양한 놀이, 줄다리기, 농악, 차전놀이, 석전(패싸움), 쥐물놀이 등의 세시놀이가 있었음. 춘천의 특색을 보여주는 몇몇 놀이는 발굴, 계발되어 전국민속여성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소개
- 춘천 차전놀이, 우두산 소술외 놀이, 효녀 우레놀이, 장절공 도미장가놀이, 춘천의 봉의산제, 봉의산 삼밭기놀이, 춘천 신용연 용신제, 춘천 수려싸움, 춘천 의병행렬, 석파령 주막놀이, 소양강 뗏목, 춘천 생밭 장타령 등. 그런데 이 놀이 가운데 봉의산제, 용신제, 의병행렬 등은 놀이로 보기로 어려움



- 춘천 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 때의 기록에 의하면 참여한 인파가 수천명으로 전광과 후평으로 나뉘어 진행. 세시풍속 일종인 정월대보름 기풍계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풍습 중 하나. 현대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음

Chapter III

III. 무형유산 목록화 현황

1. 구전전통 및 표현
2. 전통적 공연 예술
3.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4. 한의약,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5.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지식
6. 의식주 등 전통 생활 관습
7.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구전전통 및 표현 / 전통적 공연 예술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목록

민요(12개)	설화(7개)	전통적 공연(1개)	전통적 놀이(8개)
밭가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뿔고내기, 미나리, 상사소리, 밭아 소리, 단허리 소리) 운상하는 소리 모다지는 소리 다리 불기하는 소리 숫자풀이하는 소리 아라리	청량사 연가설화 가리산 현천자 전설 난리 때마다 다시 태어나 는 장군 호자동과 거두리 공지전과 퇴계동 저절로 솟아오르는 묘	춘천 마을 농악	춘천 외바퀴 수레싸움 춘천 줄다리기 재궁동 신재 거북놀이 봉의산 축성놀이 춘천 의병 놀이 신용연 용신제 소양강 뱃목 우두산 스승놀이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목록

농경지식(15개)	어로지식(1개)	공예기술(2개)
춘천김치(춘천재래, 자주 감자) 재배 감자저장시스템 메밀 재배 옥수수 재배 및 활용 거리농경 방식과 소확 토종별 키우기 삼취와 삼지구엽초 홍홍이 논 은행나무 잎 친환경 물청 복숭아 재배 토마토 재배 연잎초 재배 및 건조 기술 영감 누에(잠업기술 의모초	가래나무를 활용한 고기 집어	춘천토 용기제작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부문



미국산 만드는 모습

통일시장에서 울릉이국수를 만드는 모습

의식주(23개)

- | | |
|--------------|--------------|
| 울릉이국(울릉이 국수) | 차례 지내기 |
| 의병주 | 입춘서 쓰기 |
| 막국수 | 오곡밥 먹기 |
| 닭갈비 | 부엌 재물기와 귀뱀이슬 |
| 쏘가리회 | 섬민두 볶아먹기 |
| 쏘가리매운탕 | 달맞이하기 |
| 질국수 | 달떡 먹기 |
| 익수산채떡반 | 취떡(숙떡) 볶아먹기 |
| 총떡 | 그네타기 |
| 모래무지떡 | 송편 빚기 |
| 강냉이술 | 차례 지내기 |
| | 뜰죽 먹기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목록

민간신앙(56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화산의 뽕아우 우두산의 솥물 피 합천의 고인돌과 성혈 대곡의 안택고사 사암리 가물떡 사암리 성주 오항리 신치성 사암리 어부승 가정리 삼신상 복숭이와 귀신가두기 가장2리 농바우 거리제 봉명1리 거리제 부귀리 거리제 사암2리 거리제 서상1리의 노래 월송1리 반송마을 거리제사 조양2리 밭치리 거리제 합천리 거리제 동내면 치내리 가우제 북산면 물토리 가리산 한홍 기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암리 신연강 백로주 가우제 조고2리 2반 산신제와 서낭제 조고2리 3반 산신제와 서낭제 추곡1리 산신제, 서낭제, 거리제 추곡2리 뇌골 신진제와 서낭제 오항리 무후제 강촌리 할골서낭당 거두1리 서낭제 봉명2리 서낭제와 거리희성 의암리 서낭당 산천리 서낭제 추곡2리 삼추곡 서낭제 가정리 재궁동 신제 덕두원 1리 신제 물포2리 산신제 사암1리 산신제 상갈1,2리 대동산 산신제 서면 덕두원리 산제당 안보1리 신제당 종리 금명산 산신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리 권명산 산신각 추곡리 추곡약수터 산신제 고성의 산천제사 방동1리 산천제사 월송1리 향천 마을 산천제사 청명2리 산막골 산제 또는 산천제 봉의산 순의비계해 내평리 수살제 동내면 사암리 굿당 송천의 무속신앙 북산면 칠성신앙 관천리 풍수신앙 월포리 풍수신앙 서면 방동리 풍수신앙 |
|---|---|--|

본지리 영송제

의례(22개)

- 가자물속
- 태아매지법
- 순산법
- 태치리
- 백일과 돌친지
- 관래미 개래
- 삼저육래
- 초래
- 혼인예 때 금기와 놀이
- 사짓법과 초혼
- 부고
- 부조
- 상례 일반
- 상장례놀이(삼여놀이, 진사 놀이)
- 자리놀이(후생정치기, 환포)
- 삼문날, 상향례금기
- 상여소리, 회다치소리
- 가정리 재래
- 무후제
- 여비이별행사, 경로친지
- 의암제
- 소양제

Chapter

IV

IV. 주요 무형유산 세부 현황

1. 물로리 기우제
2. 재궁동산제
3. 발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4. 의병주
5. 춘천거리농경

물로리 기우제

- 명칭 : 한천자 제사, 가리산 산신제, 물로리 서낭제, 한천자 기우제, 물로리 기우제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소재지 : 북산면 물로리 가리산 한천자 무덤과 가리산 산신각
- 전승자 : 물로리 마을 사람, 문주사 스님
- 역사 : 춘천 지리지 곳곳에 한천자 무덤에 얽힌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어 산신제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12년과 2018년 기우제를 지냈음
- 문화요소 : 물로리는 한천자 전설로 인해 한천자 마을로 부름
- 사회문화적 가치 : 가리산 한천자 제사와 산신제는 물로리 사람을 사회 문화적으로 묶는 역할
- 현재 상황 : 물로리는 비정기적 행사이고, 가리산 산신제와 한천자 제사는 매년 3월 3일에 거행하고 있음
- 계승방식 : 문주사 스님이 마을제사를 함께하고 심마니가 벌초, 물로리는 각 반마다 서낭제와 산신제를 병행하고 있음



재궁동 산제

- 명칭 : 재궁동제, 재궁동 산제, 가정3리 쟁골산신제, 재궁동 산신제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소재지 : 춘천 남면 가정2리 쟁골
- 전승자 : 가정3리를 주축으로 가정리 전체가 참여
- 역사 : 함와선생문집에 축문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됐음을 알 수 있음. 1986년 재궁동거북놀이로 마을대표 놀이로 승화
- 문화요소 : 거대한 당술이 있는 곳에 산제당이 위치해 제당의 품격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문화적 가치 : 쟁골 산신제를 통해 공동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 당술이 잘 보존되어 있음
- 현재 상황 : 3년에 한번 제사를 지냄, 끊어졌던 거리제가 복원되었음
- 계승방식 : 마을단위로 계승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함



발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 명칭 : 발치리 거리제, 발치리 장승제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소재지 : 동산면 조양2리 4반에서 전승되다 골프장 건설로 조양2리 본 마을로 옮겨 서낭제와 거리제를 지냄
- 전승자 : 조양리 사람들, 발치리장승제보존회
- 역사 : 오래된 문헌으로부터 발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시행 이야기가 <전차곡>이라는 제목으로 향유되어 왔음
- 문화요소 : 성황당, 당목, 장승숲 등 전통적 문화요소 다양하게 존재
- 사회문화적 가치 : 5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승돼 왔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음
- 현재 상황 : 서낭당복원과 함께 매년 서낭당과 장승이 있는 거리에서 마을제의를 이루어짐
- 계승 방식 : 조양2리 전체가 중심이 되어 전승, 발치리장승제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제의를 치름



의병주

- 명칭 : 의병주 고흥류씨 제주(祭酒)
- 영역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소재지 : 춘천 남면 가정리
- 전승자 : 서영숙, 의병제주보존회(고흥류씨 집안 며느리들)
- 역사 : 1967년 시어머니에게 전수를 받아 제사술로 직접 담글, 유인석 의병대장 순국 100주년 기념 의병주 상품화
- 문화요소 : 1년에 1,500병 정도가 완판될 정도로 민기가 많음
- 사회문화적 가치 : 의병항쟁을 실천한 가문에서 대대로 빚어온 가양주로 명주라 불릴만큼
- 현재 상황 : 의병제주보존회원들이 70세 이상 연로하여 향후 전승이 어려운 상황
- 계승 방식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승, 의병제주보존회를 통해 계승. 연로하여 향후 지속적 계승이 어려운 상황



춘천거리농경(소모는 소리와 소쩍)

- 명칭 : 춘천거리농경(소모는 소리와 소쩍)
- 영역 : 한의약, 농경어로동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 소재지 : 동산면 봉명1리, 북산면 풀걸리
- 전승자 : 김민영, 김호성
- 내용 : 춘천은 소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역사 발달. 거리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소쩍이라는 노동조직을 활용. 비탈이 심한 화전밭을 많이 경작.
- 문화요소 : 소모는 소리를 비롯하여 정기만드는 기술, 소쩍을 맺는 방법 등 다양한 문화요소를 포함
- 사회문화적 가치 :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지식
- 현재 상황 : 거리농경이 약화되어 전승이 곤경 상태
- 계승 방식 : 아직은 소모는소리와 방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복원이 가능성이 있음



Chapter V

V. 춘천시 무형유산의 미래가치

1. 문화유산 개념 이해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3.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활용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변화와 이해

-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 범주화하여 그 개념을 공적으로 확대
- 문화재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였다면 유산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계승 형태의 문화로 그 범위를 확장

▶ 국가 유산 체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문화유산의 개념을 반영한 제도 도입 필요

미래 유산 제도의 개념

-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제도권 관리 문화재를 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치가 있는 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
-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주시, 부산시, 파주시 등이 미래유산제도 시행
- 미래유산은 지정 등록문화재와 비지정 유무형 유산 모두 해당. 미래유산보전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 및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변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비지정 문화재로 시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산 중에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으로 이를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향토문화유산 조례에는 지자체 주도로 되어있지만 기존 문화재 제도에 준하는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민이 주된 주체가 되는 미래유산제도와는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향후 보완 필요
- 주민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유산과 시기적으로 근현대 유산까지 포함하여 그 인정 범위와 시대 범위를 확장 필요(예, 미래 유산으로서의 춘천 닭갈비)
-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 문화유산에 담긴 보존 가치와 활용 가치를 중시하는 인식 변화도 뚜렷.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에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발굴과 함께 미래 활용 방안 해법 모색 요구.
- 타 지자체 운영 미래유산제도의 경우 안정적 제도 정착이 미흡한 한계가 있어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춘천시 실정에 맞는 내용 구축이 필요. 시민과 공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지속적 확산 필요.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 지역정체성 발굴

- 춘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정체성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내야 함
- 밭치리 장승제의 경우 <전치곡>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장승, 장승숲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승 요소를 지니고 있어 그 가치가 높음

■ 복합문화유산 발굴

-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함께 다루고 기억과 장소가 결합된 복합유산을 발굴하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음
- 물리리 한천자 제사 및 기우제는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큼. 한천자 무덤과 신목, 제당 돌탑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산신제, 거리제, 기우제 등 다양한 제의가 함께 이루어져있음.

■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전승 주체 지원 방안 필요

- 전승 주체가 안정적으로 전승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 자원 기반 마련 필요.
- 의병주의 경우 전승 의미가 남다르지만 전승 주체가 모두 고령이라 지속적 계승이 어려운 형편
- 겨리농경문화는 효율적 전통지식으로 그 중요성이 있지만 전승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활용

■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구상

-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하여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함

■ 지구지정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 마을 또는 지구와 같이 공유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을 묶어 관리하는 방안 모색과 필요.
- '가정리 의병마을 무형문화유산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의병의 본산지로 고흥류씨 가문의 가양주인 '의병주'와 함께 재궁등 산제, 재궁등 거북놀이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유

- 역사문화정비권과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마을신앙기록화 사업과 마을 신앙백서 제작

- 마을신앙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잘 반영한 사회 의식으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춘천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신앙백서 제작시,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 용이

■ 지역화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 지역화 교재 개발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체계적 기록화를 한 후 지역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
- 춘천학연구소와 춘천시청, 춘천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지역화 교재 개발. 2023년에는 춘천닭갈비를 주제로 유아 지역화 교재 개발. 이 교재는 이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함.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3발표

“화서학파의 학풍과 유인석 문명관의 특징”

이 경 구

한림대학교 도원학술원 한림과학원장

화서학파의 학풍과 유인석 문명관의 특징 - ‘碩果不食’과 ‘中行獨復’을 중심으로

이 경 구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한림과학원장)

1. 조선 후기의 ‘조선중화’인식과 19세기 화서학파의 시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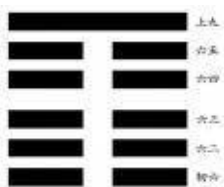
- 유학의 이론 체계는 형이상학/존재론(이기심성론), 수양론, 경제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인간-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이 이론들을 통해 유학자들은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과 바른 처신에 대한 답을 구한다. 공자의 말씀대로 ‘도가 행해질 만한 세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출사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처신을 정한다. 위기의 시대라면 거의擧義해야 하는지, 자정自靖해야 하는지를 정하기도 한다. 실천을 위한 지침을 구하는 이론을 굳이 표현하면 ‘의리론’이다. 의리론은 유교 문명의 역사 안에서 현재의 시공간을 정위定位하고 개인의 삶을 설정한다. 대체로 ‘시세관時世觀-의리관’이며, 이를 보증하는 경전은 『주역』과 『춘추』이다.

- 17세기 중반 병자호란과 명·청 교체란 역사적 사건 후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존주론尊周論에 입각한 독특한 ‘조선중화주의’를 전개하였다. 명의 멸망과 ‘오랑캐 세상’(청의 중국 지배)에서 조선이 유교의 명맥을 간직하였고 미래를 위한 보루가 되었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인식은 송시열과 노론이 강하게 주창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춘추시대 공자와, 남송시대 주자의 정신을 계승하여 의리의 정맥을 유지했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19세기 후반의 위정척사 계열의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화서학파에서는 공자-주자-송시열을 이어 이항로를 의리의 정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많이 연구된 바이다.

- 발표자는 19세기 위정척사의 최대 학파였던 화서학파(이항로, 김평묵, 유중교, 최익현, 유인석) 등의 문헌에서 이같은 의리론을 확인하였지만 그 한편에 18세기와 달라진 점들도 발견했다. 그들이 처한 시공간은 유교문명의 명맥을 부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명권 자체의 소멸이 점차로 현실화하는 단계였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감은 더 광대한 스케일의 이론에서 추론되는 당위성이 필요했다. 그들은 역학易學에 더 의지했고, ‘어두움과 어려움[陰]’의 시공간에서의 유학자-군자의 실천을 제시해야 했다. 그들의 『주역』 박괘剝卦의 碩果不食과 복괘復卦의 中行獨復의 사용례가 이를 보여준다.

참고> 석과불식과 중행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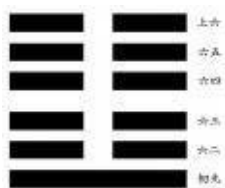
석과불식은 주역 剝卦에서 출전



박괘는 초효(初六)부터 5효(六五)까지 음효이고, 상효(上九) 하나가 양효임. 음이 자라나 양을 소멸시키는 위기와 절망의 추세. 그러나 남아 있는 마지막 양의 효는 존재는 큰 책임을 나타냄.

박괘 上九의 爻辭는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큰 과일이 먹히지 않는다.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문다)”임. 마지막 남아 있는 먹히지 않는 과일이 바로 양이고 종자가 되어 훗날을 다짐하는 군자와도 같은 역할.

중행독복은 주역 復卦에서 출전



복괘는 박괘와 반대이다. 초효(初六)는 양효이고, 2효(六二)부터 6효(上六)까지가 음효이다. 음이 자라남을 멈추고 이제부터 양이 자라나기 시작함. 박괘가 절망과 위기에서의 지키는 책임이라면, 복괘는 새로운 희망 안에서 미약한 양기를 소중히 길러야 함.

복괘 六四의 효사는 “中行獨復(가운데에 행하여 홀로 회복하다)”임. 음효의 중간에 위치하였지만 바르게 행하여[中行] 홀로 회복하는 것이다. 도를 홀로 행하는 군자의 능동적 역할을 잘 보여줌

- 석과불식은 나빠지는 상황 안에서 도를 간직한 군자의 책임을, 중행독복은 미약하지만 점차 개선되는 상황 안에서 도를 길러내는 군자의 역할을 상징한다. 음으로 가득하다는 현실 판단은 다르지 않지만, 위기에서 수세적으로 지키는 석과불식의 국면과, 희망을 향하여 준비한다는 중행독복의 국면은 상황의 전환을 보여준다. 화서학파에서는 춘추의리에 기초한 존주대의를 계승하면서, 석과불식과 중행독복으로 대표되는 시세 인식을 더해 자신들이 처한 시대가 음이 치성한 시대에서 최후의 양을 담지한 이들이 해야 할 당위적 책무를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의리관 뿐만 아니라 시세관을 더하여 자신들의 처신을 보강한 것이다.

- 그러나 19세기 중후반 서양/일본에 대한 위기감의 증폭, 1905년을 전후한 일본의 조선 병탄 현실화, 1910년 이후 국망과 중국의 정세는 모두 큰 시세의 변화였다. 각 시점에서 화서학파의 시세관은 미세한 변화나 조정이 없을 수 없다. 1915년까지 생존했던 유인석이 이 변화를 보여준다.

- 본 발표는 박괘의 석과불식과 복괘의 중행독복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용례 개관, 화서학파의 용례 특징 그리고 화서학파 중에서도 유인석의 특징으로 좁히면서 살펴보려 한다.

2. 석과불식, 중행독복 분석

(1) 사용 횟수, 사용자

- 『한국문집총간』에서 ‘석과불식’을 검색하면 총 151건이 검색된다. 그 중 시기를 알 수 없는

1건을 제외한 150건의 세기별 사용 횟수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세기	14	15	16	17	18	19	20
사용자 1	이색(1)		박순(1) 임제(1)	송시열(2) 박세채(1) 이민서(1) 한태동(1)	안석경(2) 황윤석(2) 김종덕(1) 박윤원(1) 이인상(1) 임정주(1) 황경원(1) 황윤석(1)	김평목(9) 유종교(3) 박성양(3) 조병덕(2) 권진(1) 박규수(1) 송달수(1) 송진봉(1) 유신환(1) 이승보(1) 이유원(1) 임헌희(1)	
사용자 2			김덕겸(1) 신흙(1) 심지한(1) 유원지(1) 이준(1) 이흘(1) 하홍도(1) 황섬(1)	이만부(2) 권두경(1) 김간(1) 김창흡(1) 서성구(1) 신유한(1) 신익항(1) 윤증(1) 이간(1) 이이명(1) 이현일(1) 이희조(1) 조관빈(1) 조태억(1) 채지홍(1) 한여유(1) 홍수현(1)	이항로(6) 성해응(5) 윤행임(5) 기정진(2) 정약용(2) 홍양호(2) 홍직필(2) 강필효(1) 변종운(1) 윤종섭(1) 이만수(1) 이장찬(1) 정상리(1) 정재경(1) 정종로(1) 홍경모(1) 홍석주(1)	기우만(8) 최익현(6) 송병선(5) 김택영(3) 전우(3) 정재규(3) 곽종석(2) 서찬규(2) 송근수(2) 송병순(2) 이승희(2) 송증현(1) 유인석(1) 이남규(1) 이수형(1) 한운성(1) 허유(1)	

- 『한국문집총간』에서 ‘중행독복’을 검색하면 총 53건이 검색된다. 그 중 중복 1건을 제외한 52건의 세기별 사용 횟수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세기	14세기 이전	15	16	17	18	19	20
사용자 1	최해*(1)		이황(1)	조복양(1)	황경원(2) 권병(1) 김근행(1)	김평목(9) 유종교(3) 송진봉(1)	
사용자 2			심지한(1)	강박(1) 권중도(1)	정약용(3) 성해응(2) 윤행임(1) 홍석주(1) 홍양호(1)	전우(7) 유인석(4) 기우만(3) 최익현(3) 곽종석(1) 권재규(1) 송근수(1) 정재경(1)	

*최해 : 1287~1340

- 화서학파(화)와 위정척사(위) 유학자의 ‘석과불식’, ‘중행독복’ 사용

	18~19	19	19~20
석과불식	이항로(6)화 기정진(2)위	김평목(9)화 유종교(3)화 박성양(3)위 조병덕(2)위 송진봉(1)화	기우만(8)위 최익현(6)화 송병선(5)위 김택영(3)위 전우(3)위 정재규(3)위 곽종석(2)위 서찬규(2)위 송근수(2)위 송병순(2)위 이승희(2)위 송증현(1)위 유인석(1)화 이남규(1)위 이수형(1)위
중행독복		김평목(9)화 유종교(3)화 송진봉(1)화	전우(7)위 유인석(4)화 기우만(3)위 최익현(3)화 곽종석(1)위 권재규(1)위 송근수(1)위 정재경(1)위

- 석과불식과 중행독복의 사용은 17세기부터 시작하여 19세기~20세기 초반에 왕성했다. 화서학파 또는 위정척사 유학자들의 석과불식 비율은 45.3%이다. 화서학파 또는 위정척사 유학자들의 중행독복 비율은 65.4%이다. 당대를 음이 치성한 시대 즉 유교를 중심한 문화 기제, 문명권이 흔들린다는 판단이 19세기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 위기감에서 화서학파, 영남의 퇴계학파(곽종석, 이승희 등), 기타 유학자(기정진·기우만, 송병선 등) 등은 학파의 차이를 넘는 동일한 시세 인식을 보였다.

(2) 석과불식, 중행독복의 용례

- 당연한 말이지만 『주역』의 해설에 등장한다.
용례는 생략
- 개인/집안의 학문,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다수이다.

기정진(1798~1879)의 「慶州金氏世譜序」의 석과불식

별열 집안은 그 당세에는 남에게 미친 공리功利가 있었고, 그 후세에는 자손에게 남긴 법도가 있었다. 발발한 근원이 멀고 심어진 뿌리가 튼튼하므로 불행하게 꺾이더라도 마침내 '큰 과일은 먹이지 않으니' 당연히 수재를 기르고 큰 선비가 나는 것은 故家의 후손에게서 많이 나고, 下戶의 선비들에게서는 보기가 드물다.⁸⁶⁾

영남의 유학자 김낙행(1708~1766)에 대한 권병이 지은 제문에서의 중행독복

아아, 퇴계 선생이 우리의 유학을 집성했는데	猗嗟陶翁 集成東魯
전수함이 오래되자 날로 조잡해졌습니다.	授受既久 日趨魯莽
높은 자는 허황하고 낮은 자는 입으로만	高者廣蕩 陋則口耳
저렇게들 분분한데 누가 보루가 되었겠습니까.	比彼橫奔 孰峙其壘
우뚝하다 선생이여 <u>가운데서 행하여 홀로 회복했도다.</u>	卓哉先生 中行獨復 ⁸⁷⁾

- 암울한 시세에서 의리를 지키는 책임을 표현하였다.

1818년에 홍직필(1776~1852)이 여행하는 강주흠을 송별한 글 - 청이 중국을 차지한 지 200년에 달하는 시점임에도 음이 성행한 세상에서 존주의 의리를 고수하거나 중국에서 이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오늘의 세계는 아득하게 긴긴 밤 속으로 다시 들어가 책을 읽는 종자가 그 사이에 겨우 면면히 이어지니, 저 중국의 궁벽한 산과 먼 바다에 응당 머리를 깎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 죽음으로 지키면서도 도를 잘하는 선비가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九野가 달혀 추운데도 양의 덕이 매우 빛나고 風霜이 숲을 상하게 하는데도 큰 과일이 먹히지 않는 것과 같으니, 漢의 국운이 증흥하는 조짐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⁸⁸⁾

1907년에 전우(1841~1922)가 『女四書』에 지은 글

내가 근년에 세상의 형세를 보니 오랑캐의 화가 하늘을 삼키고 예교가 땅에 떨어져 相鼠와 有狐⁸⁹⁾의 풍속으로 달리듯 이르러 사람의 도리가 가리워졌다. 이제 이 책을 보니 마음과 눈이 확 트인다. 중행독복하는 현명한 여인들이 있어 漢廣의 노래하는 아름다움이 二南의 교화에 기틀이 됨⁹⁰⁾이 없을 것이라고 어찌 알겠는가. 이것을 세상에 바랄 뿐이다.⁹¹⁾

3. 화서학파의 특징

(1) 존주를 계승하는 석과불식

86) 기정진, 『蘆沙文集』 권17, 「慶州金氏世譜序」, “閭閻之家, 其當世耶及人者, 有功利焉. 其後世耶貽孫者, 有典則焉. 發源遠植根固, 雖不幸摧剝, 終是碩果不食. 宜乎毓秀產彥, 多在故家遺承, 而鮮覲於下戶編庶也.”

87) 김낙행, 『구사당속집』 권4, 부록 「祭文-權炳」.

88) 홍직필, 『梅山集』 권27, 「送姜文老遊燕序-戊寅」, “今日域中, 重入於長夜漫漫之中, 而讀書種子, 綿延於其間, 窮山絕海, 應有頭不剃心不易, 守死善道之士. 正如九野閉寒而陽德孔昭, 風霜剝林而碩果不食, 漢祚中天之兆, 其在斯乎? 其在斯乎?”

89) 상서와 유호는 시경의 편명이다. 상서에서는 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것을, 유호에서는 소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을 풍자하였다.

90) 원문은 ‘漢廣詠歎之美, 以基二南之化’이다. 한광은 시경의 편명이다. 한광편은 문왕의 교화를 후비 太姒가 도운 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남은 시경의 주남과 소남편이다. 모두 문왕와 태사의 덕을 노래하였다.

91) 전우, 『良齋集-前編』 권16, 「敬題女四書後-丁未」, “愚觀近年宇內之勢, 夷禍滔天, 禮教掃地, 駸駸至於相鼠有狐之俗, 而人道廢矣. 今得此書, 以喚醒人心目, 亦安知無中行獨復之哲媛, 而進於漢廣詠歎之美, 以基二南之化也乎? 是所望于世爾.”

- 이항로(1792~1868)가 본 문명의 위기와 군자의 역할

「周易傳義同異釋義上」(『화서집』 권29)의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에 대한 견해 : 이항로는 명말의 시대에 송시열 등을 석과불식의 증거로 봄. 이는 조선후기 이래의 존주의리와 석과불식의 논리를 계승한 것임

요임금 때에 홍수가 천하를 삼켰을 때 우와 직이 치수함. 전국시대에 邪說이 횡행하고 난신적자가 이어질 때 공맹이 이들을 물리침. 五代의 말기에 노불이 횡행하니 程朱가 일어나 정통을 지킴. 명나라가 망할 때 천하가 어지러우니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존주의리를 지킴⁹²⁾

- 이항로의 수제자 김평목(1819~1891)과 유중교(1832~1893)는 서양/일본의 압력과 개항 등의 시대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우리의 역할(조선, 이항로)을 석과불식의 공로라고 함.

김평목 등이 1876년에 개화를 반대하는 장소

병인년과 신미년에 저들의 배가 우리를 침범함에 온 나라가 놀랐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오랑캐를 물리쳤음. 천지에 음이 번성하였으나 동쪽 우리나라는 석과불식과 같음.⁹³⁾

유중교의 이항로 평가

일찍이 주자와 송자(송시열)는 저마다 맞닥뜨린 변고에 따라, 각자의 설을 넓히고 깊이 숨어 있는 뜻을 파헤쳐 겉으로 드러냈다. 최근 서양의 나쁜 자들이 온 나라에서 괴상한 짓을 하자, 또 우리 선사이신 이선생(이항로)께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위정척사'를 행하시어 여러 성현의 뒤를 이었다. ...(연마하여 이항로를 계승하면) 안으로 석과불식의 象에 대응할 수 있고, 밖으로 맹호재산의 형세를 감당할 수 있다.⁹⁴⁾

-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시세를 더욱 어둡게 함. 최익현(1833~1906)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래의 일련의 사건을 들어 박괘의 석과불식이 아니라 순음인 곤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함

최익현이 1898년에 올린 장소

박괘는 여러 陽은 소멸되고 상구上九만이 양효여서 석과불식의 형상과 같으니, 만일 상구의 양효마저 소멸되면 순전한 음인 坤이 되는 것입니다. 곤의 세상이 되면 천하에 陽

92) 이항로, 『華西集』 권29, 「周易傳義同異釋義上」,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 戰國之時。邪說橫流。亂臣賊子。接跡於世。向无孔孟作而闢之。則人爲禽獸久矣。五季之末。道喪言湮。老佛之說。充拓于世。向无程朱起而明之。則人而夷狄久矣。崇禎之末。天下腥羶。向无我東先輩出死力闢之廓之。人不知尊周久矣。”

93) 김평목, 『重菴集』 권5, 「代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情迹。仍請絶和疏。丙子正月。疏首洪在龜」, “逮至丙寅辛未。彼舶突逼我境。相持閱月。舉國洶懼若不保朝夕。而殿下克紹二聖之家法。戰守誅鋤之外。了無他意。卒令賊船。狼狽退去。匡域含生。莫不欣聳。以爲天地窮陰。而我東一隅。如碩果不食。聖明之力也。雖謂之有辭於天下後世可也。”

94) 유중교, 『省齋集』 권32, 講說雜稿, 「甲申重修講規後告同講諸子文」, “朱宋二夫子盖嘗各因所值之變, 張大其說而發揮之。至於近日洋醜之騁恣宇內, 則我先師李先生又捨性命而衛斥之, 以承羣聖賢之後。… 其守乎內者。足以膺碩果不食之象。捍乎外者。足以當猛虎在山之勢也。”

이 없어서, 여우·삼·솔개·올빼미·도깨비의 따위로 어떤 것이 없겠으며 어떤 괴이한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명 나라가 멸망하고 천하의 막힌 운세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만이 중화의 전장을 보존하니 이는 박괘의 상구 효의 석과불식임. 불행히 왜놈과 洋人들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문호를 개방하고 저들의 사학을 전파하고 결국에는 변고가 겹쳐 일어나 심지어 황후를 시해하고 머리를 깎는 데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⁹⁵⁾

(2) 희망은 있는가? 최익현과 유중교의 희망

최익현 곤괘의 상황은 바뀔 수 있는가? 천심 회복을 바램

명 나라가 망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박괘 上九의 碩果不食의 象과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늘이 재앙을 내려서 더러운 왜인과 양인들이 온 나라 안에서 괴이한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니 ... 금년 8월과 11월 15일의 변(*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온 나라의 신민을 모두 亂賊의 죄과에 빠지게 하여 천하 대계에 미세한 양기도 불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 더 이상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천도가 영원히 가 버리는 이치는 없고, 인심은 반드시 돌아올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天心이 바뀌어 선악과 화복이 각기 類派에 응하게 되면, 아마도 오늘날 의기양양하여 스스로 오래되어도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대낮의 도깨비처럼 용납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⁹⁶⁾

유중교는 「낙서대연국도洛書大衍局圖(낙서를 확장한 국면의 그림)」에서 ‘가운데 형국[中局]’인 5의 자리에 위치한 군주 또는 세도를 책임진 선비가 어디서든지 도를 회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을 피력함

한 시대의 천자는 참으로 한 시대 제후 나라의 표준 ... 中局의 가운데 자리와 같다. 한 시대의 천자가 된 자가 이 형상을 깊이 체득하여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다스려 요 임금과 순 임금을 본받으면 고금에 어찌 혼란을 돌려 태평성대로 만들지 못할 세상이 있겠는가? ...

(질문 : 군주에게 항상 기대할 수는 없으니 만약 그 아래에 위치한 선비가 세도의 책임을 질 경우 일반인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으니 어찌 하는가?)

중정의 도리를 안에 지키는 것은 또한 어디든지 퍼지 못할 데가 없다. 『주역』에서 이른바 ‘세상 따라 변하지 않고, 중도를 행하여 홀로 회복한다.[不易乎世 中行獨復]’는 것이

95) 최익현, 『勉菴集』 권4, 「辭議政府贊政疏-再疏 - 戊戌十月初九日」, “夫剝之爲卦。衆陽剝盡。而上九一爻如碩果不食之象。若並此而剝。則爲坤矣。當坤之時。天下無陽。狐狸鴟梟魑魅魍魎之屬。何物不有。何怪不生。… 自皇明屋社。滿虜之汗穢中原。今已二百有餘年矣。天下極否之運。蓋莫有甚於此者。而于時我東。獨保華夏之舊章。衣冠禮樂。庶幾有三代之風。是以中原義士之馳誠我國者。至于今不衰。是不啻如剝九碩果之象矣。不幸一種倭洋之醜。乘時騁恣。欲大同宇內。而當時主事之臣。無深識遠慮。既已開門而納之矣。又不能明定約條。使恣行其廣教傳學之計。畢竟禍敗到頭。變故層生。至於弑后剃髮而極矣。”

96) 최익현, 『勉菴集』 권14, 「擬答俞吉濬-乙未十二月七日」, “而及夫神州陸沉以後。則又如剝九碩果不食之象矣。不幸天不悔禍。一種倭洋之醜。騁恣宇內。… 至有今年八月及十一月十五日之變。遂使舉國臣民。盡陷爲亂賊之科。而天下大界。不復有微陽之可寓。嗚呼。尚忍言哉。雖然。天道無長往之理。人心有必返之期。若一朝天心改悟。善惡禍福。各以類應。則竊恐今日之揚揚得意。自以爲萬年無敗者。舉皆如白日之魑魎。無可容之處矣。”

바로 이것이다. ...

형국의 변화는 때에 따라 변하지만 중심을 향하는 것은 한결같다. ... 어찌 중정의 덕을 가진 선비의 중행독복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바깥의) 여덟 개의 5는 질서정연하게 열을 이루고 머리를 모아서 안을 향하고 ... 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 중궁에 조회하는 형세가 있다. 이것이 중행독복일 뿐만 아니라 ... 아홉 자리 속에서는 가운데 자리가 가장 귀하므로 바르지 못한 자가 들어와 거처하더라도 역시 전체 형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홉이라는 수에서는 5가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자리를 떠나 아래에 있더라도 역시 그의 중정한 덕을 잃지 않는다. 오직 중정한 덕을 잃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시 전체 형국을 굴리는 이치를 가진다.



참고 > 유종교의 「낙도대연국설」이 실린 「하도낙서설」

하도는 하늘과 땅이 개벽하여 인간 세상의 일이 처음 어슴푸레할 때에 나타났는데, 늘어세운 숫자에는 홀수와 짝수가 서로 엇갈려 배열된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를 본받아 《역》을 지어 開物成務의 응용[用]을 다하였다. 洛書는 땅이 평평해지고 완성되어 위엄과 교화가 사방으로 미칠 때에 출현하였는데, 만들어진 자리에는 中과 外가 서로 감응하는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를 본받아 법을 만들어 표준을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는 體를 드러내었다.

하도의 전개 - 홀수와 짝수가 처음 나누어지는 형상(奇偶肇判之象) / 두 개의 홀수와 두 개의 짝수가 나뉘어 펼쳐진 형상(二奇二偶分布之象) / 숫자 5가 중앙에 자리를 정한 형상(五數定位中央之象) / 숫자 열 개의 자리를 전부 갖추어 모은 형상(十位大全之象) / 하늘과 땅이 서로 끌어안고 사람과 만물이 함께 길러지는 형상(天地交抱人物並育之象) / 사철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짝을 짓는 형상(四時始終相配之象)

낙서의 전개 - 음양이 정과 우에 나누어 놓인 음양정우도(陰陽正偶圖) / 오행이 역행하고 상

극하는 오행역극도(五行逆克圖) / 사람이 천지의 마음인 인위천지지심도(人爲天地之心圖) / 군주는 만민의 표상인 군위만민지표도(君爲萬民之表圖) / 낙서를 확장한 형국인 낙서대연국도(洛書大衍局圖)

4. 유인석(1842~1915)의 시세관

(1) 1890년대~1908년 국내 활동 시기

- 1896년의 상소에서 ‘공자와 맹자의 2000년의 道脈이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어 마치 석과불식의 형세와 같다’⁹⁷⁾고 했다. 또 1893년에 유증교의 영정을 모신 主一堂을 세울 때 ‘성학을 전수받아 천하의 종사가 되었고 時變에 의로 대처하여 존양위척하여 공자-주자-송시열-이항로를 이어 천지의 마음을 세운 것이 중행독복의 우뚝함’이라 하였다.⁹⁸⁾

1890년대까지 유인석이 조선이 유교의 명맥을 간직한 석과불식 또는 중행독복의 역할이었음을 말한 것은 이항로 이래의 화서학파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

- 1905년을 전후하여 유인석 등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했다. 예컨대 1904년만 해도 ‘바야흐로 오랑캐짐승(夷獸)의 형세가 맹렬하여 하늘과 땅을 삼킬 정도이지만, 이럴 때 중행독복하여 文會를 결성한 것은 별이 소생하는 陽春의 소식’이라 하여 기대를 표하였다.⁹⁹⁾

그러나 1905년의 진단은 사뭇 달라졌고 당혹감이 느껴진다.

아아, 음양이 屈伸反覆하여 천하에는 일치일란이 있는데 오늘에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였다. 중국이 침체되어 큰집은 소란스럽고 우리나라가 홀로 예의의 바른 곳으로 마치 석과불식과 같았지만 아울러 그 상처를 입었다. 도도한 인심은 대다수가 못되고 방탕해져서 오랑캐를 따르느니라 향상된 정리에 반하고 바른 이치를 잃으니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¹⁰⁰⁾

(2) 1910년대 중국에서의 인식 변화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인석은 1908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망명하였고 연해주, 간도 등지에서 무장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 대한제국은 망하였다. 망명과 국망은 그의 시세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12년 간도에서 망명한 유학자들이 세운 ‘宗華契’에 대한 서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97) 유인석, 『毅菴集』 권4, 「西行時在旌善上疏 丙申五月」, “二千年孔孟道脉。寄寓於吾東一邦。有如碩果之不食。顛木之曳檟。先王所以傳之者如此其重。而保之者如此其艱。”

98) 유인석, 『毅菴集』 권43, 「柯亭主一堂重修記」, “是皆聖學傳授要道。而先生得之蔚然爲天下宗師。回想其爲時變處義。尊攘衛斥。有繼孔朱夫子尤華二翁大義。而立天地之心。卓然爲獨復中行。”

99) 유인석, 『毅菴集』 권41, 「定州堂山文會契序」, “方一天之下。夷獸馳逐成會撲地。形人者滅却聖學。友道會同于彼。彼之勢火烈而波洶。燔穹而滔天也。于斯時也。中行獨復。理會曾朱二夫子之訓而爲有此事。陽春消息。不以他求也。惟在事之誠不誠如何矣。”

100) 유인석, 『毅菴集』 권43, 「向陽齋記」, “嗚呼。陰陽之爲屈伸反覆。而天下之有一治一亂。亂至今日而極矣。中原陸沉。大宇擾攘。我東之獨爲禮義正邦。如不食碩果者并被其剝。滔滔人心。舉皆陷慝溺淫。趨夷赴獸。反乎恒情而失正理。吾不知其何故也。”

- ① 조선에서 중화의 예법과 문물을 간직하여 석과불식의 도리를 지킨 것이 실로 다행.
...
- ② 오랑캐에서 금수가 된 일본이 중화의 명맥을 없애 중화의 의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짐.
- ③ 뜻있는 선비들이 오랑캐금수夷獸를 피해 '중화를 대종으로 삼는 계'를 조직. 중화가 어느 때인들 대종大宗이 아니겠는가마는 오늘날 더욱 높이지 않을 수 없음. 중화가 가장 시급. ... 중화의 명맥이 종화계에 기반하여 발하여 천지에 드러나 중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임¹⁰¹⁾

국내에서 유교 문명의 희망을 말할 때와 중국으로 넘어가고 국망을 맞이한 후에는 시세가 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간 것은 중화의 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국망은 유교 문명을 지킨 一陽의 道脈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화의 공간에서 大宗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고 시급해졌다.

마침 중국은 1911년의 신해혁명, 위안스카이와 쑨원의 일시 연합 그리고 공화국인가 아니면 복벽의 경로(대총통-황제)인가의 기로에 있었다.

한국에서 건너간 유학자들에게 복벽의 경로는 중화 재현의 가능성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었다. 종화계 서문이 그 단초를 보여주었다.

- 『우주문답』(1913)의 시세관

『우주문답』은 유인석 만년의 노작이다. 문답 형식의 40조목을 통해 그는 유학의 이기론, 시세론, 윤리론, 東道西器와 中體西用의 절충론 비판, 서양의 자유·평등 개념 비판, 왕정 옹호와 공화정 비판, 서학의 제한적 수용, 일본의 중국 병탄 비판, 중국과 조선의 상호 부조, 단군에 대한 강조, 중국 중심의 새로운 대일통 건설 등을 전개했다.

『우주문답』 처음에 천지 운세로 시작하여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 시세를 논하고, 「낙서대연국도」를 부록으로 실어 마감한 것은, 유인석이 만년까지 易學에 기초한 시국의 변화를 사유의 핵심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발표자가 보기에 본문의 결론은 『주역』의 복괘가, 기존처럼 영원이 아니라 이제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① 조선은 소중화였음. 지금 조선이 망극해져서 석과가 다 먹혔음. 아아 천심이 어찌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다.
- ② 그러나 하늘에는 씩없는 도리가 흐르고 양이 다하는 이치는 없다. 박괘가 다하면 복괘가 다시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 박괘가 소중화에서 다했으니 다시 근본에서 환원

101) 유인석, 『穀菴集』 권42, 「宗華契序」, “中華道脉. 此獨存焉. 禮樂政典. 崇述唐虞三代. 使其遺法不泯. 道術文章. 專尙孔孟程朱. 使其餘緒不墜. 家而成俗. 人而爲習. 數百年間. 表表可觀. 顛木之有粵孽. 碩果之爲不食. 斯其象矣. 實天地奇幸之事也. …… 今夷狄之降獸者極焉而無我國也. 獨存中華之脉. 因無所寄著. 嗚呼不忍言也. 天地間事. 不知將如何也. 國中有志節之士. 避夷獸之禍. 多出疆守義于清北墾地方. 有立宗華契. 盖以無萬古以來中華之爲道. 何時而不宗. 在今日. 尤不可以不宗. 宗華之外. 宜無他事也. 噫. 得孔子之大義. 窮天地之常經也. 古今之有契. 無此契之爲大. 契誠不可以已也. 謂此契可已者. 棄大義反常經. 獻媚夷獸而無人心者也. 凡事可戒有名而無實. 有始而無終. 於此立契. 有實有終. 中華之脉. 安知不基此而發. 著之天地之間也. 復中華天地之所心也. 立契而立人心. 立人心而立天地之心. 深有望於契中之衆君子也云爾. 永曆二百六十六年壬子季夏瀛洲柳麟錫序.”

하여 복괘가 대중화에서 생겨서 천둥이 치고 빛이 천하에 퍼져

③ 중화가 회복하고 다시 그것이 동점하여 소중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바라는 바임 ...

④ 충명하여 유덕한 자는 특히 중국을 존모하여 기꺼이 돌아가 <중행독복>을 행하여 모든 나라를 이끌어나어 貫魚以宮人寵(주역 박괘 육오 ‘관어이궁인총이면 무불리. 즉 물고기를 꿰어 궁인을 총애하듯 하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의 상을 이룬다.¹⁰²⁾

「우주문답」 본문 결론은 이제까지 석과불식, 중행독복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즉 ‘박괘의 종결(조선에서 석과불식하며 유교 명맥을 보존한 역할의 종결) → 복괘의 시작(근본이라 할 중국에서 유교 명맥이라 할 중화가 회복) → 양의 재기(동점하여 조선에서 소중화 회복)’의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할일은 명확해진다. ‘중국에 대한 존모와 중행독복’의 행위이다.

유인석은 이를 역학으로 증빙하기 위해 「우주문답」 부록으로 유중교의 「낙서대연국도」를 인용하고 자신의 풀이를 더했다. 유중교의 「대연국도」에서 이미 중국과 군자의 중행독복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이제 중국과 중국을 향한 군자들의 영향이 「대연국도」에서 실현되었다.

대연국도를 총괄하면 4가지. ① 5가 중앙에 있어 바깥을 통할하는 것은 대일통의 상. ② 바깥의 8국이 각자를 주관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주관하는 상. ③ 바깥이 대칭하는 것과 10이 되어 5에서 절충해 얻어지는 것은 중국에 귀복하는 상. ④ 바깥 8국 가운데의 5가 가운데의 5를 향한 것은 외국의 현사가 중국을 숭앙하는 중행독복의 상.¹⁰³⁾

참고 : 우주문답의 「낙서대연국도」

102) 유인석, 『毅菴集』 권51, 「宇宙問答」, “又東焉而關小中華。至我朝而致極小中華之實。終焉爲魯存周禮。有如大宗家失宗祀。小宗家不得不權奉祀事。于以作剝上不食之碩果。天心所在。正見不偶。此其爲小中華必然之故也。今朝鮮至罔極。而碩果見食矣。嗚呼未知天心之爲如何而然也。然天有不息之道。陽無可盡之理。剝盡而復生。自然也。剝盡於小中華。其將反本還原。復生於大中華。至於爲雷聲噴兩間。朱光遍九宇。既復大中華。又東漸而復小中華如前乎。是吾所深望也。… 又衍其局而布置於外。一二三四五各因其方而成局。中御外外衛中。相對成列。皆效中局之爲法。統外全局。橫之縱之。無不相對爲二五。如中局外八局之五。皆聚首向中局。此外各國之爲國。雖有參差不齊。而舉皆取則折衷於中國。不得出其範圍之外。其聰明有德者。特尊慕中國。悅慕歸向。有中行獨復之爲。而亦有引其全國。致皆傾湊。爲貫魚以宮人寵之象也。”

103) 유인석, 『毅菴集』 권51, 「宇宙問答」, “蓋統全局而觀之。其至理無窮。而舉其大則有四。/ 一五居中局之中。統外八位。及外八局。即中國有建皇極。統中國與外國。爲大一統之象也。/ 一外八局皆有中位。以統其外八位。即外各國皆有君長。以主其國之象也。/ 一通全局。皆相對爲二五。得折衷於中局之中五。即舉宇內。無一國無一人。不歸服於中國天王之象也。/ 一外八局之五。皆聚首向中局。即外國賢德之士慕向中國。中行獨復之象也。”

洛書大衍圖

三八一 八四六 一六八
 二四九 七五二 九三〇
 七九五 三五一 五七三

二七九 四九二 六二四
 一三五 三(五)七 五(四)九
 六八四 八一六 一三八

七三五 九五七 五(一)三
 六(八)一 八(三)四 四(六)八
 二四九 四六二 九二七

5. 결론

- 19세기 화서학파를 포함한 위정척사의 유학자들은 유학 문명권의 황혼에 해당하는 시기를 살았다. 17세기 중반부터 병자호란-명의 멸망으로 형성된 조선중화의 시세관과 의리관에 익숙한 그들은 서양/일본의 압도적인 물리력에 직면하여 유교 문명권 자체의 소멸을 예감하였다. 차원이 달라진 국면에서 그들은 기존의 의리론을 지속하며, 문명권 전체의 운명을 읽기 위한 역학에 기초한 시세관, 특히 『주역』의 마지막 양효인 석과불식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위정척사라는 실천의 당위를 찾았다.

- 다만 시기에 따른 구분은 있었다. 이항로가 17~18세기의 인식을 그대로 지속했다면, 그의 수제자인 김평묵과 유종교는 이항로의 공적을 추가했다. 특히 유종교는 「낙서」를 새롭게 해석한 「낙서대연국도」 등을 통해 양효의 첫 시작인 군자의 중행독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1895년 전후의 을미사변, 단발령 그리고 1905년을 기점으로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최익현과 유인석 등은 이 시기에 석과불식 자체가 사라짐을 예감했다.

- 1910년 전후 유인석은 조국을 떠났고, 국망을 겪었으며, 중국의 변화(신해혁명과 복벽의 가능성)를 경험했다. 이것은 시세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소중화의 역할이 마감되며 박괘가 끝났고, 중국에서 유교의 명맥이 부활하는 복괘가 시작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부활하는 양에 대한 중행독복의 실천이 필요했고 미래는 중국의 중화로의 부활과 중화-소중화라는 전통 관계의 회복이었다. 물론 이는 선언적이거나 상상의 공간이 더 커진 것이기도 했고, 실현되더라도 復辟으로의 퇴행이었다. 다만 우리는 당시 유학자들의 독립운동을 민족주의 혹은 시의변통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함을 인지해야 한다. 그들은 유교문명권 차원의 구상을 끝까지 견지했고 그에 기반해 시의변통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을 굳이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문명 보편주의’에 가깝다.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4발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희 정

춘천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춘천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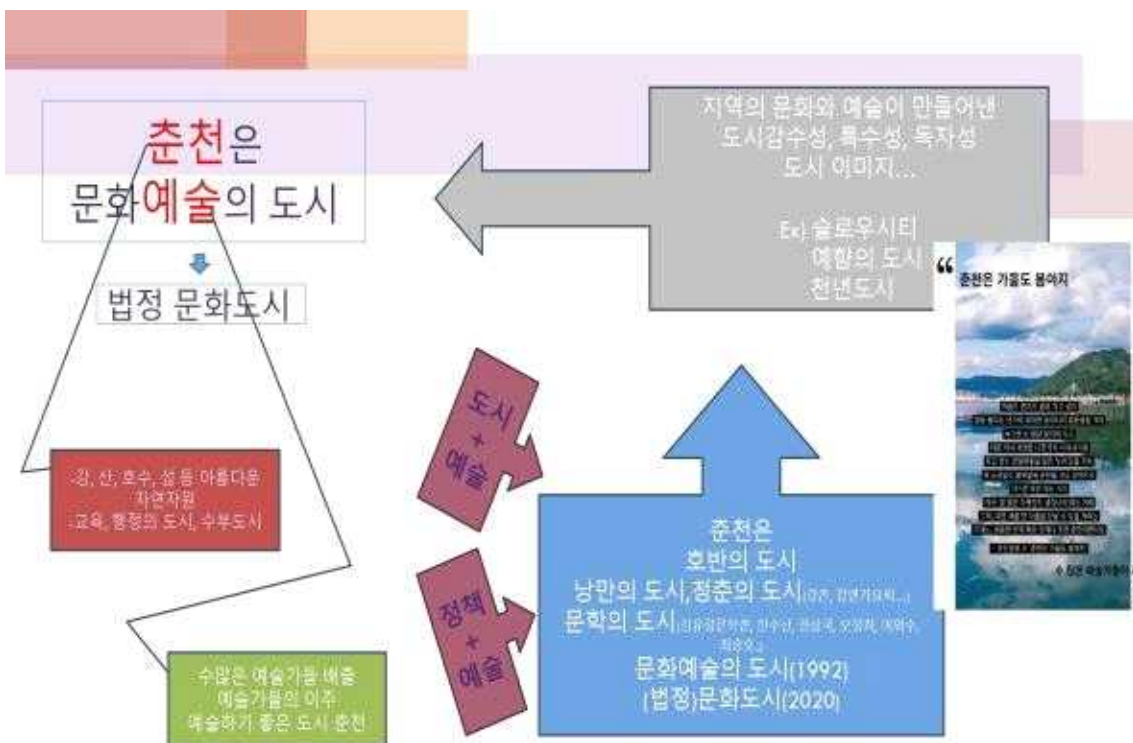
-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2024.5.29. 춘천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김희정

목차

- ▶ 1. “춘천의 예술” 을 둘러싼 정책환경 (구조의 이해)
- ▶ 2. 예술공간을 통해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 (공공과 민간, 지원과 협력)
- ▶ 3. 빈집프로젝트/도시가살롱으로 보는 시민 거점공간과 의미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
- ▶ 4.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 회복력

도시가 예술



문화와 예술의 개념화

문화 관련 주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1995년 전면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1994)',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6)', 콘텐츠산업진흥법(2010, 전면개정), '예술인복지법(2012)', '문화기본법(2014)', '지역문화진흥법(2014)', '문화진흥법(201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1)' 등

문화와 예술의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3장 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민학, 게임,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관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문화기본법 제3조/제4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방식, 공동체의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 구성원의 공유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권"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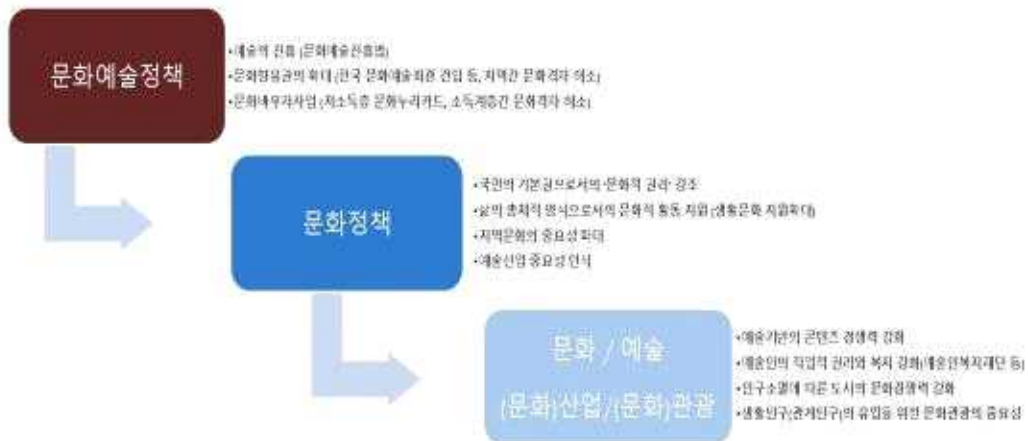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제2조>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예술인복지법 제2조>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살인(實踐),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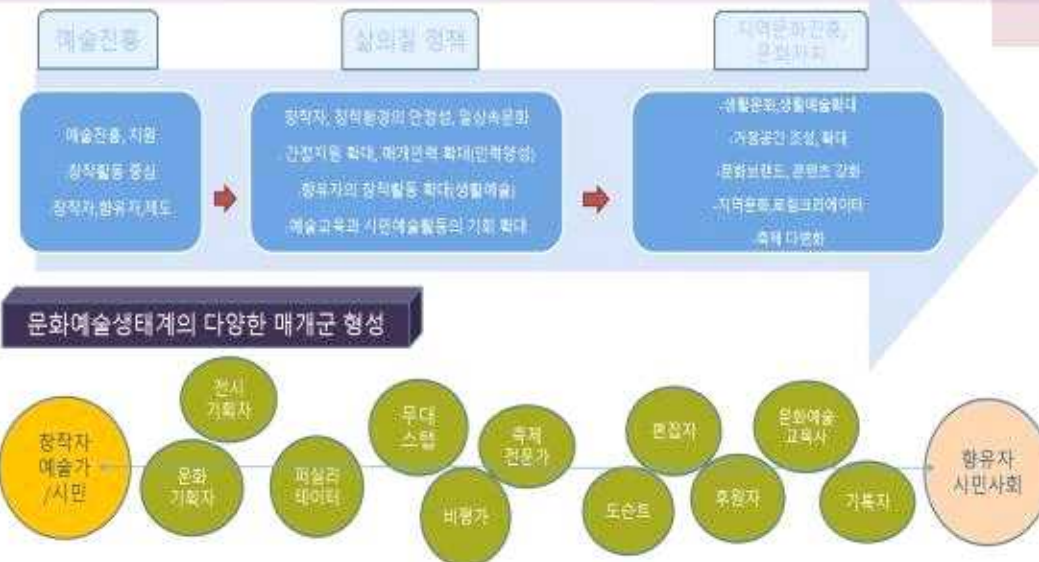


지역문화정책의 변화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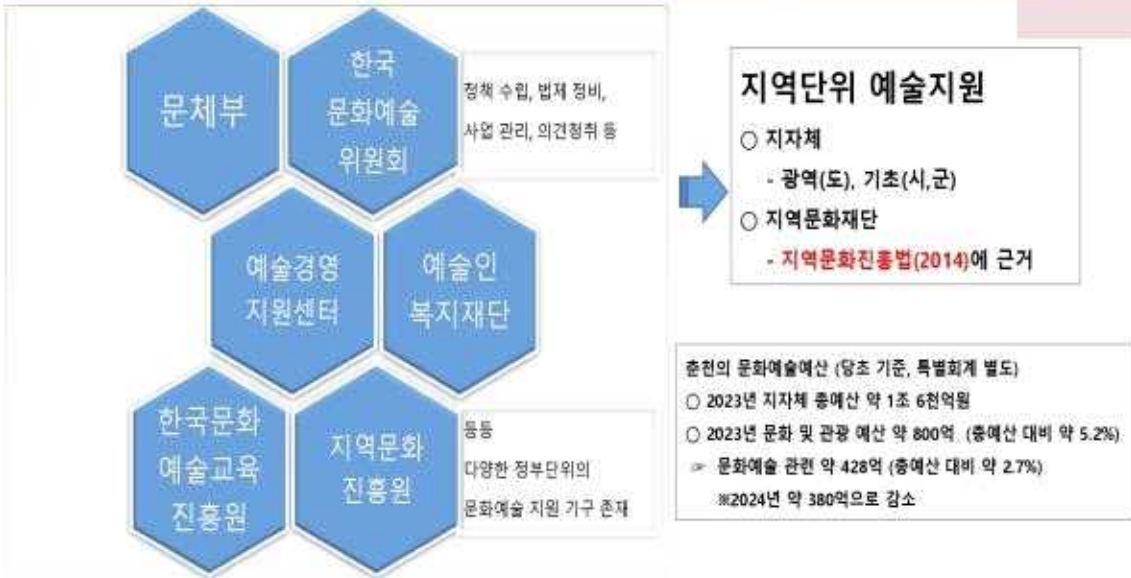
- ▶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단위 문화예술정책의 구체화 필요
 - 지역분권, 지역자치와 더불어 문화분권, 문화자치의 요구
 - 전통문화 보존과 예술창작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환경으로서 문화의 역할 증대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 주기의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 ▶ 지역문화진흥의 패러다임 변화
 - 관 주도의 정책 수립에서 **민간 위주의 사업 중심**
 - 예술진흥과 문화복지의 확대로 **문화자치**의 토대 마련
 - 전문가 위주의 사업 전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생활예술의 확대)
 - 지역문화성장을 통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민주주의**로의 논의 전환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적 민주화'에서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높이는 '문화민주주의'로 정책 전환

정책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생태계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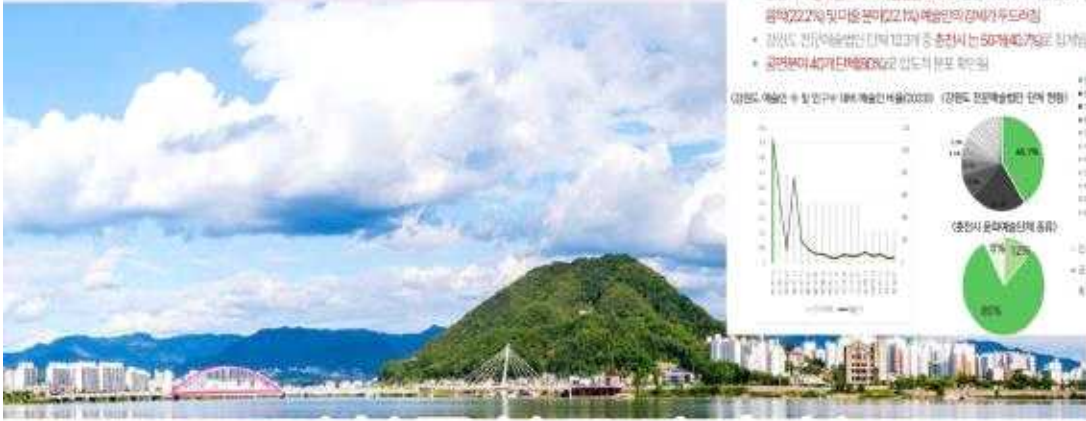
지역예술생태계의 토대_예술지원공공기구



문화예술생태계_지속가능한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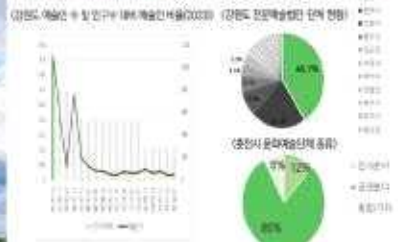


춘천예술인 현황



강원도 예술인 3명 중 1명은 춘천 예술인 공연분야 문화예술단체의 압도적인 분포

- 강원 지역은 크지 예술인 수는 3,500명, 강원시는 1,088(30.8%)
- 춘천시의 전체 인구 대비 예술인분 0.4%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데, 음악 22.2%, 무대예술 분야(22.1%) 예술인의 양이 가장 두드러짐
- 강원도 전(예술인)인 1만 1,033명 중 춘천시는 50%(46,7%)로 집계됨
- 공연분야 47개 단체인 68%로 압도적 분포 확인됨



예술활동증명 (24.4.20 기준)

강원도	춘천	장르별(춘천)
3,922명	1,196명 (30.49%)	음악268, 시각 263, 문학 229, 연극129, 그외(국악,무용,사진,연예,영화,건축,만화,기타)

공간으로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_ 공공인프라

- ◆ 춘천문화예술회관(1993년 개관) _ 대공연장 / 2중로비갤러리 / 전시장
- ◆ 상주단체 "춘천시립예술단" _ 시립교향악단(39년), 시립합창단(34년), 청소년교향악단(16년), 청소년합창단(16년), 인형극단(4년), 국악단(2년)



공공문화기반시설

강원도 내 문화기반시설 최다, 그러나 인구수 대비 적은 편

- 문화시설(기)은 시설은 최다지만 강원도 지역 경제 상황, 그리고 인구 규모상 문화기(시설)은 100%로 강원도 내 최(최)대 수임
- 춘천시 문화기(시설)은 강원도 17개 시·군·구 중 1위로, 문화기(시설)의 경우 100%로 최다, 인구 수에 비해 인(인)구 수 대비 적은 편임

(강원도 문화기(시설) 현황)

구분	강원도	춘천시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화기(시설)	100	100



문예회관 연간 가동일 220일, 86% 가동률, 객석평균점유율 82%, 연 관람객수 6만2천여명

공간으로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_ 공공인프라

축제극장몰집(춘천마임축제 운영)

춘천인형극장(춘천인형극제 운영)



봄내극장(춘천연극제 운영)

공간으로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_ 공공인프라

창작레지던시 '춘천예술촌' 조성 : 기무사 사택 리모델링, 창작공간 제공



공간으로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

아르셀생활문화센터 (무묘대관, 시민활동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창작, 연습공간)



재활프로젝트 (민간공간의 공공재화)

-민간 문화예술공간과 예술단체 매칭 (1~3월 예술계근공기에 시행)



국립극장



소극장 거꾸



소극장 온



소극장 연극마보들



국립극장



국립극장

공간으로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

공공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문화예술회관 / 대극장급(94석), 다목적 홀 • 선영극장 / 중극장급(48석), 전용극장 • 학제극장 올빛 / 소극장급(120석), 전용극장 • 분내극장 / 소극장급(95석), 전용극장
민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트레오리 홀(82석) / 신남 송대마을 / (사)도도 • 소극장 온(90석) / 푸평홀 / 김광태(연극인) • 소극장 연극마보들(74석) / 강원대 무문 / (사)우짜 • 소극장 미워(100석) / 호지홍 / 미우컴퍼니 • 예나아트홀(80석) / 천후리 / 고재진(성악가, 플레시 전용홀) • KT&G 성성아트 사운드홀(300석), 아워공민정(100석)
공공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문화회관 부속 전시장 / 280평 / 춘천시내 단일 최대 규모 • 분내미술관 / 구 중앙교회 건물 리모델링 / 춘천여협 운영 • 문화공간 맥 / 남춘천역사 학부 리모델링 / 춘천시민회 운영 • 국립춘천박물관 / 120평 / 국립박물관 소
민간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나리미술관(거두리, 정현경) ● 공간치(후평동, 이정호) ● 갤러리 4# (중영로, 권오영) ● 느린시간(안천리, 박대숙) ● 개성원미술관(시암리, 이승형) ● 차이로움(죽곡리, 여대복) ● KT&G성성아트당(신사관)성천동, KT&G

공간으로 본 춘천의 예술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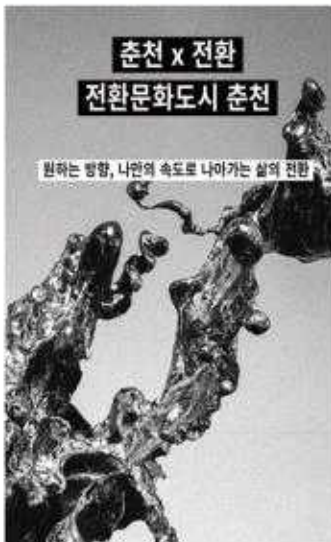
공공 인프라의 역할과 기능

- 문화행유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수 문화공간
-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자 해소를 위한 기본 공간
- 다양한 문화예술의 경험과 향유로 삶의 질 향상
- 기획공연, 전시 등을 통한 질 높은 문화콘텐츠 제공, 문화적 자부심 제고
- 문화적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의 안전감(문화적 안전감) 제고
- <이슈> ➡ 질 높은 문화서비스, 쾌적한 환경,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 도시의 격을 높이는 건축미를 가진 인프라 조성의 필요 (미술관, 공연장, 전용홀, 복합문화공간, 수장고 등)

민간인프라 역할의 의미와 이슈

- 보편권리로서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나눠가짐
-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적 서비스의 보완 역할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예술교류 거점 공간의 확대
- 지역에 자성하는 문화시장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바로미터
- <이슈>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공재원의 다중용 사업 필요 (채움·프로젝트), 민간 공간 활성화 및 공간운영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법정문화도시 지정 (2021~2025)과 생태계 변화



이문연
비전과 목표



도시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이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도시만의 삶의 방식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로

개인적
가치의 변화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나로부터 출발



개인적인 경험의 축적



시민의 삶의 변화



도시정체성의 도시문화

도시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시민문화거점공간의 구현_ 빈집프로젝트

공간(시민문화공간)

'빈집 프로젝트'를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및 시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 춘천문화재단은 지역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생활권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의 거점 조성, 8,558㎡의 공간을 방문할

〈춘천문화재단 시민커뮤니티 공간〉

구분	공간명	내용
모두의 삶	조각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여도 지역내 유휴공간을 조성, 운영
	부평동	문화예술교육 공간, 생활 및 여가 관련 목적의 공간
연생동	남대리교	1차 문화거리 기획하는 지역 활동공간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공간과 여가 공간
	기후동	기후를 좋아하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연생동	예술분야 중심의 커뮤니티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
연생동	남대리동	현대미술가 전시 및 작가와 관객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간
	연생동	지역 변화를 꿈꾸고 실천하는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

· 도심 유휴공간 리모델링

· 오프라인 연결거점으로 활용

· 도심 속 문화활동 거점공간 확보

· 10분내 연결되는 시민문화공동체 거점공간

모두의 삶 커뮤니티공간 활용 모습



모두의 삶

· 도심 내 소인형 전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
·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 공간



연생동-연생동

· 지역 내 다양한 활동, 주민들 및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 공간
·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 공간

시민문화거점공간의 구현_ 빈집프로젝트



빈집프로젝트 _ 모두의 살롱 후평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거점공간 _ 도시가 살롱

★ 민간공간의 공유지화, 공공재로 전환
- 도시가살롱, 여행자살롱 -

‘도시가 살롱’은 15분 문화순례(송림리미아역세권, 송림리와 중은 주변)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가치있는 권역이라는 의미 ‘울’로 구성된 ‘커뮤니티 도시 문화유형 활성화가 위한 사업’

1 개인의 욕망과 희망이 이웃과 연결되는 그리움
직통되도록 건설됨, 워크숍, 열거보고 공유형 운영

< 시민커뮤니티 지원 >
1 시민기획자 및 공유공간 발굴, 모기서임

2022년 도시가살롱 참여자 수는 총 3,882명

공간 주민장의 제안하는 모임 운영
대회의 모임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
책방, 카페, 공방 등 작은 공간으로 지역 사회 소통 플랫폼 확대

공간 주민장의 취향으로 시작되었지만, **함께한 시민이 제안하는 모임**으로 연결
동네 책방 간 공동 이슈 발굴, **중년 동네역량 네트워크** 발전

시민참여와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_시민협의체 '봄바람'

● 시민참여
- 문화시민모임 활성화

춘천 문화시민모임 봄:바람

시민·민중들의 문화의견을, 문화정책의 방향(정책)으로 전달하는 시민모임

성명	홍익하는 정책자	수용하는 민중자	홍익하는 문화자	홍익하는 시민자
주요내용	문화도시 내실화 안기여부 평가하는 단체	문화의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고 자정율을 만드는 단체	공공성 실현을 통해 실익적으로 행동해 보는 단체	각 분야 시민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기능을 확립하는 단체
주요도	관심, 평가, 성명	역할, 제시, 기대	행동, 연대, 실현	말씀, 관심, 확대

봄:바람 출범

문화도시를 잘 살리기 위한
시민·민중들의 문화의견을, 문화정책의 방향(정책)으로
전달하는 문화시민모임
문화도시 내실화 안기여부 평가하는 단체

공공 조제로 지켜지는 춘천 최초의 문화시민모임

문의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033-250-1111
문화도시사업팀
033-250-1111
문화도시사업팀
033-250-1111



시민참여와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1] 자발적 시민참여,
시민역량 징검,
문화적 공동체 의식 고도화,
안전한 도시문화 체감...

- ▶ 춘천마임축제 - 자원봉사 준비
- ▶ 춘천인형극제 - 인형극학교
- ▶ 춘천연극제 - 나도배우다, 시민극단
- ▶ 운서대합창페스티벌
 - 합창하는 도시 춘천
 - 50여개의 아마추어 합창단, 가족합창단 생성
- ▶ 봄1000(춘천)인 음악회
 - 아마추어 악기 동호회 합동연주
 - 춘천시향의 리드 공연, 협연



예술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나' _ 자발적 참여자이자 문화기본권 구현

춘천의 예술

↓

신의 선물(God's Gift, 자연자원) x 도시문화력

· 강, 산, 댐, 호수, 섬 ... 자연자원(환경자산)
· 사람-예술가, 시민, 건축, 도로, 도심숲, 공원... 도시자원(잠의력)

↓

도시생태계 / 문화와예술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도시안전망 <문화안전망>

도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

참고-문화정보

춘천문화예술정보 종합플랫폼
춘천 모아봄 (cccf.or.kr) / (문화재단 홈페이지 연동)



<포럼>

제2회
공간예술이포럼

예술시장은 지역에 존재하는가
예술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1토론

서 세 영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

논평 : 「18세기 춘천인 김낙수의 관원 활동과 일상 생활」

서 세 영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

염정섭 교수님(이하 필자)의 논문은 선산김씨 가문의 일기 가운데 ‘김낙수일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김낙수(金樂洙)가 관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활동했던 모습과 일상생활의 여러 양상을 정리하여 김낙수의 관원활동과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선산김씨 가문에 소장된 일기 자료, 고문서, 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선산김씨 가문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이 논문도 선산김씨 소장 일기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기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한 개인의 삶의 궤적과 사회적·역사적 사실이 어떠한 지점에서 교차하는지 보여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풍부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필자는 춘천 선산 김씨 가문의 일기류 자료의 특징 중 하나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정리한 생활일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관원으로서 업무와 지식을 요약 정리한 사헌일기 또는 관원일기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4쪽)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본 논문은 이 특징에 집중하여 이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1) 관원 활동과 2) 일상생활에서의 양상과 특징을 일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관원활동은 승정원,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남긴 일기 기록과 『승정원일기』·『영조실록』 등 관찬 사료의 기록을 비교하여, 1) 관찬 사료와 일기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사례를 제시하여 일기에 기록된 내용의 역사적 사실성을 재확인하고, 2) 일기에는 기록되었으나 관찬 사료에 기록되지 않거나 소략하게 기록된 사례를 제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일기를 토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록에서는 『실록』 등 관찬 사료의 역사적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실록보다 더 구체적인 일기의 기록 등을 제시하여, 일기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보다 확장하여 알 수 있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적이고 내밀한 한 개인의 삶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과 어떠한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상의 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논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1) 본 논문에서는 위의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세부터 72세까지의 기록이라 원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그런 점에서 사례를 추출하는 작업도 지난한 작업이었으리라 고충이 느껴집니다. 사례를 추출하기에 방대하므로, 논지를 좁혀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관원활동과 일상생활을 두 분야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내용의 사례가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므로 한 논문에서 다루기보다는 두 논문으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논지를 밝히는 데 더 적절해 보입니다.

2) 김낙수의 연관 활동과 관련하여 1762년 사간원 정언 사직소, 1776년 2월 사헌부 집의 상소, 9월 상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0쪽)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으로서 상소

를 올렸고 이 내용을 소개하여 언관으로서 김낙수의 자질과 정치적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와 관련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전거로 삼아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였고, 본 논문의 주요 자료인 김낙수일기 자료와의 비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기에서는 상소와 관련한 내용이 서술되지 않았는지요?

3) 『실록』 등 관찬 사료에 비해 일기기록이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이유에 대해 ‘조보’를 참조하여 정돈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15쪽) 본 논문에서는 천문 기록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언급하셨는데, 천문 기록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기록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지요? 또한 김낙수가 일기에서 참조하여 작성하였던 원 소스가 조보 외에 무엇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급히 쓰다보니 말씀이 정제되지 못하여 본의에서 벗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글로 다 풀지 못한 말씀을 갖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르쳐주시길 청합니다.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2토론

유 명 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춘천 민속문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유 명 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이 글은 춘천 민속문화의 현황과 전망을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무형문화재 보호법이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이어 최근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 속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께서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에서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미래에 전달 가능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춘천 지역의 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통해 주목할 만한 춘천의 무형유산을 정리하고 춘천의 미래유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글이 논쟁적인 성격도 아니고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으로 이견은 없으나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의례문화에 대해 재현 또는 재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기자풍속, 태아 예지법, 순산법, 혼인례, 상장례, 상여소리나 회다지소리(민요와 부합), 제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운데 춘천의 고유성과 특성을 띠면서 다른 지역과 변별력이 강한 항목을 선정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드러내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의례가 춘천 지역의 지역성을 잘 나타내어 전승하면 좋은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유산은 말 자체로만 따지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국가에서 미래유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척에서 적극적으로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춘천 지역 미래유산으로 ‘춘천닭갈비’를 꼽고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미래유산으로 추천할 만한 다른 유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이라는 장에서 발표자께서는 ①지역정체성 발굴, ②복합문화유산 발굴, ③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전승 주체 지원 방안 필요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승주체 지원 방안 필요는 토론자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 지원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받치리 장승제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활용 측면에서 다음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가지는 가정리근대문화유산 지구, 청평사고려정원, 호수국가정원, 예맥문화권 등입니다. 위 네 가지 문화자원들은 추진에 대한 진단과 세미나 등이 있었으나 정확한 진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가능성과 가치, 또한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3토론

엄연석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장

이경구-「화서학파의 학풍과 유인석 문명관의 특징 - ‘碩果不食’과 ‘中行獨復’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문

엄 연 석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장)

*총평:

위 논문에서 이경구 원장은 『주역』 「박괘(剝卦)」와 「복괘(復卦)」에 각각 나오는 ‘석과불식(碩果不食)’가 ‘중행독복(中行獨復)’이란 『주역』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화서학파의 학풍과 유인석 문명관의 특징을 해명하였다. 논문은 서두에 조선 후기의 ‘조선중화’인식과 19세기 화서학파의 시세관을 정리하면서 화서학파가 유학의 도덕적 가치기준에 의거하여 서양의 물질 문명, 제국주의세력이 동아시아를 잠식하던 당시 상황을 금수가 활개를 치는 시기로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논문에서는 14세기 고려말 이후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석과불식’과 ‘중행독복’이라는 『주역』 구절을 사용한 횃수와 사용자, 용례와 시기를 『한국문집총간』에서 찾아 표로 제시하였다. 이어 화서학파의 특징으로 ‘석과불식’이 존주(尊周)에 대한 계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항로, 김평묵, 유중교, 최익현이 당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가운데 형국(中局)’인 5의 자리에 위치한 군주 또는 세도를 책임진 선비가 어디서든지 도를 회복하는 핵심적 역할임을 피력한 유중교의 「낙서대연국도(洛書大衍局圖)」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유인석(1842~1915)의 시세관을 첫째, 1890년대~1908년 국내 활동 시기, 둘째 1910년대 중국에서의 인식 변화의 시기로 구분하여 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우주문답』(1913)의 시세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주역』의 음양 순환론의 가치론적 해석과 「낙서」의 수리적 원리를 역사적 흥망성쇠에 적용하여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 화서학파의 시대인식과 문명관을 살펴보면 이들 학파의 행동과 실천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논문을 읽고서 느낀 점과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질의를 통하여 필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첫째, 논문 앞에서 필자는 『주역』 「박괘」 상육효사인 ‘석과불식’과 「복괘」 육사효인 ‘중행독복’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복괘」에서 군자를 상징하는 효는 양효로 되어 있는 초효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행독복’이란 구절은 육사효에 나오는 효사입니다. 여기에서 육사효는 음효인데 군자로 일컬어지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효부터 상효까지 모두 음효인데 이 가운데 가운데 위치해 있고, 음효의 네 번째 자리가 음의 자리여서 중(中)과 정(正)을 모두 얻고 있기 때문에 군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괘」는 양효가 처음 아래에서 드러나는 괘입니다. 그리하여 「복괘」는 동짓날을 상징합니다. 동지는 밖으로는 아직 겨울로 한랭한 시기이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양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복괘」의 초양효는 현실에 실현되지 않은 도덕적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리역학적 해석에 따르면 저

「복괘」에서 육사효는 초양효와 음양으로 서로 호응하여 실천력을 가지는데, 이것은 암흑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도덕적 이념을 마음에 품고 실천을 하는 화서학파의 군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주역』의 음양론은 역사의 흥망성쇠, 인사의 시비선악과 길흉회인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괘가 바로 「박괘」와 「복괘」입니다. 이처럼 유학사상에서 역사의 순환과 인사의 흥망성쇠를 상징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와 연관하여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유가 경전에서 발견됩니다. 예컨대 『시경(詩經)』에서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이라는 시(詩)는 혼란한 시대에 주(周)나라의 도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또 『맹자(孟子)』에는 ‘우환에서 살아나고 안락에서 죽는다’(入則無法家拂士，出則無敵國外患者，國恒亡。然後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告子下-15_고 하여 평화로운 시기에 안락하지 않고 경계를 하고 곤궁한 시기에도 우환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순환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논문 11쪽 「낙서대연국도」에 관한 설명에서 “바깥 8국 가운데의 5가 가운데의 5를 향 한 것은 외국의 현사가 중국을 숭앙하는 중흥독복의 상”이라는 부분을 그림을 통하여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결론 부분에서 1910년 이후 유인석의 행보를 復辟으로의 퇴행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민족주의 혹은 시의변통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또 필자께서 화서학파의 입장을 굳이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문명보편주의’에 가깝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문명보편주의라고 하면 서양의 계몽주의적 이성관에 입각한 선진적인 서구문명이 19세기이후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서학가가 견지한 세계관이 ‘문명보편주의’ 라고 하면 어떤 뜻을 갖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화서학파는 물질적 수단보다 목적적인 도덕적 이념을 인류문명이 지향해야 할 가장 보편적인 이상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역』의 괘효사와 음양순환론을 통하여 개화기와 일제시기의 화서학파의 시대인식과 역사철학적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 해명해 주신 필자에게 감사드리면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제4토론

조 정 래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춘천의 예술 :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의 토론문

조 정 래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먼저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문화예술이나 학술활동이 회복된 점은 춘천시민들의 문화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반증하는 중요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특히 춘천지역의 인문학을 위한 학술적 향유와 지역사회의 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춘천문화재단 김희정 선생님의 발표는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으며, 최근 문화예술도시 춘천의 문화예술 현황과 정책 및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춘천의 문화예술구조와 정책 변화 및 지역예술 생태계, 춘천의 예술공간과 지원 협력, 시민거점공간과 예술확산 그리고 춘천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형 도시문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춘천시의 문화예술정책과 비전 그리고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통해 춘천시가 문화예술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정책연구와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토론자의 몇 가지 궁금한 사안과 제안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계승과 함께 현대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춘천시 문화예술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을 논함에 산업이라는 단어가 불편할 수 있으나, 문화산업과 연계된 정책적 고민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 내용에서 춘천시의 문화예술 특화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문화 거점공간 확대와 활용 등 시민과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나아가 예술가 중심의 시민을 위한 전시공연 활동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창작에 참여하거나 혹은 작가와 공동으로 예술 창작에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셋째, 2024년은 특히 인공지능(AI),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AI+ART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미 AI 예술 창작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술분야의 창작도구는 Midjourney, Gerated Photos, Google Deep Dream, Skech-RNN, Auto draw, 음악분야의 창작도구는 Beat Blender, Google Doodle Bach, AIVA, Duet, Neural Synth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예술 창작의 본질 논란과 예술의 개념 혹은 모방성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을 넘어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도전과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AI와 예술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춘천시의 인공지능 관련 문화에

술 정책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지역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문화예술 연계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춘천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원도는 물론 수도권 지역 작가의 작품 공연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춘천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향유 플랫폼(OTT 서비스 포함)으로서 도시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부록

일송기념도서관 소장 춘천학 관련 자료 목록

일송기념도서관 소장 춘천학 관련 자료 목록

순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청구기호	별치기호	언어
1	春川 南陽洪氏家: 古文書·古書	강원대학교 . 인문과학연구소 . 고문서연구센터	강원대학교중앙 박물관	2007	011.42 춘82ㄷ		kor
2	국립춘천박물관연 보(2004-2006)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2003-	069.0951 국29914ㄱ	(REF)	kor
3	충의문화	춘천문화원	춘천시 : 춘천문화원	2017	172.1 충68ㄷ		kor
4	유교문화	춘천문화원	춘천시 : 춘천문화원	2016	181.151 유145ㅇ		kor
5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 리얼크리스천 : 춘천한마음교회 부활신앙 이야기	김성로	국민일보사	2020	248.2 김53ㄴ		kor
6	(春川看護專門大學 論文集 第12輯(1982) 別刷) 相談을 爲한 聖書的 資源의 一考察	李光濬	春川看護 專門大學	1982	253.5 이14ㅅ		kor
7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춘천홀리클럽	춘천홀리클럽	2010	266.022 춘82ㄷ		kor
8	생명의 샘: 1939-1999 춘천교구 60년 기념 죽림동 예수 성심 주교좌 성당 증상록	천주교 춘천교구	천주교 춘천교구	1999	270 생34ㅅ		kor
9	시민운동 리포트	춘천YMCA	춘천YMCA	1999	302.4 시39ㅅ		kor
10	청소년운동 리포트	춘천YMCA	춘천YMCA	1999	302.4 청55ㄷ		kor
11	일제 강점과 6.25전쟁을 경험한 춘천 여성	박미현	강원여성연구소	2007	305.409511 5 박39ㅇ		kor
12	춘천개발을 위한 발자취: 1976-1987		춘천번영회	1987	307 춘82ㄷ		kor
13	미디어밸리 입지선정 제안서	강원도	춘천시	1996	307.095115 미27ㄱ		kor
14	춘천시 대학생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행복 고취 요인 조사	안문경	강원발전연구원	2007	307.095115 안37ㄷ		kor
15	21世紀 春川: 비전과 開發戰略: 공청회	江原開發研究院	江原開發 研究院	1995	307.095115 이59ㅇ		kor
16	춘천지역의 발전과 춘천사람	한림대학교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	2001	307.095115 춘821ㄷ		kor
17	춘천도시기본계획: 요약보고	강원도	춘천시	1982	307.095115 춘82ㄷ		kor
18	(2001년) 춘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강원도	춘천시	1993	307.095115 춘82추		kor
19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 경주, 춘천, 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도연	한국학술정보	2006	307.760951 원24ㄷ		kor
20	춘천시 사회조사 보고서 = Report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2011-	310.95115 춘821ㄷ	(REF)	kor

	on the social survey of chuncheon city						
21	춘천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가족, 복지, 문화.여가, 지역, 도로.교통, 가계소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2008-	310.95115 춘82ㄷ	(REF)	kor
22	춘성군 통계연보	강원도	춘성군	1991	315.115 춘53ㄷ	(REF)	kor
23	춘천군통계연보(1992-1994)	강원도	춘천군	1994	315.115 춘821ㄷ	(REF)	kor
24	춘천시통계연보(1982-2008)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	1982	315.115 춘82ㄷ	(REF)	kor
25	통계로본춘천생각: 2018 춘천시사회조사분석보고서	춘천시	춘천시	2018	315.115 통13ㄷ		kor
26	통계로 본 춘천생각 : 2019 춘천시 사회조사 분석보고서	춘천시	춘천시	2019	315.115 통13ㄷ 2019		kor
27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응용.계량분과	하계 학술대회	한국계량경제학회	2000	320.911 하143ㅎ		kor
28	신지방시대하의 강원경제 혁신방안	한국은행 지역경제세미나	한국은행 강원본부	2004	320.95115 신79ㅅ		kor
29	의정백서 :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	19	328.5115 의731ㅇ	(REF)	kor
30	의정백서 : 춘천군의회	춘천군의회	춘천군의회	19	328.5115 의73ㅇ	(REF)	kor
31	春川市議會史	春川市議會	春川市議會	2004	328.5115 춘821ㄷ	(REF)	kor
32	春川市議會會議錄	春川市.議會	春川市議會	19	328.5115 춘82추	(REF)	kor
33	江原嶺西地域工團入住業體經營實態調查結果	韓國銀行	韓國銀行 春川支店	1989	330.95115 강672ㄱ		kor
34	강원도의 시·군별 경제현황	한국은행	한국은행 춘천지점	2002	330.95115 강675ㄱ		kor
35	강원영서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실태 조사보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1	330.95115 강67ㄱ		kor
36	장기 실업자 심층추적상담 사업 보고서: (2001.12~2002.6)	춘천자활후견기관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2002	331.137 장17ㄷ		kor
37	춘천지역 외국인계절근로자제와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foreign seasonal workers system and cultural adaptation in Chuncheon	최인숙	한림대학교	2020	331.62 최69ㄷ		kor
38	춘천시가계저축실태조사		한국은행 춘천지점	1986	332.0951 춘83ㄷ		kor
39	(강원영서지역) 중소기업 조업체 금융이용실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0	332.109511 5 중55ㄷ		kor

40	춘천금고이십오년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춘천상호신용금고	1994	332.2 춘82ㄷ		kor
41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송낙원	강원발전연구원	2002	338.095115 송191ㄷ		kor
42	(강원지역) 감자산업 육성방안	한국은행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5	338.173491 감71ㄱ		kor
43	한류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상촬영지(춘천시)를 방문한 일본관광객을 중심으로	조미혜	강원발전연구원	2004	338.4791 조39ㅎ		kor
44	(21세기) 여가사회와 춘천지역 관광.레저스포츠 산업발전방향	한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한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02	338.479151 15 여11ㅇ		kor
45	21세기를 향한 강원지역 관광산업 육성방안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4	338.479151 15 이59ㅇ		kor
46	중소제조업체실태: 강원도 영서지역		한국은행 춘천지점	1986	338.64 중55ㄷ		kor
47	강원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방향과 전략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강원도,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2	338.642 강67ㄱ		kor
48	중소도시의 산업 재구조화와 제도적 역량: 춘천시의 첨단산업육성전략과 계획과정	김동완	한국학술정보	2008	338.951 김241ㄷ		kor
49	春川地域 尖端産業 綜合團地造成 基本構想	産業研究院	産業研究院	1990	338.95115 춘82ㄷ		kor
50	봄내법원 이야기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2014	340.02 봄192ㄴ		kor
51	春川市 現行 訓令例規集 : 2004	강원도	春川市	2004	344.209511 5 춘821ㄷ 2004	(REF)	kor
52	춘천시 현행 자치법규집 : 1986		춘천시	1986	344.209511 5 춘82ㄷ 1986	(REF)	kor
53	춘천시 현행 자치법규집 : 1989		강원	1989	344.209511 5 춘82ㄷ 1989	(REF)	kor
54	춘천시 현행 자치법규집 : 1991	강원도	춘천시	1991	344.209511 5 춘82ㄷ 1991	(REF)	kor
55	춘천시현행자치법규집	강원도	춘천시	1995	344.209511 5 춘82ㄷ 1995	(REF)	kor
56	春川市 現行 自治法規集 : 1999	강원도	春川市	1991	344.209511 5 춘82ㄷ 1999	(REF)	kor
57	春川市 現行 自治法規集 : 2004	강원도	春川市	2004	344.209511 5 춘82ㄷ 2004	(REF)	kor
58	춘천시현행자치법규집	춘천시기획담당 관실	춘천시	1993	344.209511 5 현92ㅎ 1996	(REF)	kor
59	춘천시 시정연감 : 1991	강원도	춘천시	1991	352.05115 시73ㄴ 1991	(REF)	kor
60	지방분권시대 춘천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2005	352.05115		kor

	읽기	사회과학연구소	출판부		지41ㄷ		
61	춘천행우	원낙희	조양	1992	352.05115 춘821ㄷ		kor
62	춘천시 시정연감 : 1992	강원도	춘천시	1992	352.05115 춘82ㄷ1992	(REF)	kor
63	춘천시 시정연감 : 1993	강원도	춘천시	1993	352.05115 춘82ㄷ 1993	(REF)	kor
64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연구 = Study on the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 focusing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Chuncheon city : 춘천시의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김경숙	한림대학교	2021	354.37 김13ㄱ		kor
65	춘천복지리포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6	361 한675ㄷ		kor
66	애타는 가슴하나 달랠 수 있다면	변영혜	춘천효자 종합사회복지관	2010	361.0092 고65번		kor
67	춘천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uncheon city happiness index	조근식	강원연구원	2019	361.009511 5 조16ㄷ		kor
68	청소년 봉사활동 사전교육이 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비교 = (A) study of the pre-volunteer education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juvenile volunteer activity-focusing on the juvenile volunteers in Chuncheon : 춘천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장재형	한림대학교	2011	361.37 장72ㄷ		kor
69	고령사회의 '액티브 시니어'와 자원봉사 = Active senior and voluntary services in aged society : focused on Chuncheon city : 춘천을 중심으로	진장철	강원연구원	2018	361.8 진71ㄱ		kor
70	노인 자살 연구 : 춘천 노인 생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윤현숙	한림대학교출판 부	2015	362.280846 노69ㄴ		kor
71	영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장미애	한림대학교 대학원	2022	362.61 장39ㅇ		kor

	depression : focusing on the elderly in Chuncheon : 춘천시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72	강원도 주택수요 분석 및 정책제언: 춘천시를 중심으로= Gangwon-do's housing demand analtsis and policy suggestions : focused on Chuncheon city	김승희	강원발전연구원	2010	363.5 김58가		kor
73	접근성 개선에 따른 강원 춘천권 주택시장 분석= Analysis of the Housing Market in Gangwon and Chuncheon through Improved Accessibility	김승희	강원발전연구원	2011	363.50951 김58ㄷ		kor
74	춘천 국제 물 포럼 논문집= Chuncheon global water forum	춘천 국제 물 포럼	춘천물포럼	2009-	363.61 춘821ㄷ		kor
75	춘천 물 포럼 논문집= Chuncheon water forum	춘천 물 포럼	춘천물포럼	2005-	363.61 춘82ㄷ		kor
76	춘천 호반 중도관광지 조성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1992.5	강원도	강원도	1992	363.7 춘821ㄷ		kor
77	춘천 호반 중도관광지 조성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1992.10	강원도	강원도	1992	363.7 춘821추		kor
78	춘천 호반 중도관광지 조성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보 완보고서) : 1993.7	강원도	강원도	1993	363.7 춘821추 Suppl.		kor
79	춘천 칠전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1992.2	한국토지개발공 사	한국토지 개발공사	1992	363.7 춘82ㄷ		kor
80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비디오 녹화자료]	춘천 MBC	춘천 MBC, 한림대학교 공동기획 [제작]	2011	364.1522 자512ㄷ		kor
81	춘천로타리클럽20 년사: 1966-1986	춘천로타리클럽	춘천로타리클럽	1986	367 춘82ㄷ		kor
82	춘천번영회십오년 사	춘천번영회	춘천번영회	1993	367.95115 춘821ㄷ		kor
83	라이온스 15년사:	춘천중앙라이온	춘천중앙	1989	369.5	(REF)	kor

	창립15주년기념지	스클럽	라이온스클럽		라69ㄹ		
84	춘천향교지		춘천향교	1987	371.030951 15 춘82ㄷ		kor
85	춘천국민학교 팔십오년사 : 1906-1991	춘천국민학교	춘천초등학교 동창회	1991	372.95115 춘82ㄷ		kor
86	춘천교백년사 : 1896-1996	춘천초등학교	춘천초등학교 춘천초등학교 동문회	1996	372.95115 춘82주		kor
87	春川機工三十年史	春川機械工業高等學校總同門會	春川機械工業高等學校總同門會	2000	373.5115 춘82ㄷ		kor
88	春川教育大學 50年史: 1939-1989	春川教育大學	春川教育大學	1989	378.1543 춘82ㄷ		kor
89	대학과 춘천 = University & Chuncheon	김미영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2	378.5115 대91ㄷ		kor
90	춘천상공명감 : 1993-94: 춘천시, 춘천군, 흥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상공회의소	춘천상공회의소	1992	380.06 춘82ㄷ 1993-94	(REF)	kor
91	춘천우체국개국 100년사	춘천우체국	춘천우체국	1996	383.4951 춘82ㄷ	(REF)	kor
92	춘천 MBC 신사업 구상을 위한 연구 1차 보고서	춘천문화방송· 기획심의팀	춘천문화방송	1999	384.54 춘82ㄷ		kor
93	춘천문화방송이십 오년사		춘천문화방송	1994	384.540951 춘82ㄷ		kor
94	도로개량이 소도읍 지역에 미치는 영향: 춘천~양구간 국도 46호선의 개량을 사례로	송낙헌	강원개발연구원	2000	388.1 송191ㄷ		kor
95	강원의 농·산촌마을 :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강원도문화원연 합회	강원도문화원 연합회	2015	390.095115 강671ㄱ		kor
96	사랑과 낭만의 도시 춘천 = Chun-cheon, the city of love and romance	이학주	박이정	2011	398.20951 이911ㄷ		kor
97	춘천의 마을 신앙	김충수	춘천문화원 강원지역 문화연구회	1998	398.410951 15 김84ㄷ		kor
98	가평, 춘천(4-04)의 자연환경: 화악산, 응봉, 가덕산, 계관산, 삼악산	환경부	환경부	1999	574.90951 가894ㄱ		kor
99	춘천시민의 의료이용양상과 연관요인	한달선	한림대학 사회의학연구소	1986	610.95115 춘82ㄷ		kor
100	建設誌: 中央高速道路 1段階 建設工事, 中央高速道路 (4車路) 建設工事(대구~안 동, 제천~원주, 흥천 ~춘천)	韓國道路公社	韓國道路公社	2001	625.7 건533ㄱ		kor
101	맑은 물 確保와 配分에 관한 法理	春川地方檢察廳	春川地方 檢察廳	1996	627 맑68ㄱ		kor
102	춘천물심포니	춘천물심포니추	춘천물심포니	2001	627 춘82ㄷ		kor

	개최결과보고서	진단	추진위원회				
103	댐과 춘천 : 춘천인 증언록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춘천문화원	2021	627.8 댐14ㄷ		kor
104	춘천시 영양 사업 보고서	춘천시. 보건소	춘천시: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641.1 춘82ㄷ	(REF)	kor
105	강원영서지역 공단 입주업체 경영실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2	658.04 강67ㄱ		kor
106	강원지역 수출제조업체 경영실태조사결과	한국은행 춘천지점	한국은행 춘천지점	1992	658.109511 5 강67ㄱ		kor
107	춘천실업리포트	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협 의회	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 운동협의회		658.311 춘82ㄷ		kor
108	춘천시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례 분석과 푸드플랜의 적용가능성 연구 = A case study on the food security in chuncheon city and applicability of food plan	정득	한림대학교 대학원	2018	658.83 정26ㄷ		kor
109	(楽しい) 博物館見學= Chuncheon National Museum	平郡達哉	國立春川 博物館: 서울: 通川文化社	2004	708.51 춘82ㄷH		jpn
110	국립춘천박물관 기증유물목록= List of donated collections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2007	708.951 국299ㄱ		kor
111	산해관을 넘어, 험해탄을 건너 : 동아시아 지식인의 교유	이현혜	한림대학교: 국립춘천박물관	2012	708.951 산92ㄷ		kor
112	江原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春川 威鳳門, 春川 朝陽樓	강원도	강원도	2008	709.5115 강6715ㄱ		kor
113	江原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春川鄉校	강원도	江原道	2012	709.5115 강6718ㄱ		kor
114	江原道 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高城 清澗亭, 春川 昭陽亭	대한민국. 江原道	江原道	2006	709.5115 강677ㄱ		kor
115	춘천근대미술 100년사: 1985년에서 1995년을 중심으로	김정희	한국미술협회 춘천시부	1997	709.5115 김73ㄷ		kor
116	강원도 도시 경쟁력 연구: 춘천, 원주, 강릉시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urban competitiveness of gangwon province : chuncheon.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2008	711.4 강67ㄱ		kor

	wonju, and gangneung						
117	춘천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향 연구=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based upon revitalizing commercial areas in the CBD of Chuncheon city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2009	711.409511 5 김43ㄷ		kor
118	춘천문화원: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6	725.17 춘82ㄷ		kor
119	춘천의 기념비 : 그 의미를 더하다	심창섭	산책	2019	725.94 삼81ㄷ		kor
120	춘천 소양로 천주교회 : 기록화 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1	726.6 춘821ㄷ		kor
121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5	726.6 춘82ㄷ		kor
122	강원서예대전	강원종합예술제 (강원서예대전 운영위원회	1996	741.318 강67ㄱ	(REF)	kor
123	(江原嶺西地域) 工藝品生産業體實 態調査結果:	한국은행	韓國銀行 春川支店	1989	745.2 공64ㄱ		kor
124	춘천, 사계절 꽃 자수 : 산과 들 자연을 주놓다	김예진	한스미디어: 한즈미디어	2014	746.44 김64ㄷ		kor
125	(강원지역)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과육성방안	한국은행	강원도	1998	778.5347 애199ㅇ		kor
126	그때는 사람들이 1959-1988 = Those days, people in Chuncheon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1	779.2 그22ㄱ		kor
127	두 개의 날개로 비상하는 축제: 춘천마임축제 20년	춘천마임축제 편집부	춘천마임축제	2009	792.3 두12ㄷ		kor
128	도깨비 되어볼까: 춘천마임축제 리포트	유현옥	다음	2003	792.3 유94ㄷ		kor
129	(전상국의) 춘천산 이야기	전상국	조선뉴스프레스	2014	796.522 전51ㄷ		kor
130	가을에는 소리가 있다	춘천여성문학회	작가정신	1995	811 가68가		kor
131	昭陽文學	韓國文人協會. 春川支部	韓國文人協會 春川支部	19 -	811 소62	(SER)	kor
132	水郷春川이아름다 운땅	삼악시동인회	태원	2002	811.1 수92수		kor
133	사랑이 그리우면 춘천을 찾으세요 : 이형식 제3시조집	이형식	시조문학사	2018	811.1 이947사		kor
134	춘천	김남극	시와소금	2015	811.1 표94표 v.22		kor
135	(33년만에) 서울과 春川 漢詩로 잇다	운현사회	산책	2020	811.1085 서671ㅅ		kor

136	자하신위의목록	신위	춘천역사 문화연구회	2018	811.1085 신67ㄹH		kor
137	春川아리랑	金永棋	春川文化院	1989	811.3 김6423ㄹ		kor
138	춘천에서 만나다	유인순	솔과학	2013	811.3 춘82ㄹ		kor
139	춘천 사는 이야기 : 전상국 산문집	전상국	연인M&B	2017	811.4 전513춘		kor
140	춘천, 마음으로 찍은 풍경: 문인 29인의 춘천연가	박찬일	문학동네	2009	811.42 춘82ㄹ		kor
141	鳳儀山 : 기억의 공유 에음길에서 : 문화예술 15인의 춘천 풍경여행	문소희	고려출판사	2011	811.8 봉68ㄹ		kor
142	삼악산 바람의 세월 그 길설에서 : 문화예술 14인의 춘천 풍경여행	문소희	예맥	2013	811.8 삼61ㄹ		kor
143	춘천의 음식 : 음식마다 숨겨진 서민들의 소박한 꿈과 땀 : 문화예술 14인의 춘천 풍경여행	문소희	디자인하우스	2018	811.8 춘821ㄹ		kor
144	春川의 옛風景 : 시간의 편린 머무는 시선 : 문화예술 14인의 춘천 풍경여행	문소희	예맥	2014	811.8 춘822ㄹ		kor
145	춘천의 고개 : 사라지는 것은 무엇 그리움이다 : 문화예술 14인의 춘천 풍경여행	문소희	디자인하우스: 말씀과만남	2017	811.8 춘82ㄹ		kor
146	다산과춘천	심경호	강원대학교	?	811.81 정62Z심		kor
147	茶山과 春川	심경호	강원대학교출판 부	1996	811.81 정62Z심1		kor
148	(뚜벅이들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여행 : 부산·전주·춘천	걷기여행취재팀	김영사	2008	915.1 걸141ㄱ		kor
149	(국역) 수춘지	김영하	춘천역사 문화연구회	2019	915.1 김643ㄹ		kor
150	(어느 날 문득.) 춘천 전주 경주	이지예	북노마드	2013	915.1 이79ㄹ		kor
151	도모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종합보고서		춘천시	2002	915.114 도295ㄷ		kor
152	강원도 땅 이름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춘천지사	1997	915.115 강671ㄱ	(REF)	kor
153	춘천의 문자향	권혁진	춘천시립도서관	2015	915.115 권94ㄹ		kor
154	춘천 화첩기행	권혁진	산책	2016	915.115 권94추		kor
155	두근두근 춘천산책	김수진	알에이치코리아	2012	915.115 김57ㄷ		kor
156	춘천의 지명유래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3	915.115 김64ㄹ	(REF)	kor
157	동내면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2021	915.115 동192ㄷ		kor
158	동면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2021	915.115 동34ㄷ		kor

159	신복읍 지명유래 : 강원도 춘천시 신복읍 지명유래 조사 보고서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2019	915.115 신47스		kor
160	남면이 민속문화	유명희	춘천문화원	2020	915.115 유34ㄴ		kor
161	(봄내길 따라가는) 느릿느릿 춘천여행	유현옥	문화통신	2016	915.115 유94ㄴ		kor
162	춘주지	춘천문화원	강원일보사	1984	915.115 읍79ㄷ	(REF)	kor
163	춘천 여행의 달인	이성일	리더스하우스	2012	915.115 이53ㄷ		kor
164	동산면 지명유래	이학주	춘천문화원	2020	915.115 이91ㄷ		kor
165	신동면 지명유래	이학주	춘천문화원	2020	915.115 이91스		kor
166	지금 우리는 경춘선을 탄다: 강촌-춘천 여행길라잡이	이명목	인간과복지	1997	915.115 지16ㄷ		kor
167	춘천군연감	강원도	춘천군	93	915.115 춘821ㄷ	(REF)	kor
168	춘천지리지	오강원	춘천시	1997	915.115 춘822ㄷH	(REF)	kor
169	춘천 문화유산답사기	고경희	전통과현대	2007	915.115 춘823ㄷ		kor
170	춘천 guide: 2005 Vol. 1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전통과문화	2005	915.115 춘824ㄷ		kor
171	춘천의 문화유적: 춘천의 문화유적 확보집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1997	915.115 춘82ㄷ		kor
172	춘천 중도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논문집 = Conference on the academic value and the identification of Chuncheon Joongdo ruins	동양고고학연구소	학연문화사	2020	915.15 춘82ㄷ		kor
173	춘천의 인맥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4	920.05115 김64ㄷ		kor
174	춘천의 세계씨족 풍양조씨 진양공파연구	풍양조씨자효회	풍양조씨자효회	1997	929.1 춘821ㄷ	(REF)	kor
175	춘천의 풍양조씨 진양공파 조사보고서	오강원	풍양조씨자효회	1997	929.1 춘822ㄷ		kor
176	춘천박씨연원	박광택	춘천박씨총친회	1987	929.1 춘82ㄷ		kor
177	同行	심재연	고려출판사	2015	951.01 동9211ㄷ v.1		kor
178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 박물관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3	951.01 서673스		kor
179	傳 三檜寺址 : 춘천 시험림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 박물관	翰林大學校 博物館: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2017	951.01 전511ㄷ		kor
180	春川三岳山城	車勇杰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0	951.01 차66추		kor

181	춘천 맥국 관련 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최복규	춘천문화원	1996	951.01 최45₩		kor
182	서울-춘천 고속도로 7공구 강촌IC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모	江原文化財研 究所	2008	951.01 최752서		kor
183	春川 牛頭洞 遺蹟 Ⅲ : 춘천 우두동 82번지 유치원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모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5	951.01 최752₩		kor
184	春川 君子里遺蹟: 서울-춘천고속도로 8공구 N·O지구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 원	예맥문화재연구 원	2009	951.01 춘8211₩		kor
185	春川 擧頭里 779-1番地 遺蹟	江原文化財研 究所	江原文化財研 究所	2009	951.01 춘8212₩		kor
186	春川 鉢山里 遺蹟 : 춘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신북-용 산) 건설공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 소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0	951.01 춘8213₩		kor
187	春川 牛頭洞 遺蹟 1 :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홍주희	강원문화재연구 소	2011	951.01 춘8214₩		kor
188	春川 西上里遺蹟 :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구 간내 B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정연우	예맥문화재연구 원	2011	951.01 춘8215₩		kor
189	春川 權花洞遺蹟 :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B구역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江原文化財研 究所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1	951.01 춘8216₩		kor
190	春川 權花洞遺蹟 :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C구역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 원	예맥문화재연구 원	2011	951.01 춘8217₩		kor
191	春川 擧頭里遺蹟 :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남서지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정연우	예맥문화재연구 원	2009	951.01 춘8218₩		kor
192	春川 玄岩里遺蹟 : 춘천 서면 문화산업단지 조성지구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정연우	예맥문화재연구 원	2011	951.01 춘8219₩		kor
193	춘천 삼천동 순환도로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노혁진	춘천시	2002	951.01 춘821₩		kor
194	春川 獐鶴里 I 遺蹟 : 소양5교~국도56호 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 소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1	951.01 춘8221₩		kor

195	춘천 천전리, 유적 : 춘천 신복 하수관거 건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951.01 춘8222₩		kor
196	춘천 송암동유적 : 춘천 의암 레저스포트타운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정연우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951.01 춘8223₩		kor
197	春川 中島洞遺蹟 :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문화재연구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3	951.01 춘82241₩		kor
198	春川 中島洞遺蹟 :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F지구 발굴조사보고서	정연우	예맥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공사	2012	951.01 춘8224₩		kor
199	春川 錦山里 遺蹟 :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금산리 유물산포지 2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김경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2	951.01 춘8225₩		kor
200	춘천 북한강수계 기존제방 보강공사 구간내(신매1제)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노혁진	한림대학교 박물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2	951.01 춘8226₩		kor
201	春川 牛頭洞 遺蹟 II : 한국폴리텍III대학 춘천캠퍼스 건물개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모	한국토지주택공사: 江原文化財研究所	2012	951.01 춘8227₩		kor
202	春川 獐鶴里 III 遺蹟 : 춘천 장학지구 대1-9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모	江原文化財研究所	2015	951.01 춘82281₩		kor
203	春川 獐鶴里 II 遺蹟 : 춘천 장학 국민입대주택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이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江原文化財研究所	2012	951.01 춘8228₩		kor
204	春川 錦山里 遺蹟 :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 단지 조성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금산지구)	최종모	春川市: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2	951.01 춘8229₩		kor
205	春川 舉頭2地區 宅地開發事業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951.01 춘822₩		kor
206	春川 中島洞 聚落 :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CI지구 발굴조사	지현병	원주지방국토관리청: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951.01 춘8231₩		kor

	보고서						
207	春川 權花洞遺蹟 :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홍순옥	한국철도 시설공단: 江原考古 文化研究院	2012	951.01 춘8232 ㄹ		kor
208	春川 中島洞 遺蹟 : 춘천 하중도 관광개발사업부지 내 B구역 발(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 구원	江原考古 文化研究院: 강원도	2015	951.01 춘8233 ㄹ		kor
209	춘천 천전리 115-1번지 유적 : 춘천시 신복읍 천전리 115-1·115-4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 所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6	951.01 춘8234 ㄹ		kor
210	춘천 천전리 78-1번지 유적 : 춘천시 천전리 78-1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 所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6	951.01 춘8235 ㄹ		kor
211	춘천 삼천동 269-3번지 유적 : 춘천 두산그룹사 연수원 신축공사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 所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6	951.01 춘8236 ㄹ		kor
212	춘천 근화동 206번지 유적 : 춘천 근화동 206번지 일원 캠페이지부지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 所	春川市: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8	951.01 춘8237 ㄹ		kor
213	춘천 서상리·신매리 유적 : 춘천 서면 서상리(247번지 일원) 서상·신매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지(서상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 所	江原文化財研 究所	2018	951.01 춘8238 ㄹ		kor
214	春川 新梅里遺蹟 : 춘천 서면 신매리(887번지 일원) 서상·신매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신매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홍주희	춘천시상하수도 사업본부: 江原考古 文化研究院	2018	951.01 춘8239 ㄹ		kor
215	춘천 삼천동 37-12번지 주택건축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신숙정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6	951.01 춘823 ㄹ		kor
216	春川 古城里 陶窯址 : 지방도403호선 지내-고성간	홍주희	강원도: 江原考古 文化研究院	2018	951.01 춘8241 ㄹ		kor

	도로확포장공사구 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17	春川 牛頭洞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The) excavation report on the Woodoo-dong Lotte Invens Woodoo park site in Chuncheon	김권중	江原文化財研 究所	2007	951.01 춘824ㄷ		kor
218	春川 栗文里遺蹟	예맥문화재연구 원	예맥문화재연구 원	2008	951.01 춘825ㄷ		kor
219	春川 昭陽路遺蹟: 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Report on the excavation of Soyangno site, Chuncheon	예맥문화재연구 원	예맥문화재연구 원	2009	951.01 춘826ㄷ		kor
220	春川 新梅里遺蹟 I: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공사구간내 A지구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Report on the Excavation of Sinmae-ri Site I, Chuncheon	예맥문화재연구 원	예맥문화재연구 원	2009	951.01 춘827ㄷ		kor
221	春川 錦山里 葛屯 舊石器遺蹟	강원문화재연구 소	강원문화재연구 소	2008	951.01 춘828ㄷ		kor
222	춘천 을문리 335-4번지 유적: 춘천 을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 소	江原文化財研 究所	2008	951.01 춘829ㄷ		kor
223	춘천 봉의산성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도	춘천시	1993	951.01 춘82ㄷ		kor
224	春川市 東面 萬泉里 古墳 發掘報告書	노혁진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0	951.01 춘82ㄷA		kor
225	춘천 하중도 재방공사 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최영희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2	951.01 춘82ㄷB		kor
226	춘천 항일독립운동사	이구용	춘천문화원	1999	951.06 이151ㄷ		kor
227	(翫齋) 李昭應의生涯와思 想	습재연구소	春川文化院	2005	951.06 이55ㅇ		kor
228	(의암) 류인석기념관 : 소장유물 ·상설전시안내 도록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2020	951.06092 유69유인		kor
229	(春川의 三一運動과) 湖菴 李俊容 先生	金應祚	글나무	2004	951.06092 이77ㄱ		kor

230	윤희순의사항일독립투쟁사	의암학회	춘천시	2005	951.063092 윤98○		kor
231	두번의 혈전 : 춘천전투와 낙동강교두보 사수	이대용	백년동안	2014	951.072 이22ㄷ		kor
232	이대용 장군 수기 : 춘천지구전투 한도선 중위의 천추에 빛나는 용전분투	이대용	육군군사연구소	2017	951.072 이22○		kor
233	고대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18	951.115 고22ㄱ		kor
234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총람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	산책	2021	951.115 춘82ㄷ		kor
235	강원도 도세요람 / 춘천풍토기	강원도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2016	951.15 강6724ㄱH		kor
236	고고학과 문헌으로 본 춘천문화의 정체성	한림대학교, 한국고고학연구소	진인진	2016	951.15 고14ㄱ		kor
237	고대문화	춘천문화원	춘천시: 춘천문화원	2018	951.15 고22ㄱ		kor
238	교동 : 봉의산이 품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향교마을	강명혜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2	951.15 교24ㄱ		kor
239	춘주열전(春州列傳)	권혁진	춘천시립도서관	2016-	951.15 권94ㄷ		kor
240	근화동 : 춘천의 과문, 호수와 청춘의 공간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1	951.15 근96ㄱ		kor
241	춘천의 역사와 문화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3	951.15 김64ㄷ		kor
242	春川 狛國의 傳説	金永琪	春川文化阮	1989	951.15 김64추		kor
243	(천년의 저력으로 천년 도약을 꿈꾸는) 소양동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2020	951.15 소62ㅅ		kor
244	신복읍 : 소양강과 자양강이 품어주는 맥국의 고도	권혁진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2	951.15 신47ㅅ		kor
245	약사명동 : 춘천의 전통시장, 희망과 서민의 공간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1	951.15 약51○		kor
246	소양호 문화자원 2차 조사 결과 보고서	유현옥	춘천시문화재단	2012	951.15 유94ㅅ		kor
247	춘천의 근대거리를 거닐다 : 1960~1970년대 춘천의 일상문화	유현옥	문화통신	2015	951.15 유94ㄷ		kor
248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생산공문서 자료 집성 해제 :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박승한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2017	951.15 일73○		kor
249	조운동 : 구름다리에 아침햇살이 따듯한 좋은 동네	권혁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2	951.15 조67ㄷ		kor
250	춘주의 역사와 세시풍속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1	951.15 춘77ㄷ		kor
251	춘주의 역사와 문화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1	951.15 춘77ㄷ		kor
252	춘주의 자연과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1992	951.15		kor

	문화유적				춘77ㄸ		
253	春川文化	春川文化院	春川文化院	1986-	951.15 춘82	(SER)	kor
254	春川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4	951.15 춘821ㄸ		kor
255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박물관, 춘천시	1997	951.15 춘822ㄸ		kor
256	춘천금석문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춘천문화원	1997	951.15 춘823	(SER)	kor
257	춘천리포트: 춘천의 삶과 꿈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1998	951.15 춘823ㄸ		kor
258	('99) 춘천리포트: 춘천의 삶과 꿈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나남	1999	951.15 춘824ㄸ		kor
259	춘천리포트 3: 분권시대의 춘천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나남	2004	951.15 춘825ㄸ		kor
260	春川鎬國의 歷史的 研究: 鎬國의 역사적 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강원향토문화연구회	강원향토 문화연구회	2005	951.15 춘826ㄸ		kor
261	춘천 리포트 4: 개방시대의 춘천	박기남	나남	2009	951.15 춘827ㄸ		kor
262	춘천이공 자료총서: 연구논문/학술세미나/시/산문/사진	심재연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2019	951.15 춘828ㄸ		kor
263	춘천리포트: 지방자치와 전환의 모색	한림대학교	나남	1991	951.15 춘82ㄸ		kor
264	춘천향토자료집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	1992	951.15 춘82춘		kor